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일시 2020년 10월 29일 (목) 13:30~18:00

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목차

제1부 사회변동

발표 1	2020 조사 개요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05
발표 2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정은미 (통일연구원)	17
발표 3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이종민 (한국은행)	37
발표 4	북한 보건의료 박상민 (서울대), 이해원 (연세대)	55
발표 5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김유연, 최은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65
토론	토론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이경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79

제2부 주민의식

발표 6	통일 인식 엄현숙 (북한대학원대)	83
발표 7	대남 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103
발표 8	북한실태 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17
발표 9	남한 적응 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35
발표 10	주변국 관계 인식 조동준 (서울대)	151
토론	토론문 김진환 (통일교육원), 정성철 (명지대), 박순성 (동국대)	161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1부 | 사회변동

발표 1

2020 조사 개요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조사 개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북한이탈주민 사회변동, 의식조사 사업



- 2007년부터 통일의식조사, 2008년부터 13년째 북한이탈주민 통일의식조사 실시
- 2011년부터 북한거주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년도 1년전에 북한을 떠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종합적 의식조사와 정책 시사점 기초자료
- 2012년부터 9년째 북한사회의 변화를 기록하고자 의식주, 시장화, 사회 개방성 등 생활상의 변화를 조사
-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시계열적 추세 변화도 추적

조사방법,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사기간	4/15-6/4	4/6-6/2	6/13-7/16	5/28-6/30	5/22-7/6	6/10-8/8	6/8-8/6	7/20-8/31	8/9-9/6	7/25-9/13
탈북연도										
2010	104									
2011	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2016						3	132			
2017								85		
2018								2	114	
2019									2	108
2020										1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132	87	116	109
조사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 매년 100~150명 안팎의 조사참여자를 조사. 최근의 감소추세에도 2020년에는 109명 조사

2020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일지

시기	내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발표 (1.1)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1.14) •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 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잠정 중단 협의(1.30)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연합사령부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연기 결정(2.27)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3.1 독립운동 101주년 기념사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3.4) 북한-트럼프 미 대통령 친서 교환(3.22) • 대통령,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3.26)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인간안보, 생명 공동체)(5.10) • GP 총탄 발사 관련 유엔사 논평(정전협정 위반)(5.26)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베라, 연락사무소)(6.4, 6.13) • 북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 • 대통령, 6.25 전쟁 제 70주년 기념사(6.25)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7.10) 대통령, 제21대 국회 개원연설(7.16)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8.15) •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6차 전원회의 진행('21년 1월 제8차당대회 소집 결정, 8.20)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9.21)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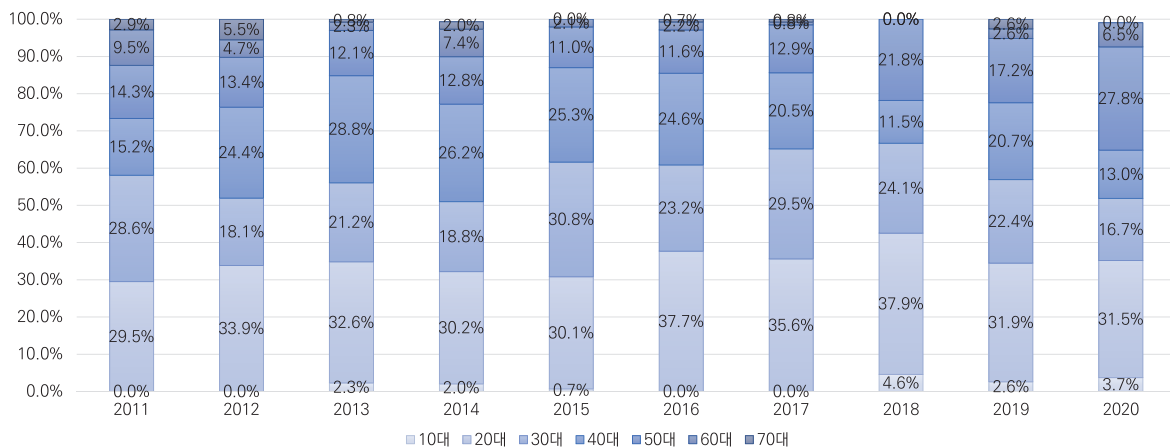
- 코로나 위기와 남북관계 교착 상태의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조사내용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조사내용	북한 주민의식									
통일의식	0	0	0	0	0	0	0	0	0	0
대남의식	0	0	0	0	0	0	0	0	0	0
북한실태	0	0	0	0	0	0	0	0	0	0
남한적응	0	0	0	0	0	0	0	0	0	0
조사내용	북한 사회변동									
주민생활 (의식주 등)	--	0	0	0	0	0	0	0	0	0
정보화	--	--	--	--	0	0	0	0	0	0
사회보장	--	--	--	--	--	0	0	0	--	--
보건의료	--	--	--	--	--	--	--	--	0	0
사적 경제활동	--	0	0	0	0	0	0	0	0	0
경제개혁인식	--	--	--	0	0	0	0	0	0	0
교육	--	--	--	--	--	--	--	--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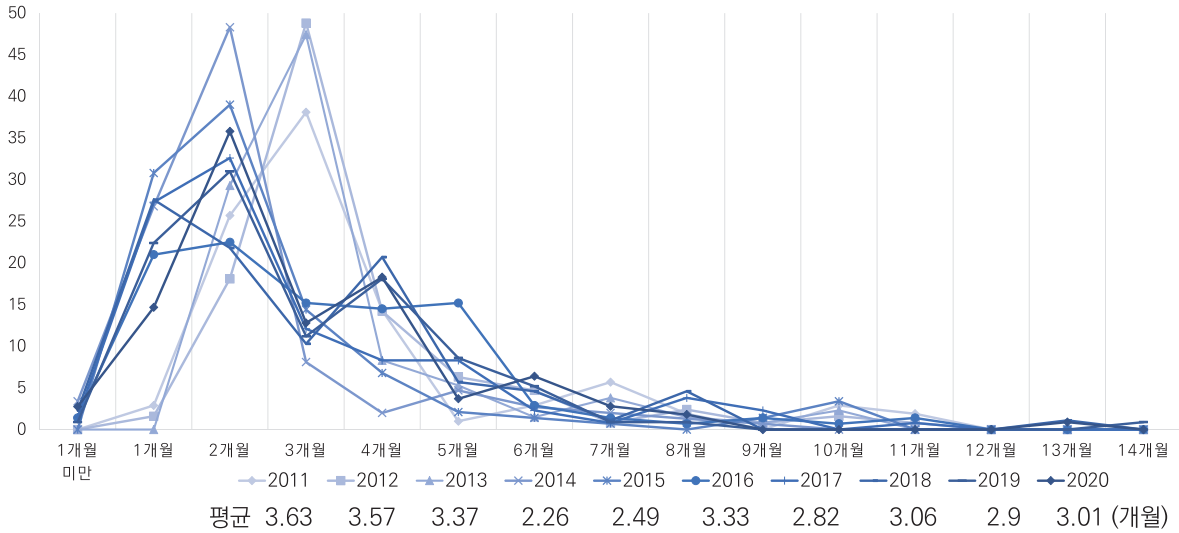
- 매년 4개 분야 통일의식, 6개분야 사회변동 조사. 2019년부터 보건의료 분야 2020년에는 교육분야 설문 항목 추가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2020년에는 20대 44명, 30대 18명, 40대 14명, 50대 30명, 60대 이상 7명 (젊어지는 추세, 특히 2018년)
- 남성은 34.3% 여성은 65.7% 로 2019년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증가함(2014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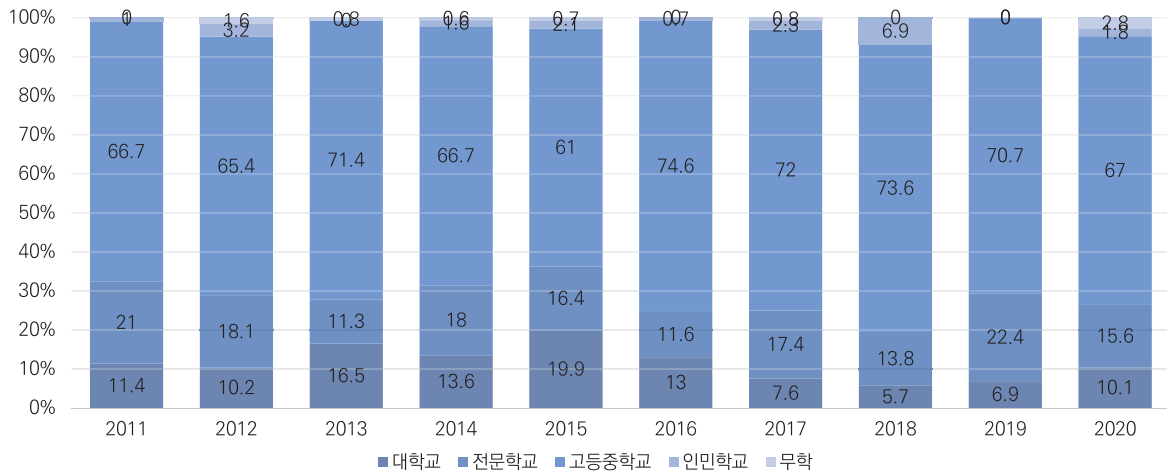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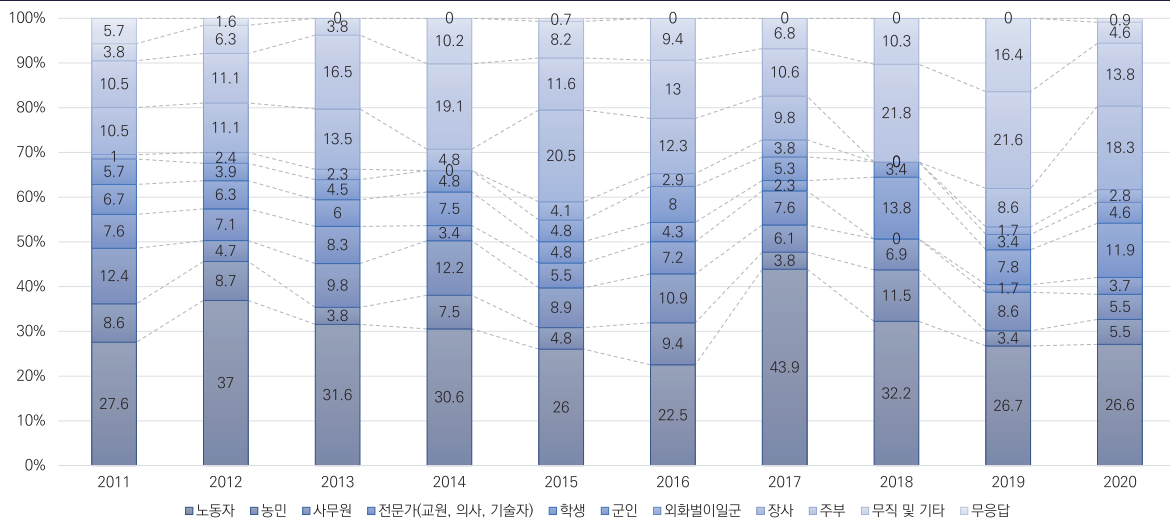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양	0	0	1	3	3	5	2	2	0	1
남포	0	1	0	2	1	2	1	0	1	0
개성	0	0	0	0	0	0	1	1	0	0
평안남도	5	0	2	4	3	2	0	2	0	2
평안북도	0	1	6	0	3	1	1	5	0	2
함경남도	4	14	11	9	5	4	6	4	5	5
함경북도	55	65	51	53	64	58	33	20	18	15
자강도	0	0	0	1	0	0	0	0	0	3
양강도	40	39	58	72	60	63	84	52	87	77
황해남도	0	3	0	1	1	0	4	1	0	0
황해북도	1	3	1	2	4	0	0	0	2	3
강원도	0	1	2	2	2	3	0	0	2	1
합계	105	127	132	149	146	138	132	87	116 (무응답 1명)	109

교육수준_탈북 전 최종 학력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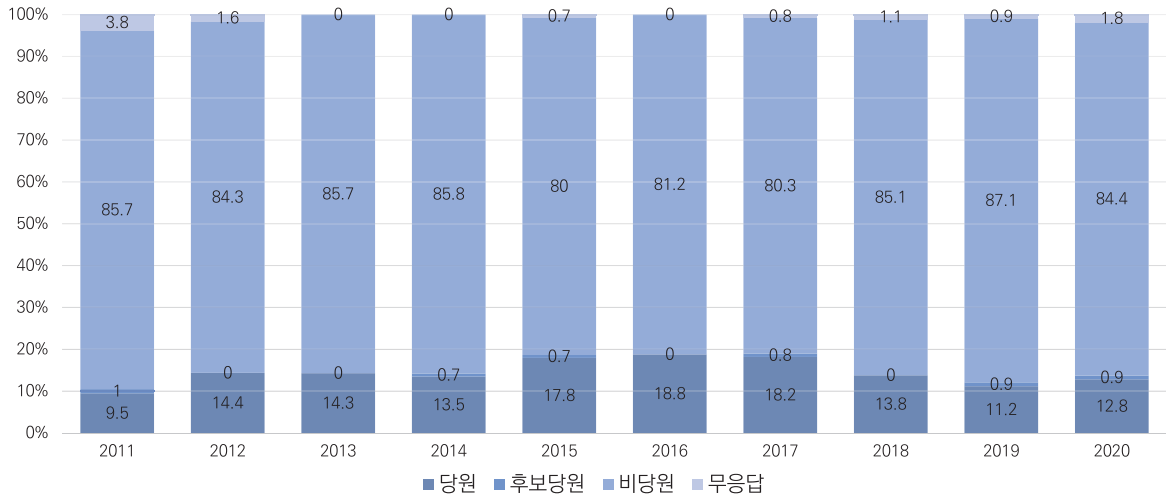
- 고등중학교 북한 학력자(67%)가 대부분이고 전문학교 이상 북한 학력자의 비중(25.7%)을 합하면 92.7%

직업분포_북한에서의 직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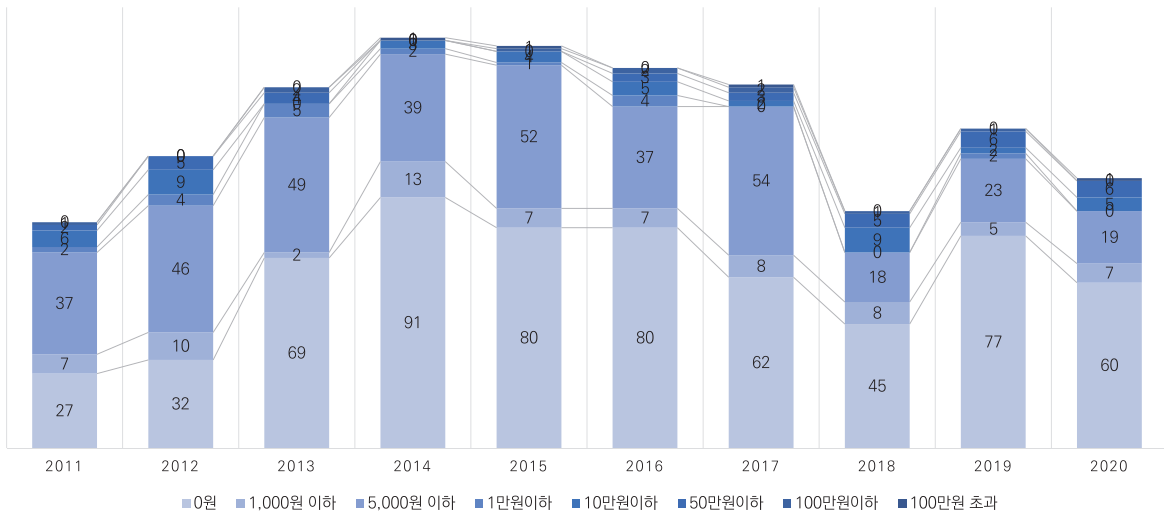
- 노동자가 가장 많고(26.6%), 장사(18.3%), 주부(13.8%), 다음으로 학생(11.9%) 순, 농민, 사무원, 전문가 비중 감소

당원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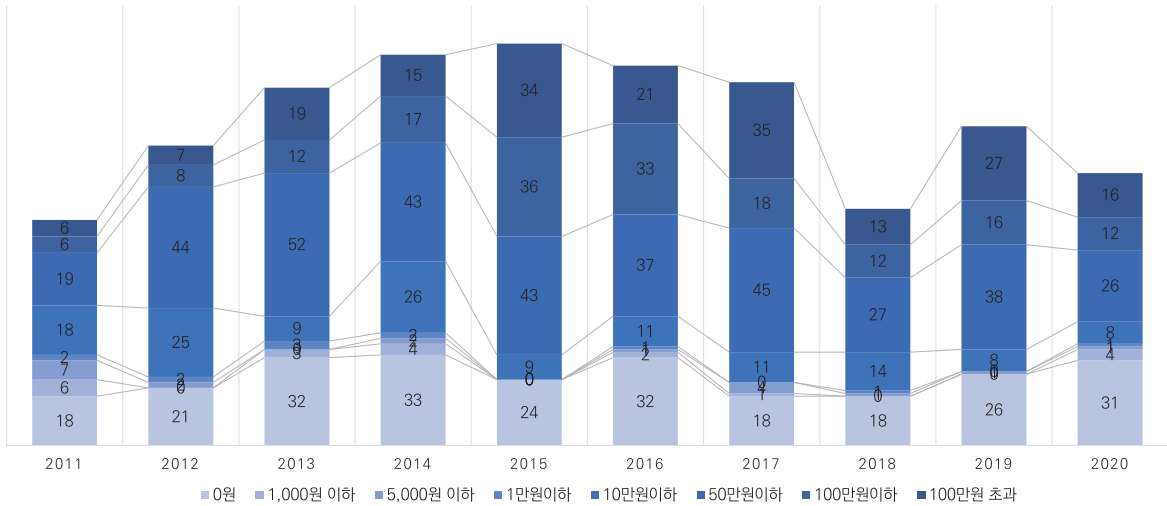
• 대체로 비당원들 비중이 높음. 당원 및 후보당원 (13.7%), 비당원 (84.4%) (※ 북한인구의 13%가 당원)

공식 소득 (공식 월급) 수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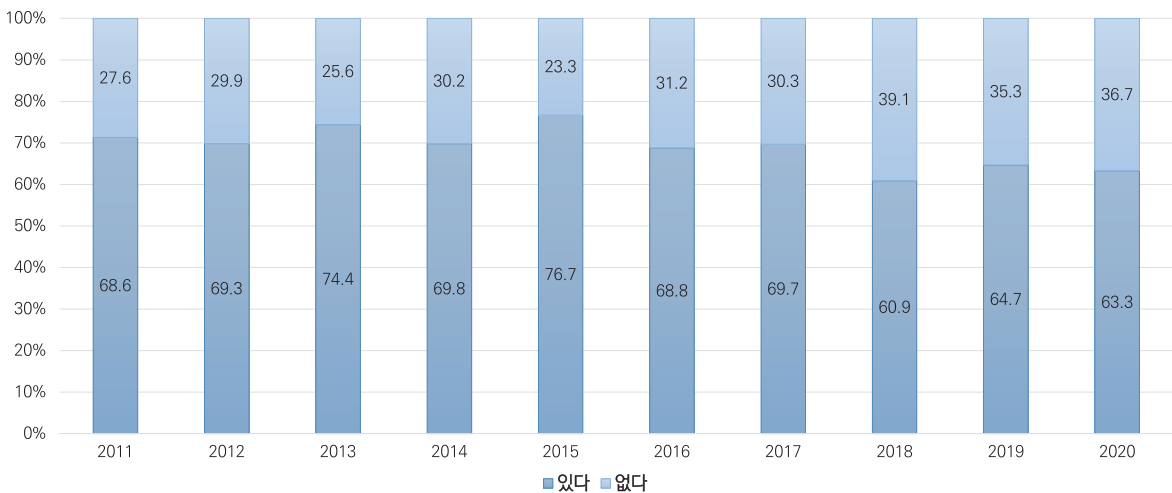
• 공식수입이 없는 비중이 높고 (60명), 5,000원 이하(19명), 1,000원 이하(7명), 50만원이하(6명), 10만원이하(5명)

비공식 소득 수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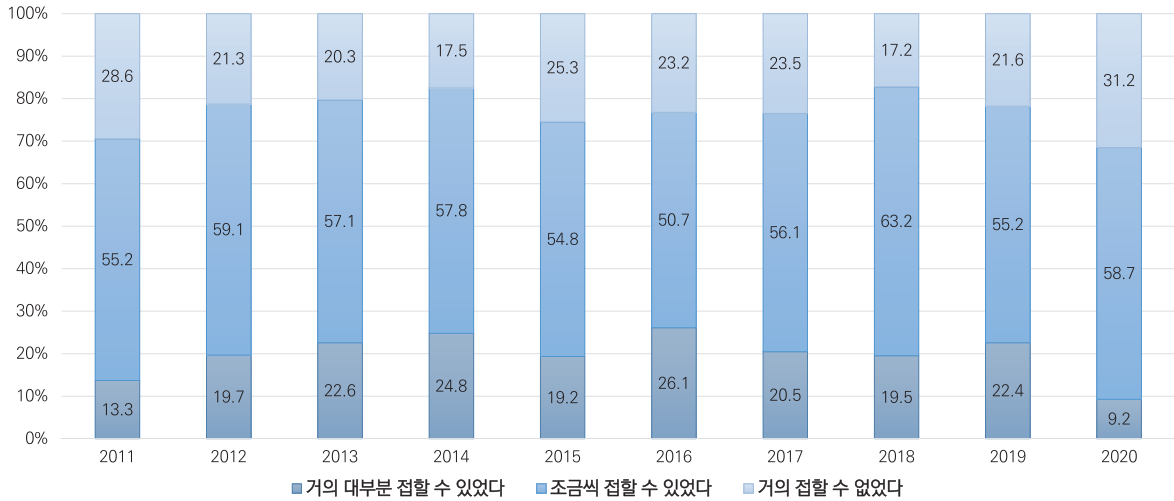
- 비공식수입은 50만원 이하 (26명), 100만원이하(12명), 100만원 초과(16명), 소득 없음(31명)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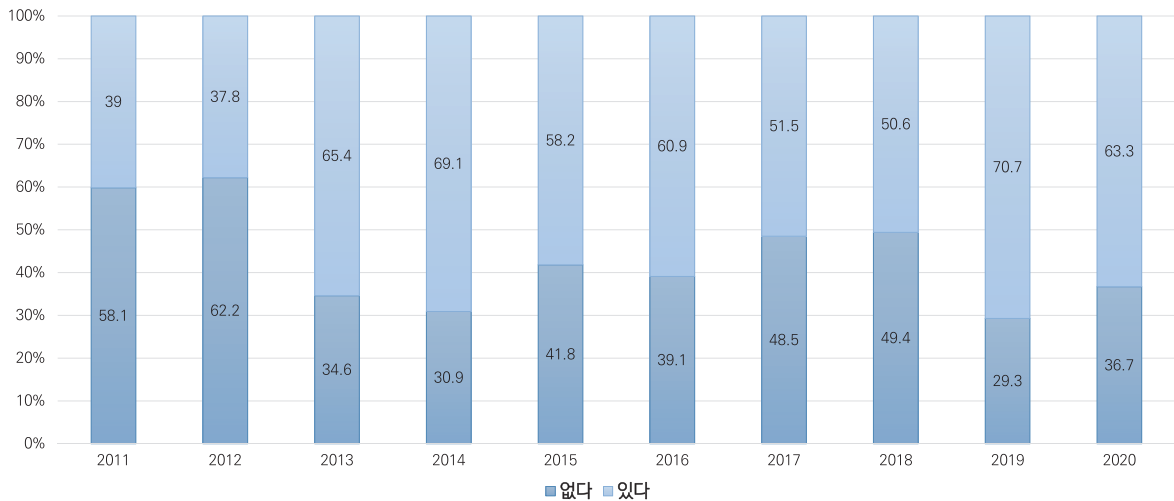
- 장사 활동 경험은 대부분 있는 추세(63.3%), 장사 경험 없는 비중은 2015년(23%)에 비하면 그 이후는 35% 수준

탈북 후 북한 소식 접근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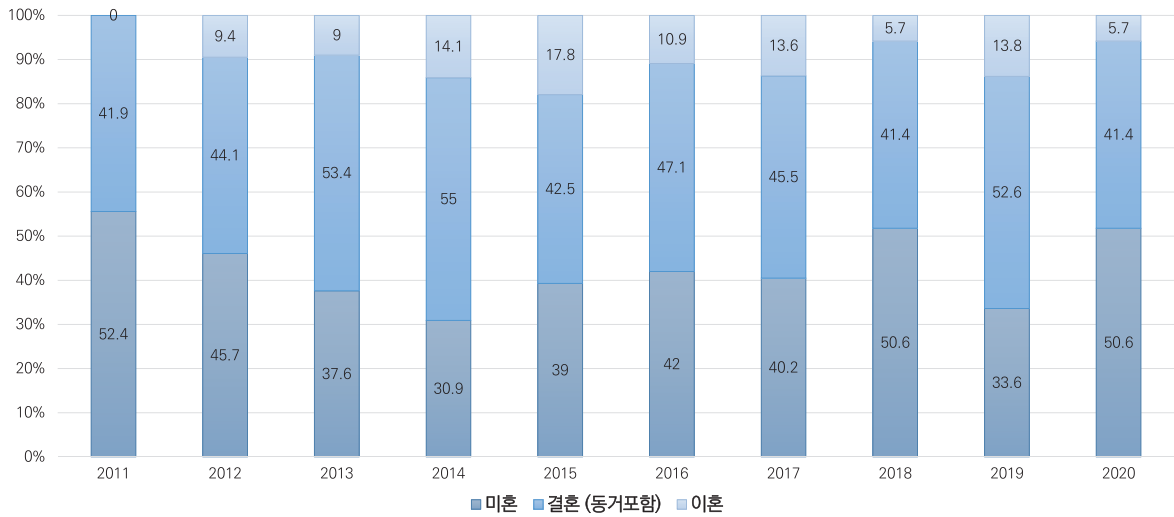
• 탈북 후 북한 소식을 대부분 접할 수 있지만(67.9%), 거의 접할 수 없다는 비중도 예년에 비해 높은 편(31.2%)

탈북 전 남한 내 친척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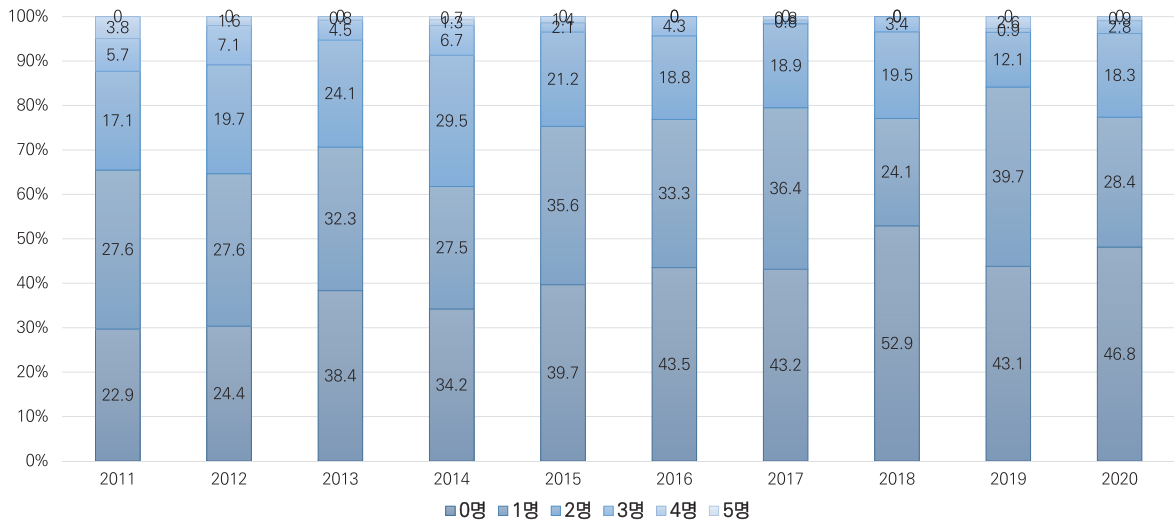
• 남한에 친척이 있다는 비중이 (63.3%)로 최근 2년간 평균 67%. (2017-2018년은 절반 수준)

현재의 결혼 상태 (단위: %)



• 미혼이 50.6%, 결혼이 41.4%

현재의 자녀 수 (단위: %)



• 자녀가 없는 비중이 46.8%, 1자녀가 28.4%, 2자녀가 18.3%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조사결과 발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1부 | 사회변동

발표 2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발표2: 북한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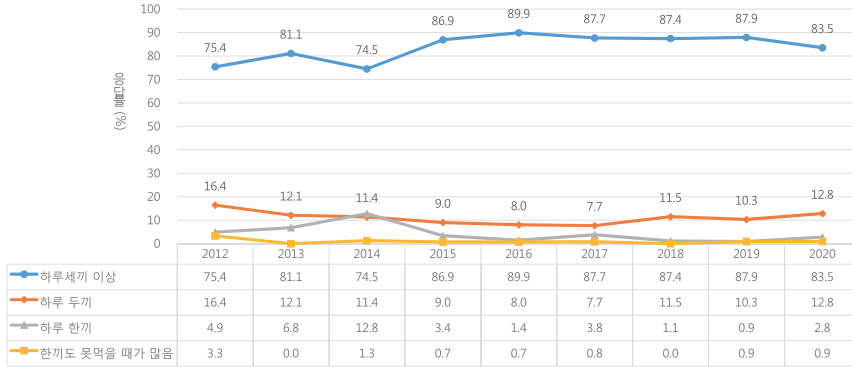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2. 가구 내구재 보유 현황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5. 계층별 주민생활
6. 시사점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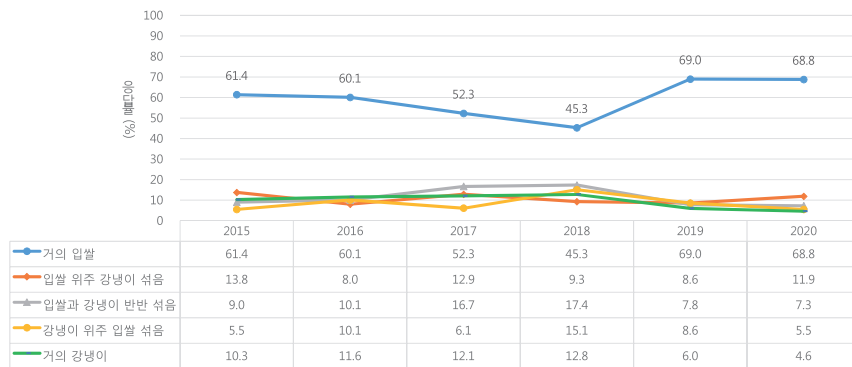
하루식사횟수



- 전년대비 '올해 조사에서 '하루세끼 이상' 응답률 4.4%p 감소
- 2013년부터 결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 한국은행 자료(201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의하면, 2019년 농림어업 생산량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음에도 식사 횟수는 소폭 하락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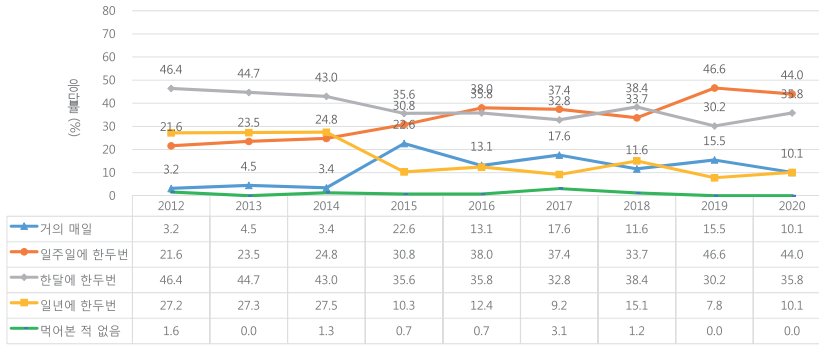
주식의 곡물 배율



-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유지
- '입쌀 위주로 강냉이를 섞어 먹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강냉이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
- 전반적으로 **쌀값 안정 추세 유지**로 주식에서 입쌀 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성별 입쌀 섭취량 격차: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응답 남자 75.7%, 여자 65.3%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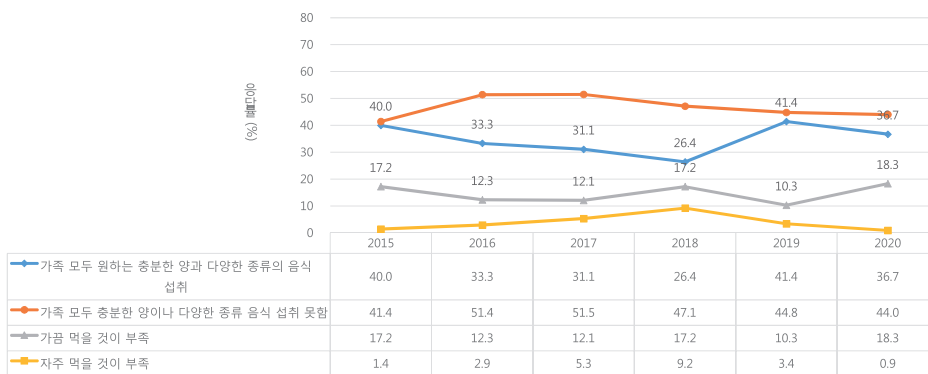
고기 섭취 횟수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올해 조사에서는 고기 섭취 횟수가 감소
-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감소(15.5%→10.1%), '일주일에 한두 번' 응답률 역시 전년 대비 소폭 감소(46.6%→44.0%)
- 2019년 북한 전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고기 섭취량 감소한 듯
- 성별 고기섭취량 격차: '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번' 섭취 응답 남자 59.4%, 여자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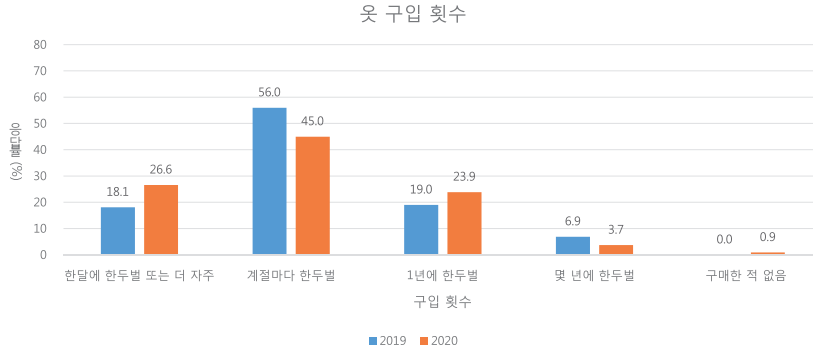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식생활

식생활 종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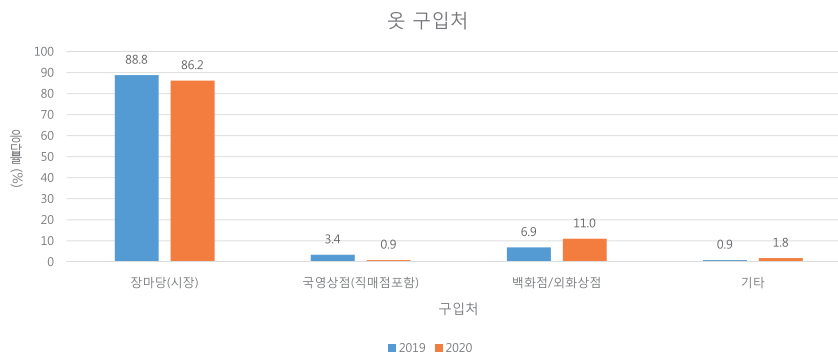
- '가족 모두 충분한 양과 질의 식사했다' 는 응답률 전년대비 감소(41.4%→36.7%)
- 반대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는 응답률은 전년대비 증가(10.3%→18.3%)
- 식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부정적 응답 증가는 주식보다는 부식물의 섭취 감소로 인한 영향이 작용한 듯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의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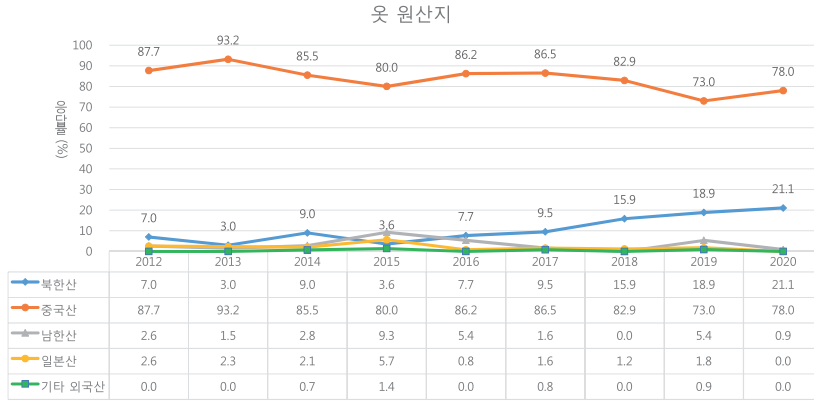
- 2019년 조사부터 일부 변경된 선택 범주 사용
 - '한달에 한두벌 또는 더 자주' 사 입었다는 응답률 전년 대비 크게 증가(18.1%→26.6%)
 - 반면, '계절마다 한두 벌' 사 입었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56.0%→45.0%)
- ※ 선택 범주 변경 전인 2018년 조사까지는 '계절마다 한두 벌' 응답이 절반 이상 차지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의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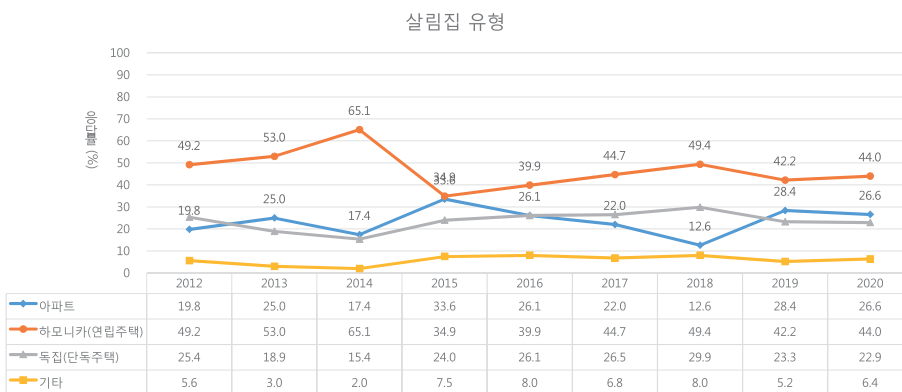
- 2019년 조사부터 일부 변경된 선택 범주 사용
- 3년 연속 장마당(시장)의 비중 감소 ('18년 90.8%→'19년 88.8%→'20년 86.2%), 소비 유통 부문의 다변화로 시장 비중 감소 추세
- 반면 '백화점 또는 외화상점' 과 같이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6.9%→11.0%)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의생활



- 2016년부터 5년 연속 북한산 의류 소비 비중 증가 추세 유지, 올해 조사에서 처음 20%대 돌파, **경공업 부문의 국산화 정책** 효과 가시화
- 전년까지 중국산 의류 소비 비중 감소세 유지하다 올해 소폭 증가
- 대북제재 강화로 남한산과 일본산 의류 소비는 거의 없음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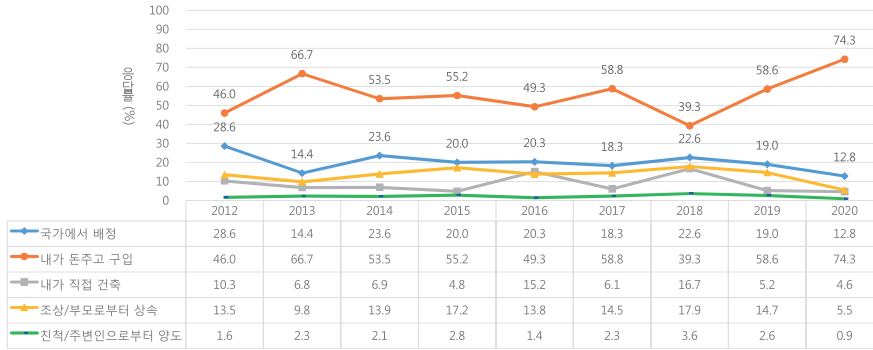


- 연립주택 비중 가장 높은 추세 유지, 전반적으로 전년조사와 비슷한 살림집 유형 분포 (연립주택 > 아파트 > 단독주택)
- 유엔인구기금의 '2014년 북한 사회경제, 인구, 보건 조사'(DPRK SDHS 2014)와 비교해 아파트 비중은 약간 많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중은 적게 나타나는 경향

※ DPRK SDHS 2014, 아파트 25.0%, 연립주택 41.7%, 단독주택 32.8%, 기타 0.5%

1. 식·의·주 실태와 변화: 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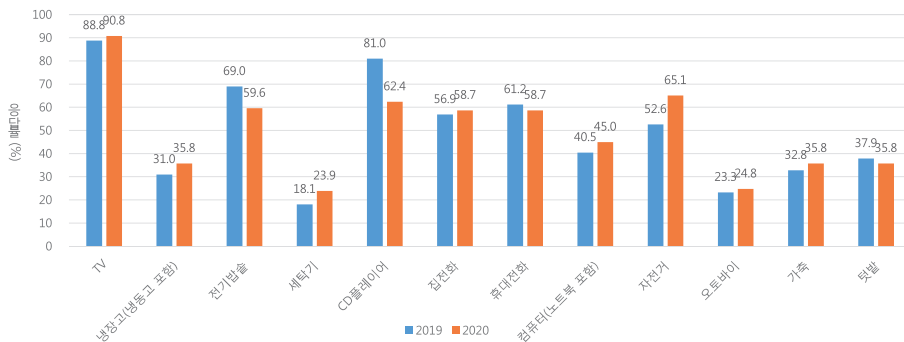
살림집 장만 방법



- 살림집을 '내가 돈주고 구입' 했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58.6%→74.3%),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거래를 통해 살림집 장만, 활성화된 주택시장 실태 드러남
-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받았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 (14.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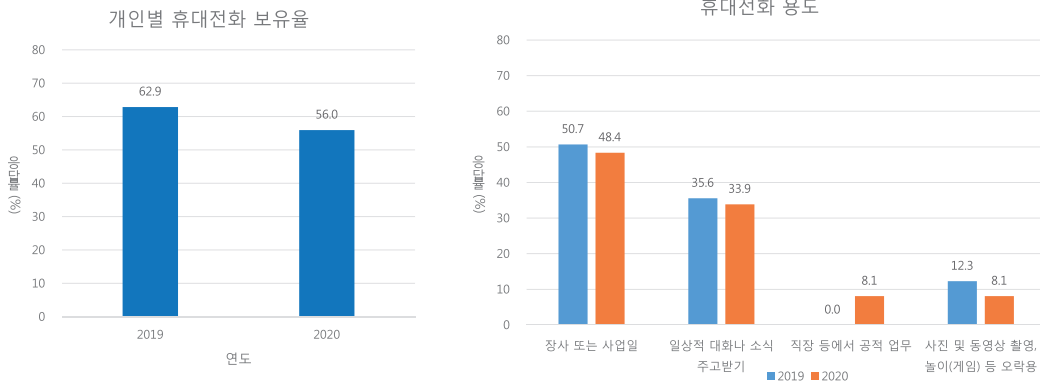
2. 가구 내구재 보유 현황

살림집 내구재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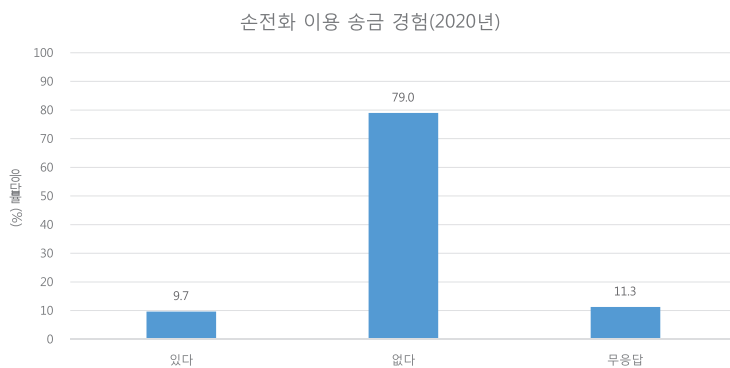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가구 내구재 보유율이 상승, 다만 USB를 통한 녹화물 시청이 대세인 관계로 CD플레이어의 보유율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81.0%→62.4%)
-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한 '2017 DPRK MICS'(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와 비교해 냉장고, 세탁기, 오토바이 보유율이 상승
- 국가의 제한적 전력 공급 상황에서도 가구별 자체발전체계(태양광판+축전지) 구축으로 전력소비 높은 내구재 보유율 증가 추세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휴대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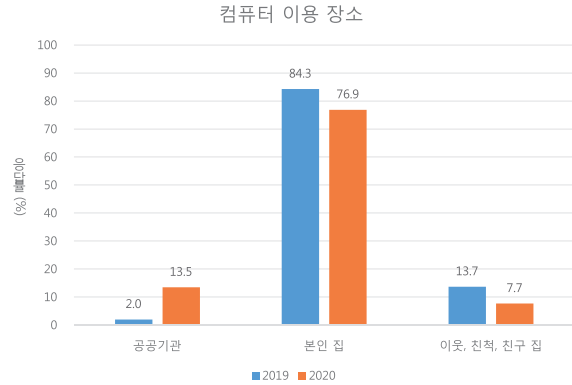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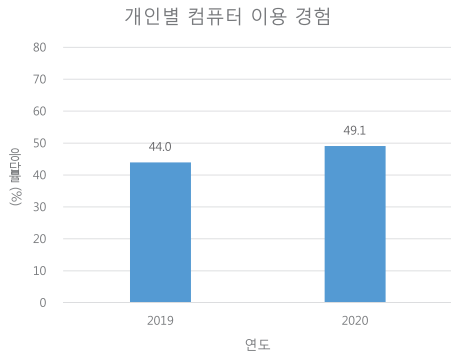
- 재북시 개인별 휴대전화 보유율 전년대비 감소(62.9%→56.0%)
- 휴대전화 용도로 '장사 또는 사업일'의 응답률(48.4%)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전년조사와 달리 올해조사에서는 '공적 업무'의 응답률이 8.1%로 집계, 조사표본에 10대 연령집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오락용' 응답은 과소 표집된 듯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휴대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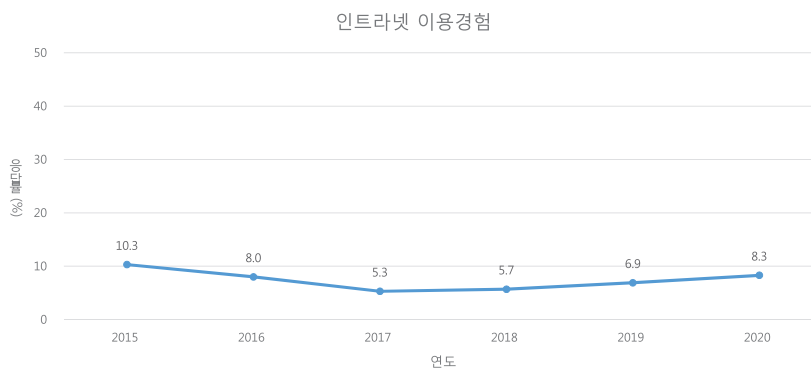
-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손전화(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 문항 포함
- 조사 결과, '경험이 있다' 는 응답률 9.7%로 아직 휴대전화를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가능한 현실임은 파악
- 휴대전화 안에 금융거래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앱이 탑재된 것은 아니고 개인간 금융거래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현금거래 대체재로서 유사 모바일 결제)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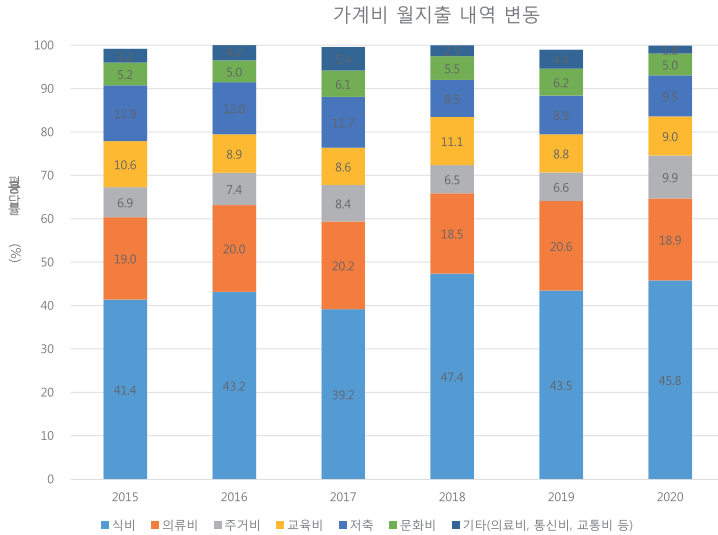
- 개인별 컴퓨터 이용 경험률 전년대비 상승(44.0%→49.1%), 연령대 낮을수록 이용률 상승
-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정책 강조로 향후 컴퓨터 이용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컴퓨터 이용장소로 '공공기관' 응답률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2.0%→13.5%), 하지만 여전히 자가 컴퓨터(특히, 노트북) 보유율이 높아 본인집에서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
- 성별 컴퓨터 이용 경험 격차: 남자 54.1%, 여자 44.4%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인트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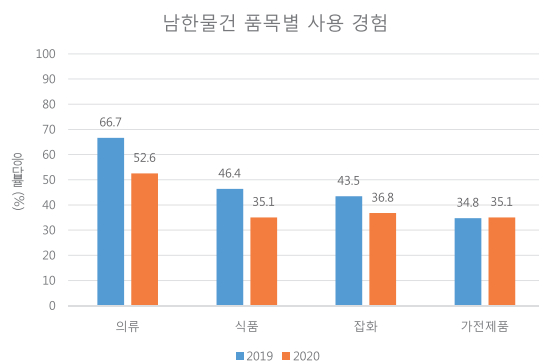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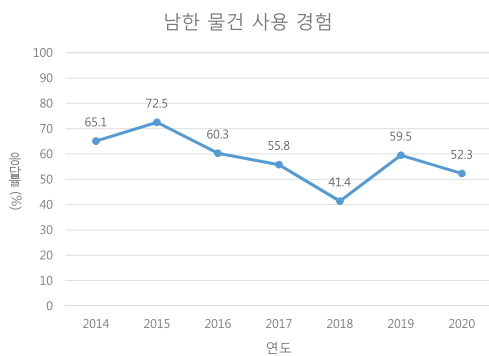
- 국가망('광명')의 전국지역 구축,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한 전국 주요 기관들의 인트라넷 연결 등을 선전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정보네트워크 접근은 매우 제한적 수준
- 인트라넷 이용 경험 응답률 지난 5년 동안 10% 미만 수준
- 2017년의 'DPRK MICS' 에서 인트라넷 접속 경험률이 1.4%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높은 편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월 지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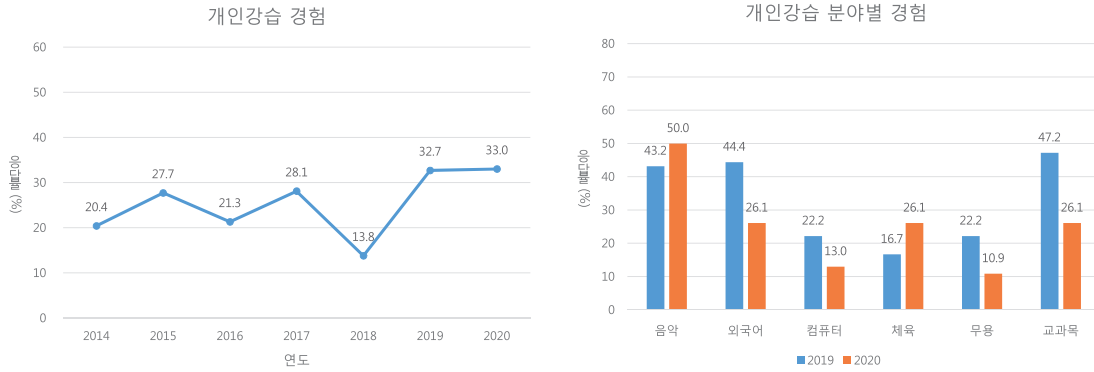
- 가계지출 중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경제 구조 지속
- 저개발국가의 가구 소비지출 구조
- 전년대비 주거비의 상승이 뚜렷하며, 2015년 조사 이후 올해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높음(9.9%), 살림집 거래 활성화 및 가격 상승의 영향인 듯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남한물건 사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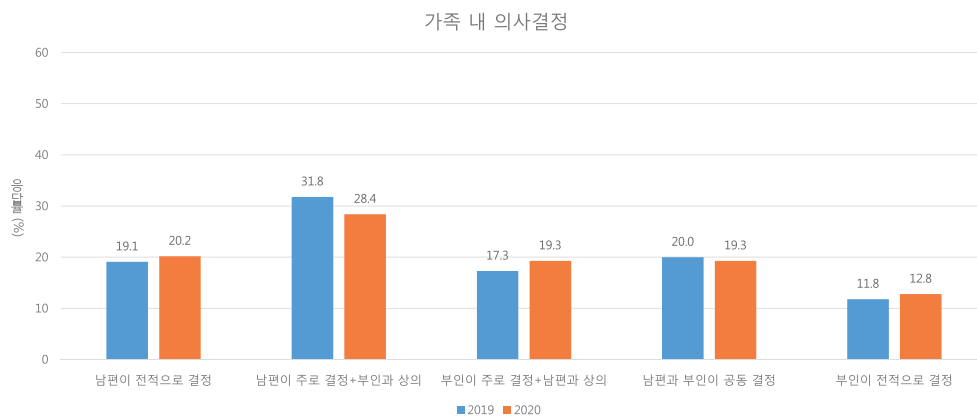
- 남한 물건 사용 경험 응답률 전년대비 하락(59.5%→52.3%), 2018년 응답률 다음으로 두번째로 가장 낮은 응답률
-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 부재,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남한상품 유입 제한적인 상황에서 남한물건 사용 경험률 감소
- 품목별로 보면, 의류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66.7%→52.6%), 남한산 의류 소비 전년대비 감소에 영향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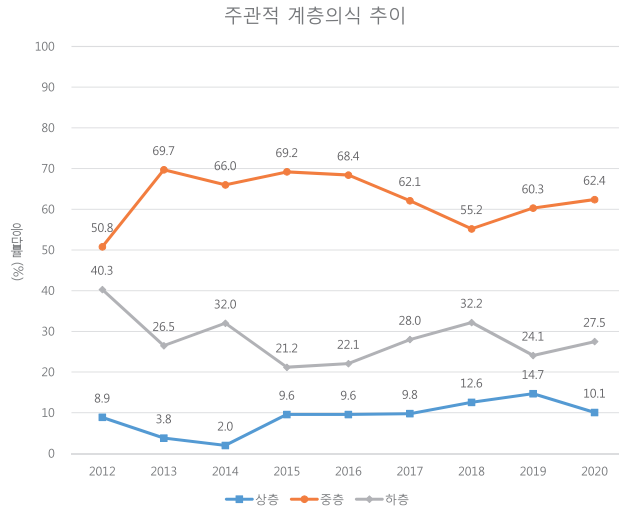
- 2014년 첫 조사 이후 올해 조사에서 사교육 경험 가장 높은 응답률(33.0%)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이어 계속 상승세 유지
- 지난해 조사에 비해 기본 교과목, 외국어, 컴퓨터의 응답률 큰 폭으로 감소, 반면 음악과 체육 응답률은 상승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가족 내 의사결정



- 북한의 가족은 남자 세대주 중심의 강한 가부장제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이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가계의 주요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 내 의사결정에서 영향력 증가
- '남편이 전적으로' 또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편이나, '부인이 주로' 또는 '부인이 전적으로' 응답률도 전년대비 상승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 계층(주관적 계층의식)의 구성과 특징
 - 탈북 직전 시기 기준, 상층 10.1%, 중층 62.4%, 하층 24.3%
 - 전년대비 중층과 하층 비중 증가, 상층은 감소
 - 소득수준이 주관적 계층 의식 형성에 주요하게 영향
 - 교육수준과 직업 변수는 주관적 계층의식 형성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식생활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2020년)			
(단위: %)	상층	중층	하층
거의 매일 섭취	18.2	10.3	6.7
일주일에 한두번 섭취	63.6	55.9	0.0
한달에 한두번 섭취	9.1	32.4	53.3
일년에 한두번 섭취	9.1	1.5	30.0
전체(N, %)	11(100.0)	68(100.0)	30(100.0)

- 계층별 식생활 격차 차이 발생, 주식보다 부식물에서 더 뚜렷한 격차 나타남
- 고기 섭취 '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번' 응답의 경우 상층 81.8%, 중층 66.2%, 하층 6.7%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살림집

계층별 살림집 유형(2020)			
(단위: %)	상층	중층	하층
아파트	36.4	26.5	23.3
연립주택	36.4	42.6	50.0
단독주택	18.2	26.5	16.7
기타	9.1	4.4	10.0
전체(N, %)	11(100.0)	68(100.0)	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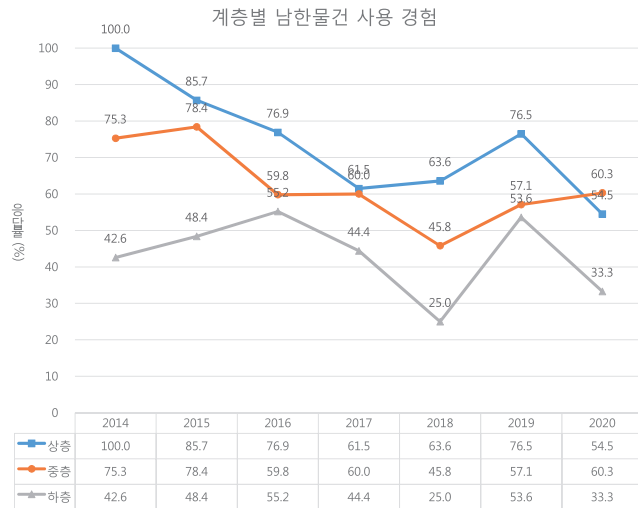
- 아파트의 비중 계층별 격차 뚜렷: 상층>중층>하층
- 하층 응답자 2명중 1명은 연립주택에 거주
- 전년도에 비해 상층과 중층 간의 아파트 비중 격차 증가(2020년 9.9%p, 2019년 2.4%p)
- 아파트 선호도의 증가 및 집값 상승으로 향후 아파트의 계층간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내구재

주관적 계층의식과 내구재 구비 여부(2020)			
	상층	중층	하층
TV	100.0	94.1	80.0
냉장고	36.4	44.1	16.7
전기밥솥	45.4	67.5	46.7
세탁기	27.3	25.0	20.0
CD플레이어	36.4	76.5	40.0
집전화	72.7	69.1	30.0
손전화	63.6	72.1	26.7
컴퓨터	63.6	51.5	23.3
자전거	63.6	70.6	53.3
오토바이	45.5	27.9	10.0
가축	18.2	36.8	40.0
텃밭	45.5	54.4	46.7
전체(N, %)	11(100.0)	68(100.0)	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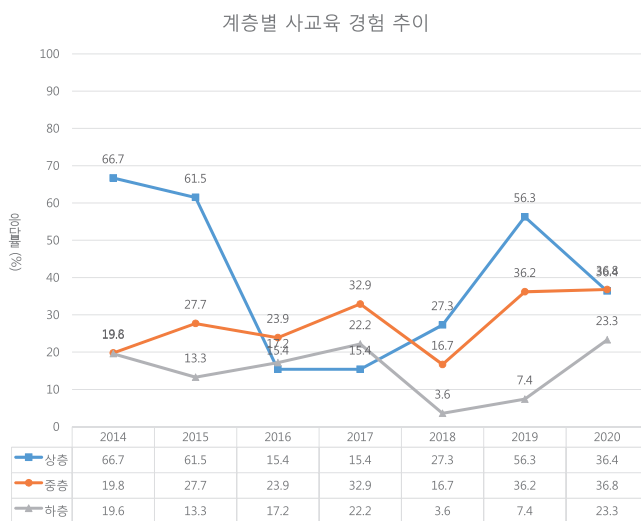
- 국제재산지수(IWI: International Wealth Index)에서는 저가 자산(50달러 이하)에 라디오, 의자, 시계 등을, 고가 자산(250달러 이상)에 세탁기, 컴퓨터, 오토바이, 에어컨 등을 분류
- ※ IWI는 개발도상국 가구의 경제상황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지수
- TV의 경우 계층과 상관없이 보유 응답률이 모두 높아 계층구분 내구재 기능 약함
- 일부 내구재(냉장고, 전기밥솥, CD플레이어, 손전화, 자전거)의 경우 상층보다 중층의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함
- 상층의 경우 집전화, 컴퓨터, 오토바이 보유율이 중층보다 높게 나타남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남한상품



- 남한상품 경험은 상층보다 중층이 더 높게 나타남
- 조사 개시 이래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중층의 응답률이 상층의 응답률을 추월함
- 상층과 하층의 응답률은 전년대비 모두 크게 감소했으나, 중층은 오히려 소폭 상승
- 앞서 계층별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중층의 소비구매력 상승이 눈에 띄는 현상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사교육



- 전년대비 상층의 사교육 경험 응답률이 크게 감소
- 반면, 중층과 하층의 경우는 오히려 전년대비 상승
- 고소득층의 비중 감소로 상층의 사교육 경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8년 이후 상층의 사교육 경험 응답률 추이는 등락폭이 커 불안정한 편인데 반해, 중층과 하층은 꾸준히 증가 추세 유지

6. 시사점과 전망

- 전반적으로 의식주 생활에서 전년대비 약간의 하락을 보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및 경제제재의 장기화 등 대외적 정치경제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식료품 수입 증가 및 시장 곡물가격의 안정 등으로 식생활은 안정적인 추세 유지
- 지난해 조사 분석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올해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고기섭취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농림부가 발표한 '2020-30 국제 식량안보 평가'(International Food Security, 2020-30)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북한인구의 약 59.2%가 식량불안에 처할 것으로 분석. 또한 '코로나 19'(COVID-19) 쇼크에 의해 식량불안 인구가 59.8%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경제제재 장기화,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봉쇄, 수해 등 3중고로인해 2021년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의 식, 의, 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
- 김정은 정권의 경공업 부문 '국산화' 정책 결과 국산(북한산) 의류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6. 시사점과 전망

- 가구(家口) 보유 자산(살림집 내구재)의 경우 저소득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과 달리 저가 내구재보다 고가 내구재 비중이 높은 편.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오토바이 보유율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국가의 전기공급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가운데, 개별 가구의 자체 전력생산체계(주로 태양광 발전) 구축의 확대로 전기제품 보유 및 사용 수준이 꾸준히 증가
- 김정은 정권에서 정보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정보네트워크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
- 특히, 세대 간, 계층간, 도-농간, 공공-민간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정보화가 매우 불평등하고 분절적으로 진행
-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동반 경색되면서 잠시 반등했던 남한상품 소비가 다시 감소
- 계층별 생활 변화 비교 분석 결과, 상층과 하층의 경우 전년대비 생활 전반에서 하락하였으나, 반면 중층의 소비구매력 상승이 눈에 띈

북한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요약)

정은미 (통일연구원)

1. 의식주 실태와 변화

가. 식생활

- 1) '하루 세끼 이상' 식사했다는 응답률 83.5%로 전년대비 4.4%p 감소했으나, 결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돼 비교적 안정적인 식생활 추세 유지
- 2) 한국은행 자료('2019년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결과')에 의하면, 2019년 농림어업 생산량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식사량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 주식으로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68.8%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냉이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함
- 4)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곡물생산량 증가, 쌀값 안정, 식료품 수입 증가, 입쌀 주식 선호도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식생활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5) 북한주민의 영양 상태를 크게 좌우하는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섭취의 경우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률과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는 응답률 모두 전년대비 감소(15.5%→10.1%, 46.6%→44.0%), 2019년 북한 전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6) 주식의 경우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의 응답(남자 75.7%, 여자 65.3%)과 고기 섭취의 경우 '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번 섭취'의 응답(남자 59.4%, 여자 51.3%) 모두에서 남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식생활에서 젠더 격차 뚜렷함

나. 의생활

- 1) 의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한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옷을 사 입었다는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증가(18.1%→26.6%)
- 2) 유통 부문의 다변화로 시장(장마당)의 비중이 3년 연속 감소('18년 90.8%→'19년 88.8%→'20년 86.2%), 반면에 고소득층의 소비시장인 '백화점 또는 외화상점'의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6.9%→11.0%)
- 3) 2016년부터 5년 연속 북한산 의류 구입 비중 증가 추세, 올해 조사에서 북한산 의류의 비중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21.1%), 경공업 부문의 국산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주거생활

- 1) 연립주택(44.0%), 아파트(26.6%), 단독주택(22.9%) 순의 살림집 유형별 분포 패턴 계속 유지
- 2) 북한 주민들의 아파트 선호도 높으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 상승으로 여전히 연립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음
- 3) 살림집 장만 경로의 경우 '내가 돈주고 구입'했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58.6%→74.3%)하여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사적 거래를 통해 살림집 장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주택의 사유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방증하고 있음

2. 내구재 보유 현황

- 1) 살림집 내구재 항목은 유니세프에서 2018년 발표한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2017 MICS)의 항목과 일치함
- 2) 올해 조사에서는 TV(90.8%), 자전거(65.1%), CD플레이어(62.4%), 전기밥솥(59.6%), 집전화(58.7%), 휴대전화(58.7%) 순으로 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 3) USB를 이용한 녹화물 시청이 보편화되면서 CD플레이어의 보유율은 향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81.0%→62.4%)
- 4) 국가의 제한적 전력 공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高)전력의 전자제품 보유율이 높은 편인데, 가구 내 자체 발전체계(태양광 발전 중심) 구축이 보편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탈북자 인터뷰, 지방도시의 경우 인민반의 세대 80% 이상이 태양광판 설치)
- 5) 오토바이 보유율이 24.8%로 높은 편, 일반 주민들의 자동차 소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향후 오토바이 보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운송 및 이동 속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임

3. 정보화 실태와 변화

- 1) 휴대전화의 보유율은 전년대비 감소(62.9%→56.0%), 휴대전화의 용도로는 ‘장사 또는 사업일’의 응답률이 48.4%로 가장 높고, ‘일상적 대화나 소식 주고받기’의 응답률이 33.9%로 두번째로 높음
- 2) 휴대전화 용도로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놀이(게임) 등 오락용’ 응답은 8.1%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표본에 10대 연령집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소 표집된 것으로 결과로 보이며, 10대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휴대전화의 용도로서 오락용 응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3) 올해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송금 경험 응답은 9.7%로 매우 낮게 조사돼 모바일 결제나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금융거래는 아직 미비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3) 일반 주민들의 개인별 컴퓨터 이용 경험은 전년대비 상승(44.0%→49.1%)하였으며, 김정은 정권에서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으로 컴퓨터 이용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 4) 컴퓨터 이용 장소로 ‘공공기관’의 응답률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2.0%→13.5%)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용 컴퓨터(특히, 노트북) 이용률 76.8%로 더 높은 수준임
- 5) 성별 정보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컴퓨터 이용 경험 남자 54.1%, 여자 44.4%)
- 6) 컴퓨터 이용률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보 개방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로 인터넷 이용 경험 응답률이 8.3%에 그침
- 7) ‘2017 DPR Korea MICS’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1.4%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올해 조사에서 나타난 인터넷 이용 경험은 높은 편임
- 8) 전국적 차원에서 국가망(‘광명’)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전당을 거점으로 한 전국의 전자 도서관 및 과학기술보급실의 개설, 원격교육대학 개설, 원격교육법의 제정 등 정보화 정책의 성과를 선전하고 있으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4. 가계 경제와 소비생활

- 1) 월 지출내역 중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45.8%)을 차지하고 있어 저개발국가의 가구 소비 지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2) 전년대비 주거비의 상승이 뚜렷하며, 2015년 조사 이후 올해 조사에서 주거비의 비중이 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 결과는 살림집 거래 활성화 및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3) 남한 물건 사용 경험 응답률이 전년대비 하락(59.5%→52.3%)하여 2018년 응답률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응답률임
- 4)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강한 대북제재가 유지되면서 남한상품 유입의 감소 및 북한당국의 단속 강화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남한 물건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5) 2014년 조사 개시 이래 올해 조사에서 사교육 경험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6) 남자 세대주 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족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가족 내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 증가 추세

5. 계층별 주민 생활 비교

가. 계층의 구성과 특징

- 1) 탈북 직전 기준으로 주관적 계층으로서 상층 10.1%, 중층 62.4%, 하층 24.3%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상층과 하층은 감소했고 중층은 증가함
- 2) 소득수준이 주관적 계층 의식 형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교육수준과 직업 변수는 주관적 계층 의식 형성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계층별 의식주 생활 비교

- 1) 계층 간 식생활 격차가 발생하는데, 주식보다는 부식물에서 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2) 고기 섭취의 경우 '거의 매일+일주일에 한두 번' 응답의 경우 상층 81.8%, 중층 66.2%, 하층 6.7%로 나타남
- 3) 살림집 형태 중에서 아파트의 경우 상층(36.4%)>중층(26.5%)>하층(23.3%)로 나타났으며, 하층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연립주택에 거주함
- 4) 아파트의 비중 변화를 보면, 전년대비 상층의 증가(9.9%P)가 중층의 증가(2.4%P)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의 선호도 증가 및 집값 상승으로 향후 계층 간 아파트의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5) 계층별 내구재의 보유 현황을 보면, TV의 경우 계층과 상관없이 보유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집전화, 컴퓨터, 오토바이 보유율은 상층이 높고, 일부 내구재(냉장고, 전기밥솥, CD플레이어, 자전거 등)의 경우 중층이 상층보다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함
- 6) 남한상품 경험의 경우 2014년 조사 개시 이래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중층의 응답률이 상층의 응답률을 추월하였으며(상층 54.5%, 중층 60.3%), 계층별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중층의 소비구매력 상승이 눈에 띈
- 7) 사교육 경험에서는 전년대비 상층의 사교육 응답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층과 하층은 오히려 전년대비 상승

6. 시사점과 전망

- 1) 전반적으로 의식주 생활에서 전년대비 약간의 하락을 보였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및 경제제재의 장기화 등 대외적 정치경제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음
- 2) 식료품 수입 증가 및 시장 곡물가격의 안정 등으로 식생활은 안정적인 추세 유지함
- 3) 지난해 조사 분석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올해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고기섭취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4) 미국 농림부가 발표한 '2020-30 국제 식량안보 평가'(International Food Security, 2020-30)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북한인구의 약 59.2%가 식량불안에 처할 것으로 분석. 또한 '코로나 19'(COVID-19) 쇼크에 의해 식량불안 인구가 59.8%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5) 경제제재 장기화,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봉쇄, 수해 등 3중고로 인해 2021년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의 식, 의, 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됨
- 6) 김정은 정권의 경공업 부문 '국산화' 정책 결과 국산(북한산) 의류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7) 가구(家口) 보유 자산(살림집 내구재)의 경우 저소득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과 달리 저가 내구재보다 고가 내구재 비중이 높은 편.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오토바이 보유율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8) 국가의 전기공급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가운데, 개별 가구의 자체 전력생산체계(주로 태양광 발전) 구축의 확대로 전기제품 보유 및 사용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9) 김정은 정권에서 정보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정보네트워크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이며, 특히, 세대 간, 계층간, 도-농간, 공공-민간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정보화가 매우 불평등하고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10)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동반 경색되면서 잠시 반등했던 남한상품 소비가 다시 감소하였으며, 계층별 생활 변화 비교 분석 결과 상층과 하층의 경우 전년대비 생활 전반에서 하락하였으나, 중층의 소비구매력 상승이 눈에 띈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1부 | 사회변동

발표 3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이종민

(한국은행)

2020 북한 사회변동조사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

2020. 10. 29

발표자: 이종민 (한국은행)¹

1. 본 자료는 발표자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재직 당시 조사된 것으로, 발표자의 현 소속기관과는 무관함.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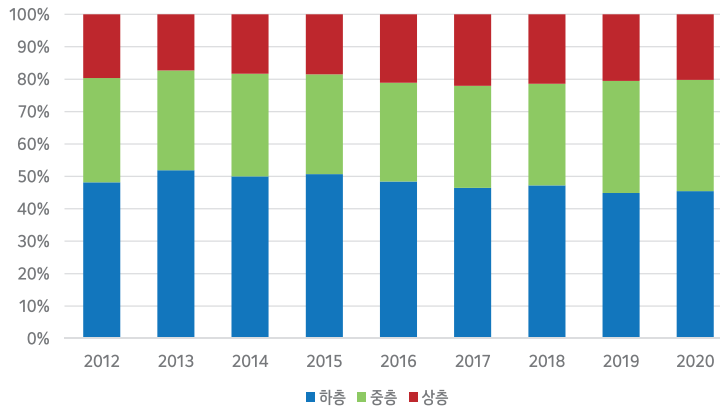
1. 계층 인식, 소득 분화
 - 사회적 계층 인식
 - 주관적 계층 인식
 - 지역 및 직업 간 격차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 공식, 비공식 소득 현황
 - 주요 소득 원천
 - 경제활동의 제반 여건
3. 경제 인식
 -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의견, 경제 체제 선호도
 -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

1. 계층 인식, 소득 분화

◆ 사회적 계층인식

-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북한 사회가 50%의 하층, 30%의 중층, 20%의 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 이는 거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계층인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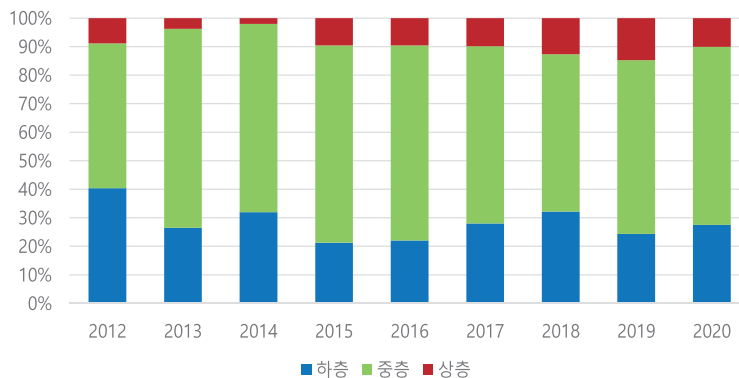
2

1. 계층 인식, 소득 분화

◆ 주관적 계층인식

- 한편 본인의 계층에 대한 질문에서는, 30%의 북한이탈주민이 하층 60%가 중층, 10%가 상층으로 인식함.
 - 올해 조사에서는 작년대비 상층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하층 비율이 증가함.
 - 장기적으로는 하층 비율 감소, 중층 비율 증가 추세.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인식 비율



3

2020 북한사회변동조사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1. 계층 인식, 소득 분화

◆ 주관적 계층인식

- 올해 조사에서 2000년대 초반과 탈북 직전 주관적 계층인식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22%가 계층 상승을, 19%가 계층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할 경우 계층 하락이 18%로 계층 상승(13%) 보다 높음.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 변화 인식

		탈북 직전			
		상승	중층	하층	합계
2000 년대 초반	상승	4명 (3.7%)	11명 (10.3%)	1명 (0.9%)	16명 (15.0%)
	중층	5명 (4.7%)	39명 (36.4%)	8명 (7.5%)	52명 (48.6%)
	하층	2명 (1.9%)	16명 (15.0%)	21명 (19.6%)	39명 (36.4%)
	합계	11명 (10.3%)	66명 (61.7%)	30명 (37.4%)	
		전체 응답자 : 107명			

		탈북 직전			
		상승	중층	하층	합계
2010 년대 초반	상승	8명 (7.4%)	8명 (7.4%)	2명 (1.9%)	18명 (16.7%)
	중층	1명 (0.9%)	48명 (44.4%)	10명 (9.3%)	59명 (54.6%)
	하층	2명 (1.9%)	11명 (10.2%)	18명 (16.7%)	31명 (28.7%)
	합계	11명 (10.2%)	67명 (62.0%)	30명 (37.4%)	
		전체 응답자 : 1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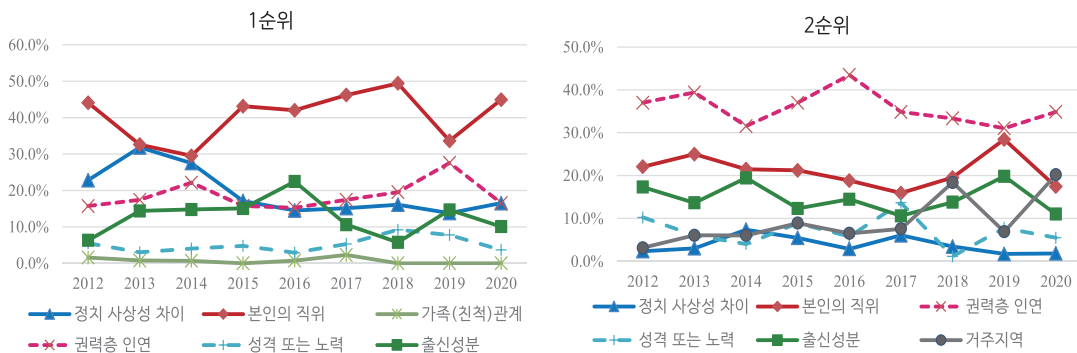
2020 북한사회변동조사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1. 계층 인식, 소득 분화

◆ 계층 분화의 이유

- 북한 내 소득 계층 분화에 있어 사회적 지위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인식되고 있음.
 - 계층 분화 이유에 대한 1순위 질문에서는 본인의 직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45%, 2순위 질문에서는 권력층과의 인연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4.9%로 각각 1위를 차지.
 - 한편 정치 사상성에 대한 응답비율은 1,2순위 모두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



1. 계층 인식, 소득 분화

◆ 지역 격차

- 수도권인 평안남도가 잘 산다는 응답이 꾸준히 40% 내외로 가장 많았음.
- 2위권은 북-중 접경지역인 평북, 함북, 양강도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2018년 조사부터는 함경북도의 응답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제재로 인한 산업적 침체의 효과일 개연성도 있으나, 표본 구성 변화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

북한 거주 당시 잘 사는 지역 응답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위	평안남도 38.4%	평안남도 40.9%	평안남도 31.8%	평안남도 31.2%	평안남도 38.8%	평안남도 37.0%	평안남도 55.2%	평안남도 46.9%	평안남도 43.9%
2위	함경북도 28.6%	함경북도 23.5%	평안북도 21.6%	평안북도 24.1%	평안북도 17.2%	양강도 17.3%	평안북도 13.8%	양강도 18.6%	양강도 19.6%
3위	평안북도 12.5%	양강도 15.2%	함경북도 19.6%	함경북도 18.4%	양강도 17.2%	함경북도 16.5%	양강도 10.3%	평안북도 14.2%	평안북도 16.8%
4위	함경남도 7.1%	자강도 7.6%	양강도 19.6%	양강도 18.4%	함경북도 15.7%	평안북도 14.2%	함경북도 8.0%	함경북도 5.3%	자강도 7.5%
5위	양강도 7.1%	평안북도 6.8%	자강도 4.1%	자강도 2.1%	함경남도 6.0%	자강도 9.4%	함경남도 5.7%	함경남도 5.3%	함경북도 5.6%
6위	자강도 5.4%	함경남도 3.8%	황해남도 2.0%	황해남도 2.1%	자강도 4.5%	함경남도 3.1%	자강도 3.4%	자강도 5.3%	함경남도 4.7%
7위	황해북도 0.9%	황해북도 0.8%	함경남도 1.4%	함경남도 2.1%	황해북도 0.7%	황해남도 2.4%	황해남도 3.4%	황해남도 1.8%	황해북도 0.9%
8위	황해남도 0.0%	황해남도 0.8%	황해북도 0.0%	황해북도 0.7%	황해남도 0.0%	황해북도 0.0%	황해북도 0.0%	황해북도 1.8%	강원도 0.9%
9위	강원도 0.0%	강원도 0.8%	강원도 0.0%	강원도 0.7%	강원도 0.0%	강원도 0.0%	강원도 0.0%	강원도 0.9%	황해남도 0.0%

1. 계층 인식, 소득 분화

◆ 지역 격차

- 어려운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조사 내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크게 감소하여 양강도와 공동 1위.
- ✓ 최근 관광목적 등으로 강원도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 ✓ 한편, 양강도는 어려운 지역 공동 1위, 부유한 지역 2위로 꼽히고 있음, 최근 조사의 표본에 양강도 출신 비중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북한 거주 당시 어려운 지역 응답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위	강원도 40.0%	강원도 43.5%	강원도 35.4%	강원도 29.1%	강원도 47.4%	강원도 38.2%	강원도 41.9%	강원도 41.4%	강원도 24.3%
2위	함경남도 13.0%	자강도 14.5%	자강도 13.9%	황해남도 21.3%	황해남도 14.3%	황해북도 13.0%	양강도 19.8%	양강도 25.9%	양강도 24.3%
3위	황해남도 11.3%	황해남도 13.0%	양강도 11.1%	황해북도 15.6%	자강도 11.3%	황해남도 12.2%	황해남도 14.0%	자강도 12.1%	자강도 15.9%
4위	함경북도 10.4%	함경남도 9.2%	황해남도 10.4%	자강도 14.9%	양강도 6.8%	자강도 12.2%	자강도 7.0%	황해남도 6.9%	황해북도 11.2%
5위	자강도 8.7%	양강도 9.2%	함경남도 10.4%	양강도 8.5%	황해북도 6.0%	양강도 11.5%	황해북도 5.8%	함경북도 5.2%	황해남도 10.3%
6위	양강도 7.0%	황해북도 6.9%	황해북도 10.4%	함경남도 5.7%	함경남도 5.3%	함경남도 6.1%	함경북도 5.8%	함경남도 4.3%	함경남도 3.8%
7위	황해북도 6.1%	함경북도 3.8%	함경북도 6.3%	함경북도 2.8%	함경북도 5.3%	함경북도 4.6%	함경남도 3.5%	황해북도 2.6%	평안남도 2.9%
8위	평안남도 2.6%	평안남도 0.0%	평안남도 1.4%	평안북도 1.4%	평안북도 3.8%	평안북도 1.5%	평안남도 2.3%	평안남도 0.9%	평안북도 2.9%
9위	평안북도 0.9%	평안북도 0.0%	평안북도 0.7%	평안남도 0.7%	평안남도 0.0%	평안남도 0.8%	평안북도 0.0%	평안북도 0.9%	함경북도 1.9%

2020 북한사회변동조사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1. 계층 인식, 소득 분화

◆ 직업 격차

- 직업별 인식에서는 잘사는 직업으로 중앙당 간부, 법기관 간부, 외화별이가 1~3위, 못사는 직업으로는 농장원-기업소노동자-농장관리일꾼 순.
- 이 는 지난 10년 간 조사에서 순위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북한 거주 당시 잘 사는 직업과 못 사는 직업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위	중앙당 간부 77.2%	중앙당 간부 93.2%	중앙당 간부 81.2%	중앙당 간부 87.7%	중앙당 간부 88.4%	중앙당 간부 85.6%	중앙당 간부 85.1%	중앙당 간부 93.1%	중앙당 간부 83.5%
2위	법기관 간부 63.0%	법기관 간부 64.4%	법기관 간부 65.1%	법기관 간부 61.0%	법기관 간부 70.3%	법기관 간부 65.9%	법기관 간부 59.8%	법기관 간부 56.9%	법기관 간부 67.0%
3위	외화별이 18.1%	외화별이 16.7%	외화별이 22.8%	외화별이 19.2%	외화별이 21.0%	외화별이 20.5%	외화별이 21.8%	외화별이 22.4%	외화별이 24.8%
4위	지방당 간부 14.2%	지방당 간부 12.9%	지방당 간부 19.5%	지방당 간부 17.8%	지방당 간부 12.3%	지방당 간부 15.9%	지방당 간부 19.5%	지방당 간부 13.8%	지방당 간부 9.2%
5위	장사 2.4%	장사 3.8%	장사 3.4%	장사 7.5%	장사 5.1%	장사 4.5%	장사 3.4%	장사 7.8%	장사 5.5%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위	농장원 91.3%	농장원 90.2%	농장원 85.2%	농장원 92.5%	농장원 88.4%	농장원 93.2%	농장원 87.4%	농장원 87.1%	농장원 86.2%
2위	기업소 노동자 62.2%	기업소 노동자 59.1%	기업소 노동자 52.3%	기업소 노동자 58.9%	기업소 노동자 57.2%	기업소 노동자 65.9%	기업소 노동자 64.4%	기업소 노동자 60.3%	기업소 노동자 53.2%
3위	군관 11.8%	농장 관리일꾼 15.2%	군관 13.4%	군관 17.8%	군관 17.4%	군관 9.8%	농장 관리일꾼 12.6%	군관 19.8%	농장 관리일꾼 23.9%
4위	농장 관리일꾼 9.4%	군관 12.1%	농장 관리일꾼 13.4%	농장 관리일꾼 13.0%	농장 관리일꾼 13.0%	농장 관리일꾼 9.1%	군관 10.3%	농장 관리일꾼 9.5%	군관 8.3%
5위	전문직 5.5%	전문직 6.8%	전문직 11.4%	전문직 5.5%	전문직 6.5%	전문직 6.1%	전문직 9.2%	인민위 간부 5.2%	장사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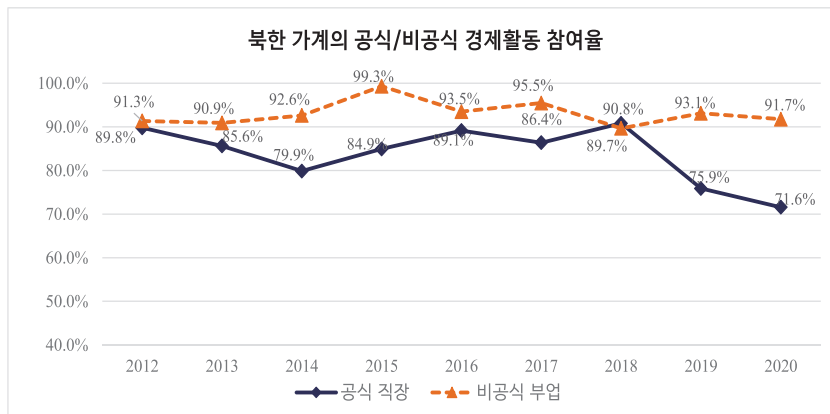
8

2020 북한사회변동조사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 공식,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 올해 조사에서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71.6%,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나타남.
-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작년과 올해 조사에서 크게 감소함. 제재 강화 이후 공식 기업소/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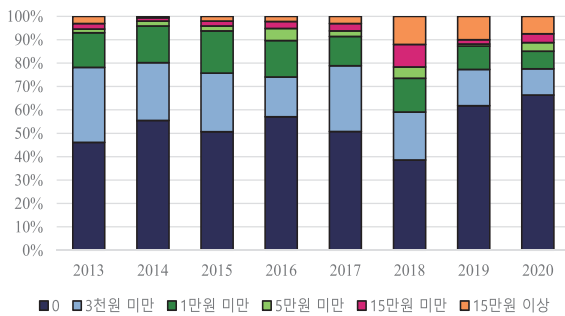
9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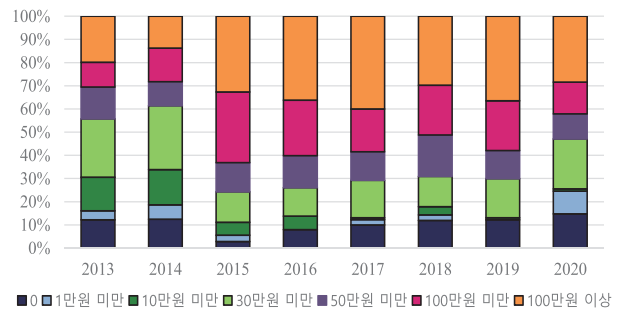
◆ 공식, 비공식 소득 추이

- 올해 조사에서 가계의 공식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역대 최대 66%를 기록함. 비공식 소득 구간 역시 평균적으로 작년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를 제외하면, 북한 가계의 70~80%는 공식소득이 3000원 미만.
 - 비공식 소득은 2015년 이후 월 50만원 이상 소득 가계가 50% 이상을 유지하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40% 수준으로 감소함.

북한 가계의 공식 소득 분포 추이



북한 가계의 비공식 소득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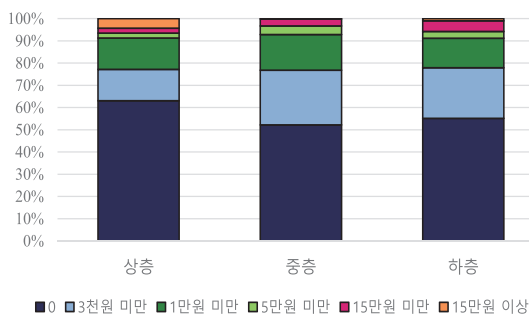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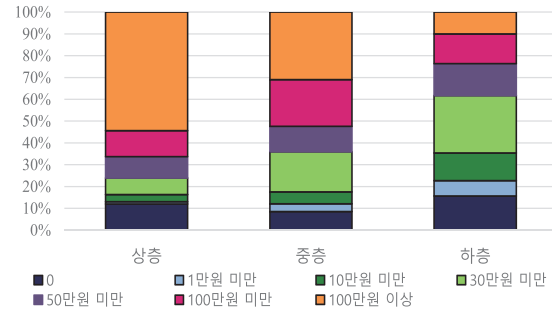
◆ 계층별 공식/비공식 소득

- 예상대로, 북한 가계의 계층 분화는 대부분 비공식 소득에 의해 나타남.
 - 공식 소득분포는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비공식 소득은 계층 간 차이가 두드러짐.
 - 100만원 이상 소득 가계 비율이 상층 55%, 중층 30%, 하층 10%로 조사됨.

북한 가계의 계층별 공식 소득 분포



북한 가계의 계층별 비공식 소득 분포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 주 소득 업종

- 작년에 이어 소매장사(19.3%), 도매장사(10.1%)가 주 소득 업종이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 ✓ 한편, 2018년 이후 외화벌이, 밀수 등 대외무역 관련 돈벌이 비중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 소득 업종 응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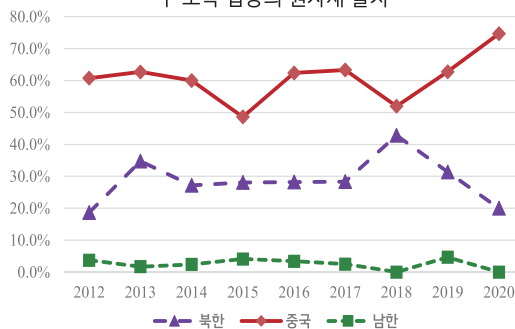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위	소매장사	31.5%	소매장사	24.0%	되거리장사	22.3%	밀수	16.7%	삿벌이	19.0%	소매장사	19.0%	소매장사	19.3%
2위	되거리장사	15.7%	외화벌이	13.7%	소매장사	21.5%	소매장사	14.2%	소매장사	11.4%	되거리장사	18.1%	되거리장사	10.1%
3위	삿벌이	7.9%	되거리장사	11.6%	밀수	13.2%	되거리장사	11.7%	밀수	8.9%	외화벌이	11.2%	외화벌이	10.1%
4위	외화벌이	6.3%	밀수	7.5%	외화벌이	8.3%	외화벌이	10.8%	외화벌이	8.9%	삿벌이	4.3%	밀수	9.2%
5위	개인 서비스업	5.5%	돈장사	6.8%	삿벌이	6.6%	삿벌이	7.5%	되거리장사	7.6%	돈장사	4.3%	삿벌이	5.5%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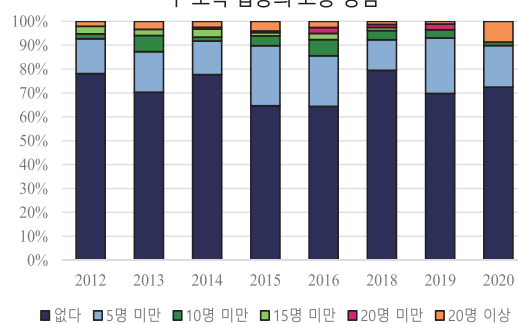
◆ 주 소득 업종 : 원자재 출처 및 고용

- 원자재 출처는 중국 75%, 북한 20% 순으로 나타남.
- ✓ 기존 조사에서 중국산과 북한산은 대체로 60%:30% 비율을 유지하였는데, 올해 조사에서 중국산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 북한산 비중은 하락.
- 고용이 없었다는 응답이 72%로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 한편 20명 이상 대규모 고용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9%로 예년대비 높은 수준.

주 소득 업종의 원자재 출처



주 소득 업종의 고용 경험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 경제 활동의 여건 : 사업 애로사항

- 사업밀천마련 (52.4%), 법기관의 단속이나 뇌물 (46.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올해 조사에서 단속, 뇌물의 응답 비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사업 밀천 마련이 1위를 차지.
- ✓ 원자재 및 상품 확보의 응답률도 작년대비 매우 큰 폭(22%p)으로 상승. 전반적으로 분 문항에서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주 소득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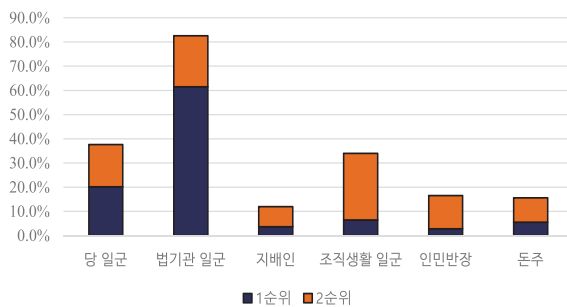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위	단속, 뇌물 53.3%	단속, 뇌물 58.5%	단속, 뇌물 56.0%	단속, 뇌물 62.3%	단속, 뇌물 68.5%	단속, 뇌물 69.2%	단속, 뇌물 57.7%	단속, 뇌물 67.4%	사업밀천 마련 52.4%
2위	사업밀천 마련 45.8%	사업밀천 마련 53.4%	사업밀천 마련 36.8%	사업밀천 마련 30.8%	사업밀천 마련 44.8%	사업밀천 마련 34.2%	사업밀천 마련 39.7%	사업밀천 마련 49.4%	단속, 뇌물 46.4%
3위	원자재, 상품 확보 22.4%	도로, 철도 사정 26.3%	전기 사정 22.4%	원자재, 상품 확보 20.5%	원자재, 상품 확보 20.9%	전기 사정 25.0%	전기 사정 26.9%	수원부족 15.7%	원자재, 상품 확보 35.7%
4위	도로, 철도 사정 13.1%	원자재, 상품 확보 20.3%	도로, 철도 사정 21.6%	도로, 철도 사정 19.2%	도로, 철도 사정 16.8%	원자재, 상품 확보 23.3%	원자재, 상품 확보 23.1%	동종업계 경쟁 15.7%	수원부족 23.8%
5위	전기 사정 13.1%	전기 사정 18.6%	원자재, 상품 확보 19.2%	전기 사정 15.1%	전기 사정 15.0%	도로, 철도 사정 10.8%	도로, 철도 사정 20.5%	전기 사정 14.6%	전기 사정 11.9%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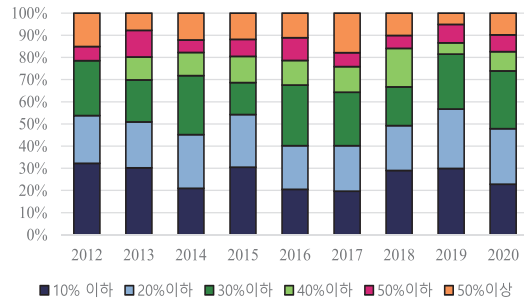
◆ 경제 활동의 여건 : 뇌물

- 올해 처음 실시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설문에서 법기관 일군이 1,2순위 합계 80%로 압도적 1위.
- ✓ 이는 비공식 경제활동 영위 시 뇌물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북한 가계의 소득 대비 뇌물 지출의 비중은 중간값 기준 꾸준히 20%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올해는 작년대비 약간 증가한 모습.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북한 가계의 소득 대비 뇌물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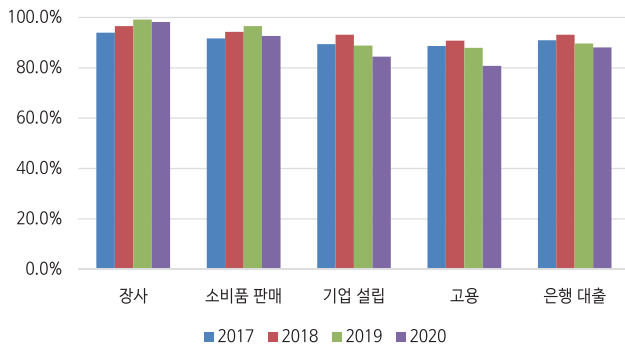


3. 경제 인식

◆ 경제 활동 자유에 대한 의견

-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경제 활동의 자유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나타냄.
 - 조사 이래 5가지 경제 활동 자유에 대한 설문에서 찬성 비율이 모두 80% 이상. 올해 조사에서는 약간 감소.
 - 5가지 문항 모두에 대해 '매우 찬성'으로 응답한 피설문자가 절반 이상.

분야별 경제활동 자유에 대한 찬성 비율



경제활동 자유 선호 점수¹ 추이

	2017	2018	2019	2020
평균	18.3	18.5	18.4	17.7
중간값	20.0	19.0	2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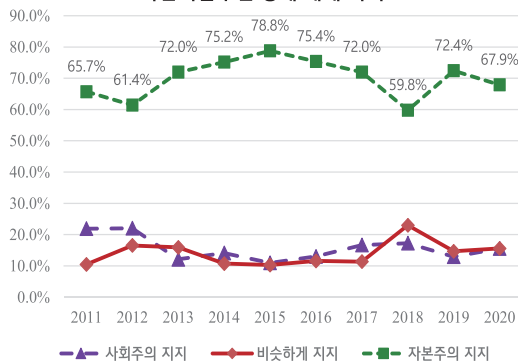
1. 경제활동 자유에 대한 찬성 정도를 5가지 질문에서 각각 4점 척도로 환산하여 모두 합산한 값, 20점 만점.

3. 경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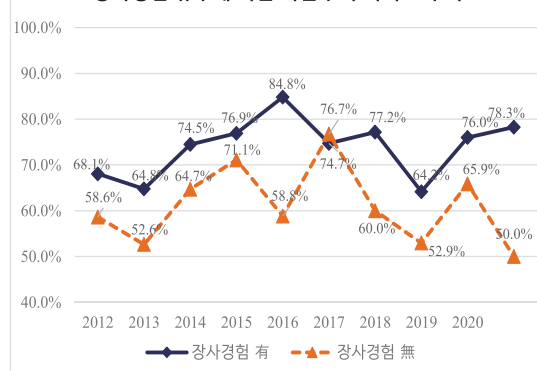
◆ 경제 체제 선호도

- 경제 체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대략 70% 정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더 지지한다고 밝힘.
 - 올해 조사에서는 자본주의 선호도가 67.9%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
 - 한편 북한에서 장사활동 경험을 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지지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올해는 두 집단간 격차가 더욱 확대.

북한이탈주민 경제 체제 지지도



장사경험 유무에 따른 자본주의 지지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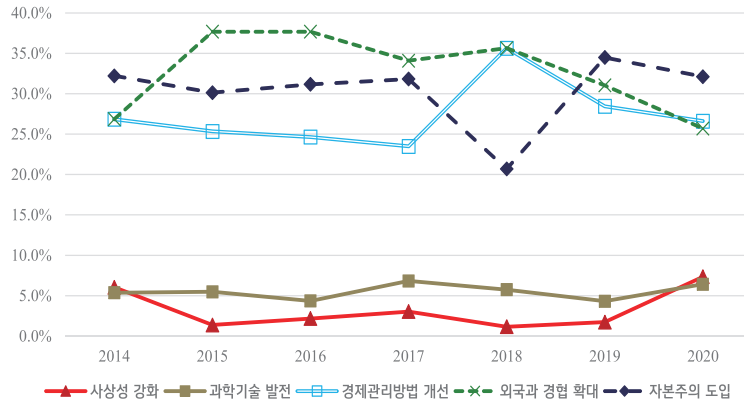


3. 경제 인식

◆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

-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1순위 조건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도입, 경제관리방법 개선 등 개혁이나 외국과의 경험 확대 등 개방 정책을 꼽고 있음.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 1순위 응답 추이



3. 경제 인식

◆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
 - ✓ 최고지도자 때문이라는 의견은 2018년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 2018 정상회담 및 이후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미진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됨.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응답 순위

	2013		2014		2015		2016	
1위	최고지도자 때문	23.5%	최고지도자 때문	28.9%	개혁개방 X	26.0%	과도한 군사비 지출	34.8%
2위	개혁개방 X	22.0%	과도한 군사비 지출	24.2%	과도한 군사비 지출	25.3%	최고지도자 때문	21.0%
3위	과도한 군사비 지출	21.2%	개혁개방 X	18.1%	최고지도자 때문	19.2%	개혁개방 X	20.3%
4위	국가 정책 실패	14.4%	미국의 경제 제재	8.1%	국가 정책 실패	14.4%	국가 정책 실패	7.2%
5위	미국의 경제 제재	6.1%	국가 정책 실패	7.4%	간부들의 관료주의	5.5%	미국의 경제 제재	7.2%
	2017		2018		2019		2020	
1위	과도한 군사비 지출	26.5%	과도한 군사비 지출	34.5%	과도한 군사비 지출	31.0%	과도한 군사비 지출	24.8%
2위	최고지도자 때문	22.7%	개혁개방 X	19.5%	개혁개방 X	21.6%	개혁개방 X	23.9%
3위	개혁개방 X	19.7%	최고지도자 때문	9.2%	최고지도자 때문	13.8%	최고지도자 때문	16.5%
4위	국가 정책 실패	11.4%	미국의 경제 제재	9.2%	미국의 경제 제재	7.8%	미국의 경제 제재	11.9%
5위	미국의 경제 제재	6.8%	간부들의 관료주의	9.2%	국가 정책 실패	6.9%	국가 정책 실패	8.3%

4. 소결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전반적으로 지난 3년간 누적된 경제 제재의 효과가 이번 설문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평가됨.
 - ✓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가계의 비율이 대폭 하락, 공식 월급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66%를 기록하는 등 주로 공식부문에 나타난 영향이 두드러짐.
 - ✓ 비공식 부문에서도 평균 소득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사업 수행 시 주요 애로사항이 단속, 뇌물에서 원자재, 상품확보로 변화하는 등 효과가 나타남.
- 북한 내 소득 계층 분화는 대부분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나타나며, 계층을 결정하는데 사회적 지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
 - ✓ 본인의 직위 또는 권력층과의 인연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꾸준히 1-2위.
 - ✓ 생활수준이 높은 직업은 당 또는 법기관 간부, 낮은 직업은 농장원, 기업소 노동자
 - ✓ 한편,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는 중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계층 상승,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계층 하락 응답이 많음.

20

4. 소결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경제 체제/제도 개혁 등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 ✓ 거래, 생산, 금융 등 모든 조사 부문에서 경제적 자유 보장에 적극적 찬성 의견.
 - ✓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지지. 이는 비공식 시장활동 경험과 관련.
 - ✓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개혁 및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
- 올해 제재-코로나-자연재해로 이어지는 3중고 속에 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및 소비생활도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정면돌파전, 80일 전투 등 정권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의 운영난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시장화'된 주민 의식이 북한 정권의 행동에 있어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한편, 앞으로 북한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

21

감사합니다

2020 북한사회변동조사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인식 (요약) -

이종민 (한국은행)¹⁾

1. 계층 인식과 소득 분화

가) 계층 인식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북한 사회가 50%의 하층, 30%의 중층, 20%의 상층으로 구성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북한사회변동 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서도 하층 45.4%, 중층 34.4%, 상층 20.2%로 유사한 추세를 이어갔다.

한편, 탈북 직전 본인의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는 27.5%가 하층, 62.4%가 중층, 10.1%가 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작년 대비 상층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고, 하층, 중층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하층, 상층 비율이 낮아지고 중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인다. 탈북 직전의 계층 인식을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보면 22%가 계층 상승을, 19%가 계층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할 경우, 계층 하락이 18%로 계층 상승 13%보다 높았다.

나) 소득 계층 분화

① 계층 분화의 이유

계층 분화 이유 1순위 질문에서는 본인의 직위가 45%, 권력층과의 인연이 16.5%로 1,2위를 기록하였다. 2순위 질문에서도 두 항목은 각각 17.4%와 34.9%를 기록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 소득 계층 분화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사회적 지위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정치 사상성,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② 지역 차이

수도권인 평안남도가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43.9%, 1위로 나타났다. 평안남도는 조사 이래 40% 내외의 응답율로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권은 북-중 접경지역인 평안북도, 함경북도, 양강도가 비슷한 비율을 보여왔는데, 2018년 조사부터는 함경북도의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양강도가 19.6%로 2위, 평안북도가 16.8%로 3위, 함경북도는 5.6%로 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재로 인한 산업적 부침의 효과일 수도 있으나, 표본의 출신 지역 구성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조사 내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크게 감소하여 양강도와 공동 1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정책적으로 관광목적 등의 강원도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설문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양강도는 어려운 지역 공동 1위, 부유한 지역 2위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조사의 표본에 양강도 출신 비중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본문의 내용은 발표자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재직 당시 조사된 것으로, 발표자의 현 소속기관과는 무관함.

③ 직업 차이

생활수준이 높은 직업은 중앙당 간부, 법기관 간부, 외화벌이가 1~3위로 조사되었으며, 생활수준이 낮은 직업은 농장원-기업소 노동자-농장관리일꾼 순으로 나타났다. 본 문항에서는 지난 10년 간 순위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가) 경제활동 참여율과 소득 추이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가구원 중 1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은 71.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 90.8%를 나타낸 뒤, 2019년 75.9%, 2020년 71.6%로 2년 연속 크게 하락한 것이다. 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재가 강화된 이후 공식 기업소의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소득 분포 조사에서도 공식 직장에서의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 조사를 제외하면, 북한 가계는 대부분 월 3000원 미만의 공식 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가계 소득의 대부분을 비공식 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비공식 소득의 분포 역시 작년에 비해 약간 하방 이동하였다.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계가 53%에서 39%로 감소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소득 가계도 34%에서 27%로 감소하였다.

나) 주 소득 업종

재북 당시 가장 높은 소득을 거둔 업종은 소매장사(19.3%)와 되거리장사(10.1%), 외화벌이(1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화벌이, 밀수 등 대외무역 관련 돈벌이는 2015~2017년 조사에서 비중이 높아졌다가 2018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돈벌이를 위해 구입한 원자재는 중국산인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다. 기존 조사에서 중국산과 북한산은 대체로 60%:30% 비율을 유지하였는데, 올해 조사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북한산의 비중은 하락하였다.

다) 경제활동의 제반 여건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 이래 '법기관의 단속과 뇌물 고이는 일'이 가장 많이 선택되어왔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사업 밀천 마련'이 52.4%, 1위를 기록하였다. '원자재 및 상품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도 작년대비 22%p나 상승하였다. 본 문항에서도 제재의 효과가 반영되어 물자 수급에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설문에서 법기관 일군이 1,2순위 합계 80%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수반되는 뇌물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가계의 소득 대비 뇌물 지출의 비중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꾸준히 20%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약간 증가하였다.

3.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가) 경제 활동 자유에 대한 찬반 의견

2017년부터 본 조사에서는 '장사의 자유', '생산 및 판매의 자유', '기업 설립의 자유', '고용의 자유', '금융 거래의 자유'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5가지 문항 모두에 대해 '매우 찬성'으로 응답한 피설문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경제 체제 선호도

재북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어느 쪽을 지지하였느냐는 질문에 67.9%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를 더 지지하였다고 답한 반면, 사회주의를 더 지지하였다는 응답자는 15.6%에 그쳤다. 한편, 북한에서 장사활동 경험을 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장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본주의 지지도는 장사 경험이 있는 경우 78.3%, 없는 경우 50.0%로 그 차이가 28.3%p에 달한다.

다)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1순위 조건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과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6.6%, 25.7%로 뒤를 이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북한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 제도적 개혁 또는 개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등이 꾸준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고지도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의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미진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1부 | 사회변동

발표 4

북한 보건의료

박상민 (서울대)

이혜원 (연세대)

북한사회변동조사 : 보건의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혜원

북한의 시장경제 및 비공식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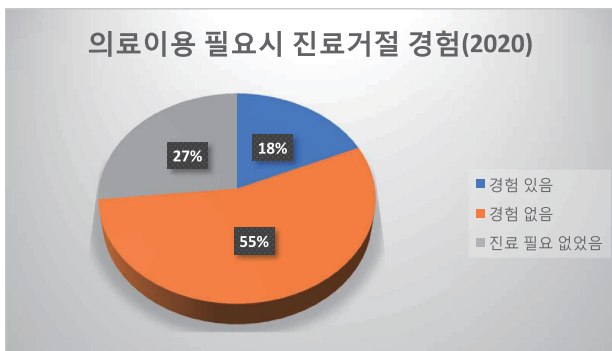
-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7년 -6.5% 기록 이후 20년만에 최저치
- WFP, FAO등 국제사회 기준에서 절대적 식량공급 부족
 - 식량안보 식량소비지수, 2013년 대비 열악한 단계의 비율 34% > 46%(2019)로 증가
 - 경계선 인구 포함시 92% 주민 식량 부족
 - 식량 수입, 원조 규모 2016년 대비 2.7배 증가, 9.3만톤 > 25만톤(2019)
- 식량가격 및 환율(식량부족 지표)은 2013년 이후 유사수치 유지 중
 - 쌀가격 : 1kg당 8천원(2020), 2013년 유사
 - 환율 : 1달러에 8천원(2020), 2013년 유사
 - **코로나19 상황(2020)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중**
- 김정은 시대이후, 최근 10년간 시장화 진전에 따른 대형상점, 마트, 유희시설 증가, 주민의 구매력 향상, 의식주 수준 향상, 식생활의 다양화
 - 2003년 '종합시장' 정책, 2018년 전국 500개 전후 종합시장 존재,
 - 평양 및 주요도시에 그 이상의 경제규모를 갖는 마트, 상점, 주유소, 세차장 존재
 - 금융환경 개선, 상업은행의 정착과 카드사용 증가(나래카드, 고려카드)
 - 2000년 중반 중국산이 80-90%였던 물품이 현재 북한 국산품 비중 증가
 - 북한의 새로운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체계 구축
 -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른 공장기업소의 자율성확대, 기업과 농장 등 하부 생산단위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
 - **북한의 내수형성, 시장수요에 맞는 경공업 제품 생산 및 공장가동, 공장가동률 증가**
 - **중앙에서 지방, 하부지역단위의 책임과 권한강화, 자율권 확대**

북한의 의료의 시장화

1.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및 비공식경제 규모 증가
2. 시장수요에 따른 공장의 가동과 제품생산
3. 지방과 하부생산단위의 책임 및 권한강화
4. 중앙의 통제 및 공급역할 축소
5. 경제적 요인에 따른 사회보장 접근성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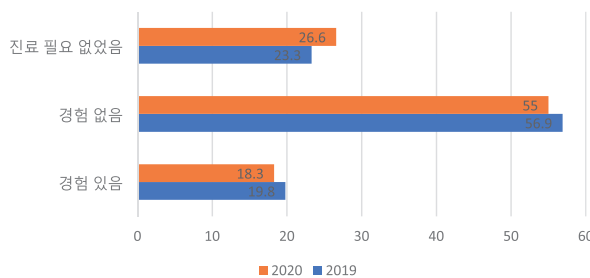
- 의료영역의 시장화 및 비공식시장 규모 증가 가능성
- **시장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공장 가동과 제품생산 가능성 증가**
- 지방 및 개인의 건강에 대한 책임 및 권한 강화
-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감염병 등 방역체계 약화 가능성
- **의료수요가 적은 질환, 시설, 기본 인프라의 개선에 한계**

의료접근성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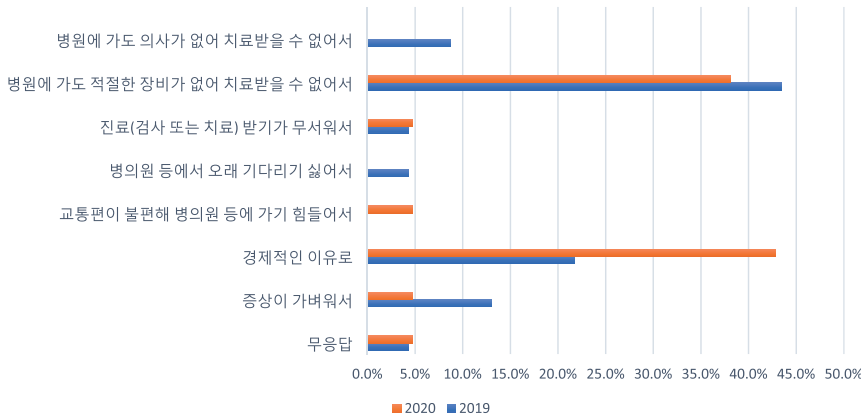


- 의료이용의 수요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2019, 2020년 유사하게 18-19%
 - 5명 중 1명은 의료접근성 장애로 인한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

- 의료접근성 장애요인
 1. 환자요인(경제적 어려움)
 2. 병원요인(장비,약품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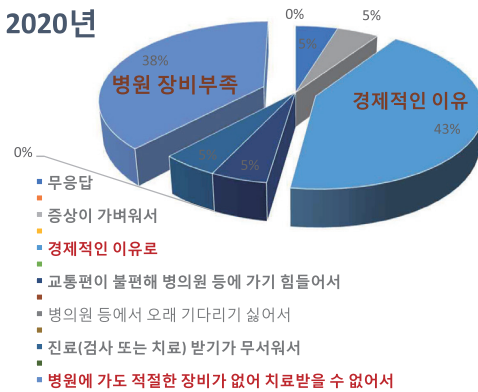
의료이용 필요시 진료거절 사유(2020)



• 의료접근성 장애요인의 변화

1. 병원요인(장비,약품 부족) > 2019년 주요요인
 - 43.5%, 23중 10명 (2019년)
2. 환자요인(경제적 어려움) > 2020년 주요요인
 - 42.9%, 21중 9명 (2020년)

2020년



의료기관별 실태

•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2018)

- 리 인민병원 이용 14.9%
- 시,군(구역) 인민병원 이용 9.2%
- 도 인민병원 이용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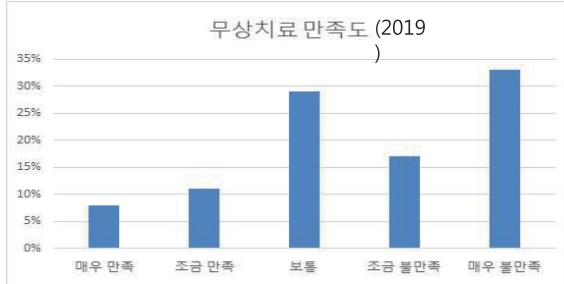
• 병원별 의료진, 의약품, 의료기기 부족 여부 질문(2018, 2019)

- 병원 상관없이 '의료진, 의약품, 의료기기 충분'의 답변은 감소
- 리 인민병원에 '의료진, 의약품, 의료기기 충분'의 답변은 2019년 0명(0%)
- 도 인민병원의 물품 및 인력 상황이 리 또는 시,군(구역) 인민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좋음

구분	리인민병원이나 진료소		시군(구역)인민병원		도 혹은 중앙병원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	1 1.1%	0 0%	5 5.7%	3 2%	5 5.7%	5 4%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2 2.3%	6 5%	3 3.4%	13 11%	4 4.6%	12 10%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11 12.6%	10 8%	17 19.5%	16 13%	10 11.5%	11 9%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28 32.2%	33 28%	30 34.5%	28 24%	9 10.3%	16 13%
이용한 경험이 없다	43 49.4%	64 55%	32 36.8%	52 45%	56 64.4%	68 59% (단위: 명)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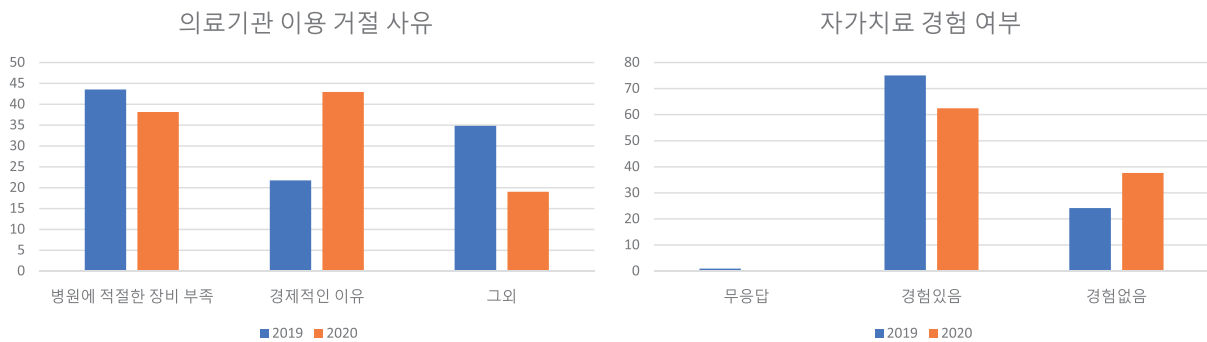
-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답변 가장 많음 33% (2019)
- 부정적 의견('조금 불만족','매우 불만족') 50%, 긍정적 의견('매우 만족','조금 만족') 19% (2019)
- 긍정적 의견의 증가는 일부 있음 12.3%(2017) > 19%(2019)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2017년	8 (6.1)	8 (6.1)	40 (30.5)	15 (11.5)	60 (45.8)	131 (100.0)
2018년	4 (4.6)	10 (11.5)	20 (23.0)	18 (20.7)	35 (40.2)	87 (100.0)
2019년	10 (8)	13 (11)	34 (29)	20 (17)	38 (33)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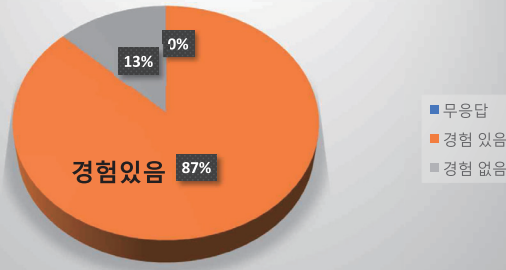
의료접근성 및 의료기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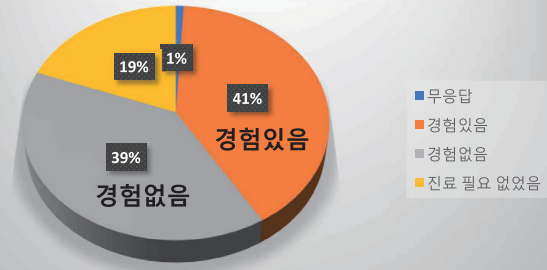
- 병원요인, 환자요인 공존
 - 환자요인으로 인한 접근성 장애 비율 증가 가능성
- 자가치료 경험 감소 = 의료기관 방문 후 치료 비율 증가 가능성
 - 자가치료 경험을 116명 중 87명 경험: 75% (2019년)
 - 자가치료 경험을 109명 중 68명 경험: 62.4% (2020년)

비공식 의료시장의 규모와 환자 의료비 부담

장마당, 개인약국 이용경험 여부(2020)



의료기관 이용시 뒷돈 준 경험(2020)



- 비공식의료시장규모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 2011년 70% 장마당 이용 경험
 - 2019, 2020년 90% 장마당 이용 경험
- 비공식 환자진료비 지불 경험
 - 뒷돈 지불 경험 있음 45.7% (2019년)
 - 뒷돈 지불 경험 있음 41% (2020년)

(기존 연구 + 2019년 조사 결과)

북한 장마당, 개인 약국과 의약품 거래

Experience of purchasing medicines at an unofficial health market in the DPRK

Organization

비공식 의료시장

Unofficial Health Market

Regulation

Behavior

HEALTH SYSTEM

"Essential medicines supported by UN agencies also had been traded at a market. Those medicines could be found earlier at a market than in a hospital. You can see any pill at a market, even there was few in hospital."

"UN에서 온 의약품은 시장에서 팔려요.. 시장에 서는 약이 많은데, 병원에는 별로 없어요."

장마당 약구입 여부 (2011)

Experience of purchasing medication in informal market

장마당-개인약국 약구입 여부 (2019)

장마당 사용 이유

Reason for purchasing medication in informal market

이유	2011 (%)	2019 (%)
병원에 약이 없어서	71.1	57.5
의사가 장마당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25.9	18.6
장마당 약이 병원 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믿어서	11.9	15.9

출처: 2019년 통일평화연구원 학술대회, 박상민 교수님 발표자료

(기존 연구 + 2019년 조사 결과)

비공식 환자부담금 + 개인진료

Emergence of **unofficial payment** and **unauthorized private dual practice**

"Medical service is not free anymore in North Korea. Doctors have to rob the pocket of patients for a living."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뇌물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Doctors had sold a medical documentation for sick leave which was needed for North Korean people to have enough time to engage their private work."

"주로 진단서 때는 사람들이 (진료소에) 오거든요. 진단서만 때 주고 침 맞고 이런 거는 저녁에 집에 오라고 그런다고.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안오거든요."

〈표 3-3-2〉 치료행위의 시장가격화 (2013년 당시)

지표	가격(북한: 원)	달러(\$)
진단서(3일분)	1,500-3,000	0.5-0.8
사회보장수속	60,000(북한)-600,000(미국)	17-200
총수업	50,000-100,000	15-30
제왕절개수술	55,000-120,000	16-32
정상해산	40,000-50,000	13-15
초음파 촬영	1,500-3,000(담배 한 갑 상당)	0.5-0.8
X-ray	1,500-3,000	0.5-0.8
소파술, 중기중절술	6,000-8,000	1.5-3.0
위절제술	550,000-120,000	1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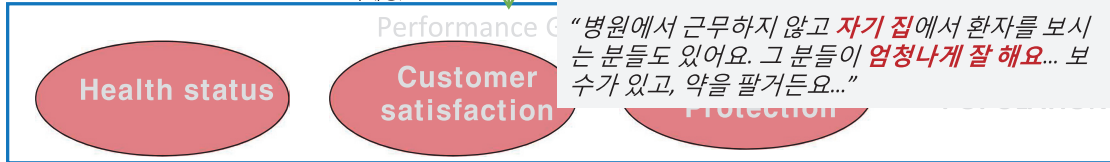
이혜경, 2014

Performance Quality

"As there was no compensation in public hospital, doctors had no incentive to do their best to take care of patients in hospital. But when patients visited doctor's home and paid bribes, doctors provided good quality services."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로임도 주지 않는데 앉아 있는 의사들이 봐주니, 아무래도 성의가 없죠. 그렇지만 (환자가 원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의사는 다르죠. 여기 같이 행위당 수가제잖아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이 엄청나게 잘 해요... 보수가 있고, 약을 팔거든요..."



출처: 2019년 통일평화연구원 학술대회, 박상민 교수님 발표자료

북한의 비공식 의료시장과 제도적 변화의 영향

1. 의료접근성의 장애요인 중 환자요인 증가 가능성
 - 경제적 격차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격차 증가
 - 건강에 대한 책임은 지방 및 환자개인에게 전환
2. 의약품의 다양화, 시장화 정착
 - 의약품의 국산화 노력과 품질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
 - 수요가 적은 영역의 해외의존도 지속, 증가
3. 지방 및 개인의 책임 강화로 인한 방역통제 약화
 - 감염성질환의 통제, 관리 역량 약화 가능성

북한 보건의료

이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 북한의 시장경제 및 비공식경제

-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7년 -6.5% 이후 현재 20년만에 최저치
- 식량안보 식량소비지수의 악화 34%(2013) > 46%(2019)
- 식량수입 및 원조 규모 증가 9.3만톤(2016) > 25만톤(2019)

가. 경제 및 식량안보 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식량가격 및 환율의 안정화

- 식량부족 지표에 해당하는 식량가격과 환율은 2013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 중
- 쌀가격 : 1kg당 8천원(2020), 2013년과 유사수준 유지
- 환율 : 1달러에 8천원(2020), 2013년과 유사수준 유지

나. 최근 10년간 시장화의 진전과 내수 형성

- 2003년 '종합시장' 정책이후 2018년까지 전국 500개 이상의 종합시장 형성
- 상업은행의 정착과 카드사용 시스템 구축 등의 금융환경 형성
-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북한 국내상 제품 생산과 공장 가동
- 2014년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실시와 함께,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기업과 농장 등 하부 생산단위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

다. 공식적인 경제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경제의 규모증가 및 체계화

- 북한의 신흥자본가 '돈주'의 자본규모 및 역할의 강화
- 사적 고용형태 또는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종류 및 규모 증가
- 정부의 규제 및 통제 범위 밖의 영역의 지속적 증가

2. 북한의료의 시장화

- 의료영역에서 시장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공장가동에 따른 제약사업 활성화, 원재료 수입수요 증가 가능성
- 의료의 시장화 및 비공식의료 규모 증가로 인한 개인 의료비 증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감소 경향 뚜렷
- 의료수요의 규모가 작은 질환군, 구매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감소, 해당영역의 해외 의존도 지속, 강화
- 감염병 등 중앙정부의 통제 및 관리가 중요한 질병영역의 관리체계 악화 가능성

3. 의료접근성 장애 중 병원요인과 환자요인

- 의료이용의 수요가 있음에도 의료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8-19% (2019,2020)
-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이유로 장비 및 약품 부족(2019년 1순위)과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2020년 1순위)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비중
- 의료기관별 의약품 및 장비의 부족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했던 환자들의 답변에서 40-50%를 차지하였고, 리인민병원, 시군구역 인민병원, 도 인민병원 중 도 인민병원의 의약품 부족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 중 리 인민병원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나 의료진, 의료물품, 기기가 충분했다에 0%(2019년)가 나올 정도로 상황은 가장 열악한 병원에 속함
- 북한의 무상치료(현재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의견(2019년 50%)이 긍정적 의견(2019년 19%)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매우 불만족 한다는 답변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많았음

4. 비공식 의료시장과 그 영향

- 신체증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 자가치료만 한 경험이 있는 자는 2019년 75%, 2020년 62.4%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병원의 물품, 의약품 부족요인과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약품구매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추측됨. 그러나 자가치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 이후 감소 경향성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확인과 의료기관의 신뢰도 증가여부에 대한 확인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장마당 및 약국의 이용경험은 2011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2020년 모두 거의 90%에 도달하였음. 이는 의료 시장의 활성화 및 환자개인의 의료비 증가 모두를 의미.
- 의료기관 이용 시 뒷돈 경험이 41%(2020년)로 경험없음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으며, 환자개인의 의료비 증가를 재차 입증하는 자료임
- 치료행위별 시장가격도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2013년)

소결

- 의료접근성 장애요인 중 환자요인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큼 : 경제적 격차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격차증가, 건강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
- 의약품 생산 및 구매 시장의 정착과 북한 국내산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 : 이후 보건의료협력 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
- 지방 및 개인의 건강에 대한 책임강화가 감염성질환 등 방역통제체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 감염병 통제 어려움 여부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이 필요할 것임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1부 | 사회변동

발표 5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김유연, 최은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사회변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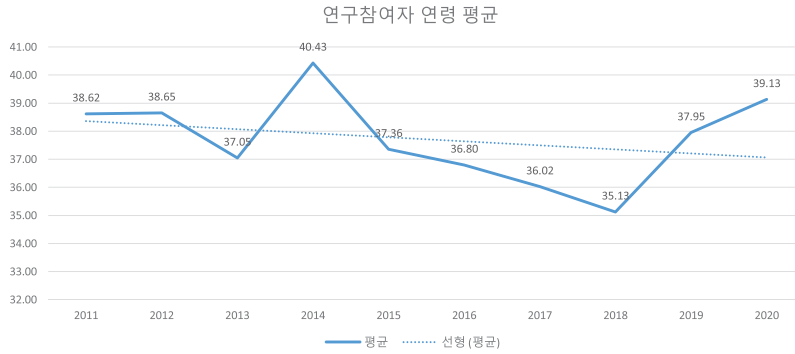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김유연, 최은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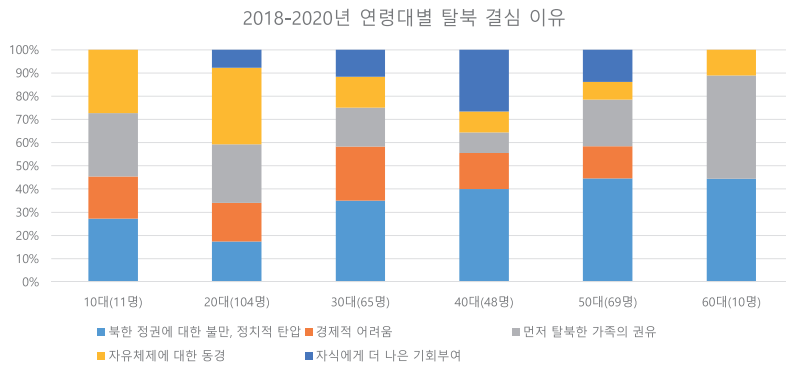
1. 새로운 세대
2. 북한 중학교(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3. 누가 엘리트가 되는가?
4. 소결

1. 새로운 세대



- 2011년부터 실시해온 북한이탈주민 조사 연구참여자 연령의 평균 추세를 그려보면, 2014년에 비약했고 작년과 올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1. 새로운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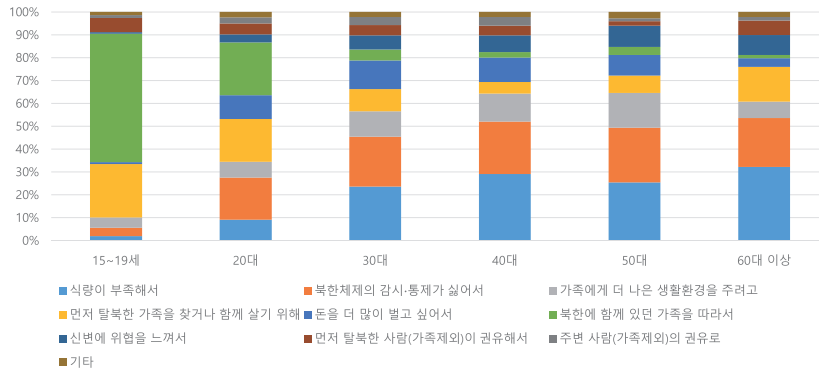


- 30-50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때문에 탈북했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20대는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왜 20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해 심층연구가 필요함.



1. 새로운 세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연령대별 탈북 동기(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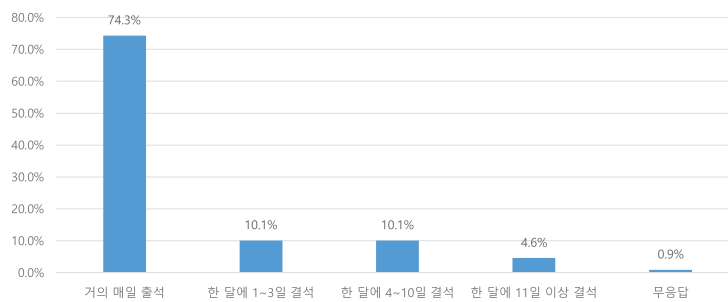


- 앞 장의 그래프는 1997년부터 입국해 있는 3,000명의 표본을 조사한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다르지만, 더욱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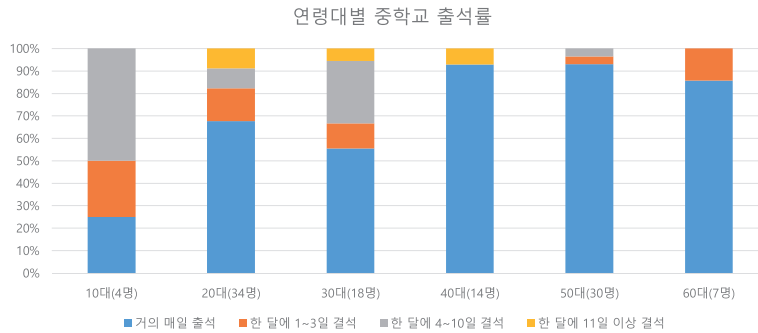
2. 북한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 출석률

중학교 재학시 출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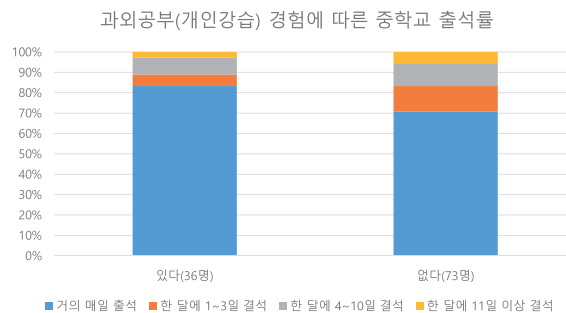
- '거의 매일 출석' 74.3%, '한 달에 1~3일 결석'과 '4~10일 결석' 각 10.1% '한 달에 11일 이상 결석' 4.6%
- 유네스코에서는 북한 학교의 순 등록률을 2009년 기준 초등교육 94.03%로, 2015년 기준 초등교육 90.98%, 중등교육 90.09%로 추정

2. 북한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 출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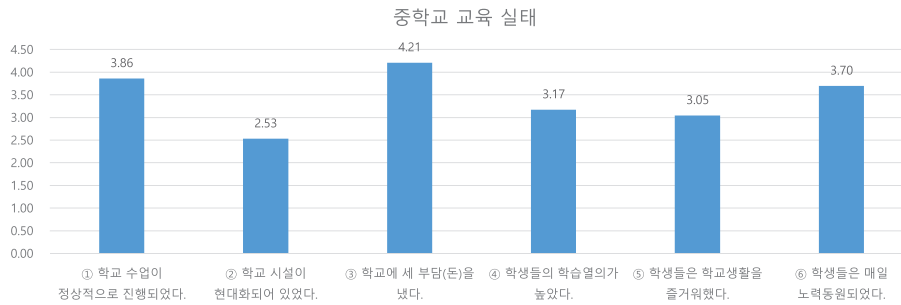
- '거의 매일 출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60대보다 10-30대에서 더 낮고, '한 달에 4~10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높음.
- 고난의 행군기 이후 중학교에 진학했던 세대에서 출석률이 더 낮음.

2. 북한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 출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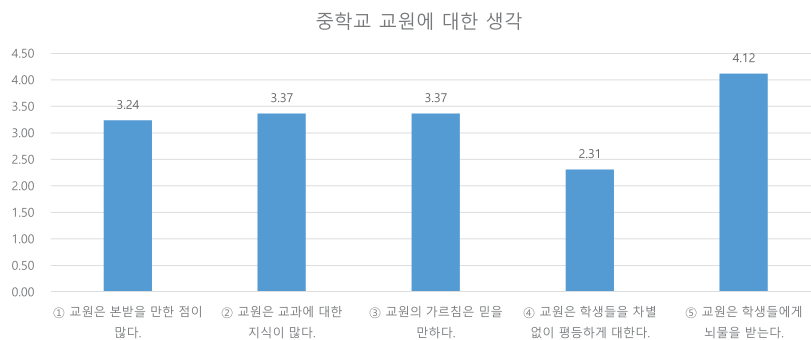
- 본인이나 자녀의 과외공부(개인강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중학교 출석률이 없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음.

2. 북한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 교육 실태(탈북 직전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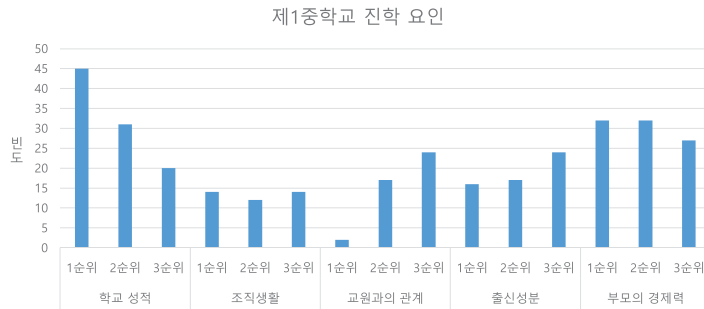
- 학교 수업 진행, 학생들의 학습열의, 학교생활의 즐거움, 노력동원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 평균 3점대
- 학교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질문에는 2점대, 학교 세 부담에 대한 질문에는 4점대

2. 북한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 교원에 대한 생각(탈북 직전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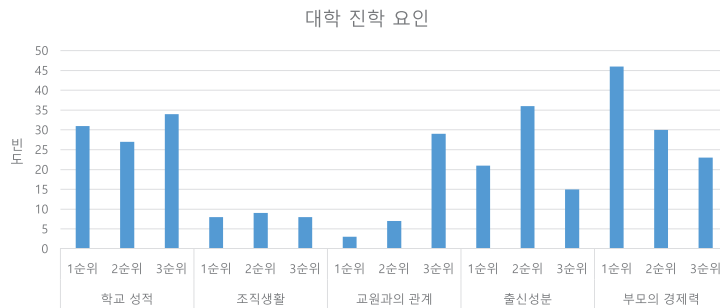
- 본받을 만한 점이 많고,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교사의 가르침이 믿을 만하다는 질문에는 5점 만점 평균 3점대
- 반면, 교원이 학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점대, 뇌물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점대

3. 누가 엘리트가 되는가? : 제1중학교 진학 요인



-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 1순위 - 학교 성적, 2, 3순위 - 부모의 경제력
- 가중치 부가 시 학교 성적 72점, 부모의 경제력 62점, 출신성분 35점, 조직생활 27점, 교원과의 관계 21점 순

3. 누가 엘리트가 되는가? : 대학 진학 요인



-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 1순위 - 부모의 경제력, 2순위 - 출신성분, 3순위 - 학교 성적
- 가중치 부가 시 부모의 경제력 74점, 학교 성적 60점, 출신성분 50점, 조직생활 17점, 교원과의 관계 17점 순

4. 소결

- 북한에서 아동·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기를 보냈거나 그 후 태어난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20대 연구참여자들의 탈북 동기, 가치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함.
- 김정은 정권의 교육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한 기회는 귀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걸로 인식되고 있음.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김유연, 최은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새로운 세대

- 최근 이루어진 북한 '장마당세대'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을 기성세대와는 다른 세대의식을 지닌 집단으로 보고 북한 체제변동의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음(강원철, 2016; 김은숙, 2019; 채경희, 2019; 최수은, 2017).
- 지난 5년 동안 북한이탈주민 조사의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꼈고, 연령대가 낮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높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
- 실제로 2011년부터 실시해온 북한이탈주민 조사 연구참여자 연령의 평균 추세를 그려보면, 2014년에 비약했고 작년과 올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가. 연령대별 탈북 결심 이유

- 2018년부터 조사된 '탈북 결심 이유'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10대와 60대는 빈도수가 적지만 20대와 40-50대를 비교해봤을 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30-50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정치적 탄압' 때문에 탈북했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20대는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가장 많이 선택함.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분산분석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경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1997년부터 입국해 있는 3,000명의 표본을 조사한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다르지만, 본 조사는 직전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 내지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세대에 대해 지나친 해석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나, 왜 20대 연구참여자들은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왜 이들에게 자유란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해 심층연구가 필요해 보임.
- 그들에게 남한의 자유체제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되는데, 그들이 남한 사회에 대해 품었던 환상이 깨지며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세대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교육 실태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음.

2. 북한 중학교(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 북한은 '교육의 나라'라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해방 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할 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1956년 "동방에서 제일 먼저" 4년제 초등무교육제를, 1960년에는 7년제 중등무교육제를 실시함(한만길, 1997; 김지수, 2013).
-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며 식량난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되어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됨(조정아, 2004).

가. 중학교 재학시 출석률

-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학교 등록률이 정확히 몇 %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2000년대 들어 식량난이 개선된 이후 학교 등록률도 다시 상승했을 것으로 추측됨. 유네스코에서는 북한 학교의 순 등록률을 2009년 기준 초등교육 94.03%로, 2015년 기준 초등교육 90.98%, 중등교육 90.09%로 추정했음.¹⁾
-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북한이탈주민 109명 중 74.3%는 '거의 매일 출석'했다고 응답함. 한 달에 1~3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과 4~10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동일하게 10.1%였고, 11일 이상 결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였음.
- 중학교 출석률에 시기별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거의 매일 출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60대보다 10~30대에서 더 낮고, '한 달에 4~10일 결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난의 행군기 이후 중학교에 진학했던 세대에서 출석률이 더 낮음.
- 본인이나 자녀의 과외공부(개인강습) 경험 유무에 따른 중학교 출석률도 다소 차이를 보임. 카이제곱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중학교 출석률이 없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다소 높아 교육열과 학교 출석률 간 약한 상관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음.

나.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

- 북한 당국은 2000년대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문의 공적 투자가 급격하게 회복되지는 못함.
- 국가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는 동안 사부담 공교육비가 급증함. 학생 개인이 소모하는 비용부터 학교 시설의 개보수, 기자재 확보 등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정착됨(조정아, 2007).
-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 본 결과, 학교 수업 진행, 학생들의 학습열의, 학교생활의 즐거움, 노력동원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 평균 3점대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의 답변이 나온 반면, 학교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질문에는 2점대로 낮은 점수가 나왔고, 학교 세 부담에 대한 질문에는 4점대로 높은 점수가 기록됨.
- 이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사부담 공교육비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줌.

다. 중학교 교원에 대한 생각

- 북한의 교원은 '직업적 혁명가'로서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본보기가 될 것을 요구받아 왔으며, 그만큼 높은 사회적 존경을 받아왔음. 그러나 고난의 행군기 당시 교원들에 대한 배급이 끊기면서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물질 요구자 혹은 지시 전달자'가 되어 권위를 상실함.
-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교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 본 결과, 본받을 만한 점이 많고,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교사의 가르침이 믿을 만하다는 질문에는 5점 만점 평균 3점대로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의 답변이 나온 반면, 교원이 학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점대로 낮은 점수가 나왔고, 뇌물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점대로 높은 점수가 기록됨.
- 이는 학생들에게 "토끼가죽 몇 매 내, 토끼가죽 없으면 돈 얼마 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 부담을 낼 것을 요구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거나 가정배경이 좋은 학생들을 눈에 띄게 차별하는 교사의 행태(김정원 외, 2014)가 최근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1) UNESCO UIS 홈페이지 <http://uis.unesco.org/en/country/kp> (검색일: 2019.11.4.)

3. 누가 엘리트가 되는가?

- 엘리트 선발체계는 각국의 계층 이동성 및 교육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
- 1970년대까지 북한의 대학입학 제도는 지원자의 출신성분, 조직생활 등을 고려한 추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예비시험의 결과에 따라 추천을 받아 대학별 전형을 치르는 방식으로 변형됨(신효숙, 2007).
-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수재교육도 1970년대 말까지 사회주의 평등 원리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체능분야 및 이과분야에서 비공식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80년대 김정일의 주도로 과학기술분야 수재교육기관인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했음. 1984년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시작으로 1985년에는 각 도에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했고, 1999년부터는 각 시·군·구역까지 200여개로 확대함. 이로써 모든 중등학생들을 능력별로 선발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가 확립됨(조정아, 2007).
- 이후 제1중학교 진학을 위한 시·군별 경쟁이 과열되고, 상대적으로 일반 학교 학생들의 학습열의가 낮아지자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고 수재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9년 도 제1중학교와 시 제1중학교의 일부만 남기고 제1중학교를 다시 일반 학교로 전환했음(김유연, 2014). 그러나 여전히 “누가 제1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질문임.
- 즉, 북한에서 1970년대까지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이 엘리트 선발의 주요 요인이었다면, 1980년대부터는 능력주의(meritocracy)적 선발기제를 도입하게 된 것임.

가. 제1중학교 진학 요인

-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1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1, 2, 3순위로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위와 같은 빈도로 요인들이 선택됨.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학교 성적하였고, 2순위와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부모의 경제력이었음. 각 요인별로 1순위 빈도에 3점, 2순위 빈도에 2점, 3순위 빈도에 1점을 곱하면 학교 성적 72점, 부모의 경제력 62점, 출신성분 35점, 조직생활 27점, 교원과의 관계 21점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제1중학교가 “철저하게 실력에 기초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체계이나, 부모의 경제력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 북한에서 자녀가 제1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임.

나. 대학 진학 요인

- 2000년대 초반 제1중학교가 확대 설립된 이후 대학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뽏트’)이 제1중학교에만 배정되는 바람에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제1중학교에 입학하려 하는 현상이 발생함(조정아, 2007). 다만 아직 제1중학교에 비해 대학교 진학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임.
- 본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을 1, 2, 3순위로 선택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위와 같은 빈도로 요인들이 선택됨. 제1중학교 진학 요인과 다르게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요인은 부모의 경제력이었고, 2순위는 출신성분, 학교 성적은 3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됨. 각 요인별로 1순위 빈도에 3점, 2순위 빈도에 2점, 3순위 빈도에 1점을 곱하면 부모의 경제력 74점, 학교 성적 60점, 출신성분 50점, 조직생활 17점, 교원과의 관계 17점 순으로 나타남.
- 제1중학교 진학 요인에서는 학교 성적이 1순위 요인으로 선택된 반면, 대학 진학 요인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1순위 요인으로 선택된 점이 흥미로움. 학교 성적은 3순위로 많이 선택되었고, 순위를 점수화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임. 또한 제1중학교에서 보다 출신성분이 차지하는 순위가 높아 대학 진학에 귀속적 요인(가정배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 기준 26.8%로 추정되는 북한의 고등교육 총 등록률은 같은 해 95.9%로 추정되는 한국이나 84.6%로 추정되는 러시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록률을 보인다.²⁾ 고등교육, 그 중에서도 대학에 진학할 기회는 더더욱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뚫고 대학 추천서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사업(뒷돈거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대학 같은 곳에 입학하자면 점수도 좋아야 하지만, 최소 미화 4천~5천 달러간 든다.”는 증언도 나옴. 한편, “공부를 잘하고 권세가 있는 노동당 간부

2) UNESCO UIS 홈페이지 <http://uis.unesco.org/en/country/kp> (검색일: 2020.10.17.)

가 군부의 자녀들은 이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여³⁾ 학교 성적과 출신성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성적은 좋아도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대학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둘 다 좋지 않을 경우 뒷돈거래만으로 대학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심층연구가 필요함.

4. 소결

- 북한에서 아동·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기를 보냈거나 그 후 태어난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20대 연구참여자들의 탈북 동기, 가치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 실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함.
- 연령대별 중학교 출석률과 연구참여자들의 탈북 직전 1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의 교육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효과를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한 기회는 귀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로 인식되고 있음. 제1중학교를 통해 능력주의적 체계를 작동시키려 하고 있으나, 능력을 얻기 위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고등교육 입시 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 진학이 어렵다고 봄.

참고문헌

- 강원철(2016). 북한 장마당세대의 통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연(2014). 북한의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2019). 북한 신세대의 노동환경과 노동의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김지수·최유림·이슬기(2014).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수(2013).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3), 59-82.
- 신효숙(2007). 북한의 대학교육과 대학입시. 수행인문학 37(2), 39-71.
- 조정아(2004).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아시아교육연구 5(2), 42-72.
- _____(2007).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17(4), 109-131.
- 채경희(2019). 북한 장마당세대의 의식 특성 비교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 313-322.
- 최수은(2017). 장마당 세대 새터민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관점에서.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영진(2014). 무료교육 외치는 북한 대학 '비리 투성이'. 北韓 516, 127-131.

UNESCO UIS 홈페이지 <http://uis.unesco.org/en/country/kp>

3) 한영진(2014). 무료교육 외치는 북한 대학 '비리 투성이'. 北韓 516, 128쪽.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1부 | 사회변동

토론

토론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이경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새로운 세대, 교육의 실태 - 토론문

김지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을 결심한 이유에서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이 10대와 2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질문이 '자유체제'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연령대의 젊은이들에게 자유체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에서 온 학생들은 인터뷰해보면, 북에서 남의 드라마나 가요, 게임 등을 접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자유체제'는 이런 매개들을 통한 이미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학교교육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북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큰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중요한 교육개혁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북에서는 해방 후 보통교육의 시설 개선 등은 지역의 행정기관, 기업소, 농장 그리고 학부모 등에 의해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부문의 공적투자'라는 것을 우리와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교육예산의 투입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북의 교육신문 등을 보면, 지역의 기관과 주민, 학교 구성원 등에 의해 초중등 교육기관의 시설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실제로 탈북청소년들의 면담에서도 도시의 학교와 농촌의 학교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의 지역통계가 함께 제시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될 필요가 있는데, 탈북민들 중에서 도시 출신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유의미한 숫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학교 시설 개선이나 교원의 생활 보장에 학부모와 지역 기관들의 기여가 큰 상황에서 과거 고난의 행군 이전의 북한 사회와 달리 도농간 경제적 격차가 심해진 북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조사에 응답한 탈북민들이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이들의 응답을 기초로 북한의 일반적인 학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북의 교원들에 대한 인식 역시 좀 더 복잡한 양상과 연결해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에게 배급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던 시기와 배급이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거의 제공되지 않던 시기, 배급이 일정정도 제공되는 시기 등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북의 교원들 상황은 배급이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거의 제공되지 않던 시기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것은 학생들과의 관계도 다를 것으로 생각되게 만드는 지점이다. '고난의 행군기' 때의 교사-학생 관계와 최근 식량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기의 교사-학생 관계가 동일할 것 같지는 않으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에서 제1중학교의 숫자를 1990년대 후반에 200여개로 확대하였다가 2009년에 다시 대폭 줄인 것은 '고난의 행군기'와 관련된 정책의 변동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제1중의 진학요인으로 1순위로 학교성적, 2순위로 부모의 경제력이 선택된 것은 북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대학진학 요인으로 1순위 부모의 경제력이 선택된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됨

북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경쟁을 뚫고 대학 추천서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사업(뒤틀돈거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북의 보통교육법 제52조(행정적 책임) 1항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조항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보면 북에서 입학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처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북에서 대학입학 시에 '뒤틀돈거래'가 사회의 공공연한 현상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2부 | 주민의식

발표 6

통일 인식

엄현숙
(북한대학원대)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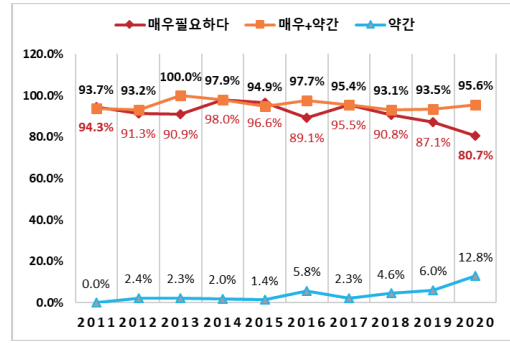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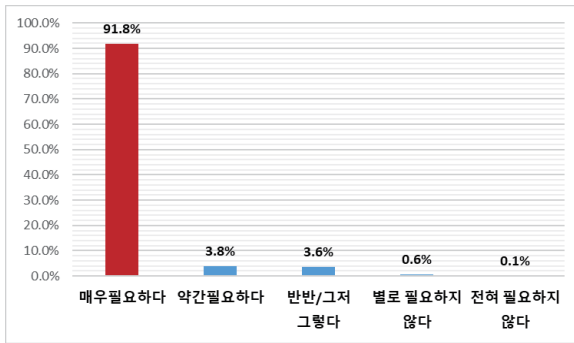
목 차

- 1. 통일의 필요성
- 2. 통일 의지
- 3. 통일 이유
- 4. 통일 시기
- 5. 집단 이익, 개인 이익
- 6. 사회경제적 문제
- 7. 통일정책
- 8. 통일 방식
- 9. 통일 거주 지역
- 10. 통일 내용
- 11. 통일 감정



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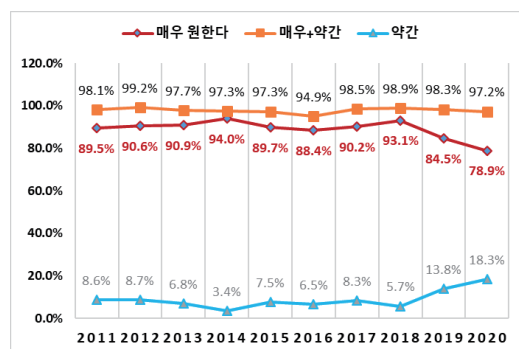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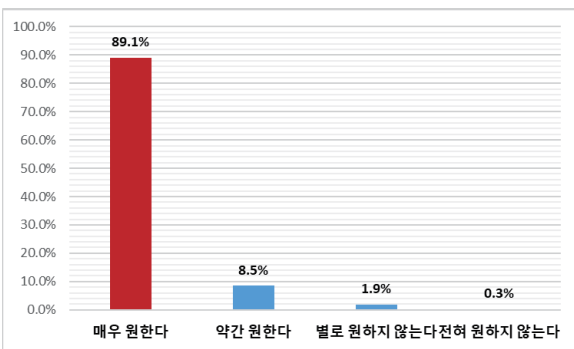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 91.8%가 통일을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음
-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 2011년 94.3%보다 낮으며, 2020년 조사에서 80.7%로 전년 대비 6.4%p 하락
- '약간 필요하다'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사기간(2011-2020) 평균 95.5%로 우위

2.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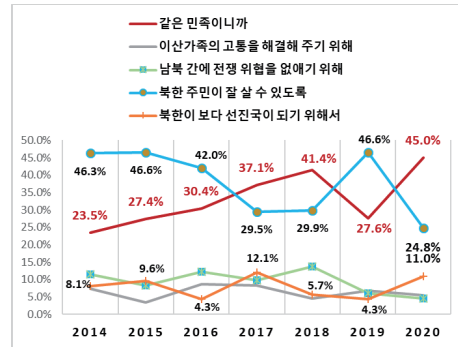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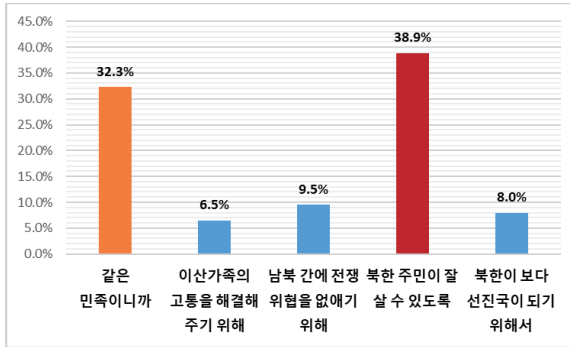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 89.1%가 통일을 '매우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매우 원한다'의 경우 2020년 78.9%로 전년 대비 5.6%p 낮아짐, 조사기간 가장 낮은 수치임
- '통일을 약간 원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사기간(2011-2020) 평균 97.7%로 우위임

3. 통일 이유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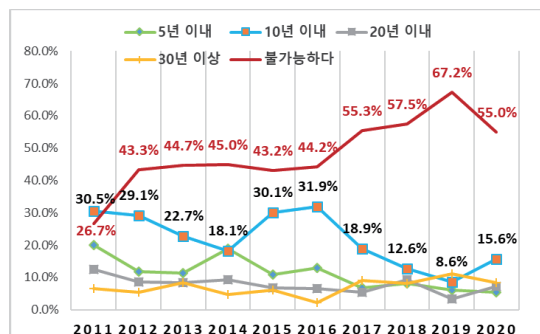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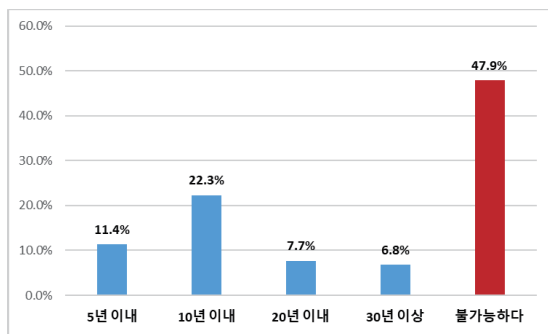


- 평균,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38.9%, '같은 민족이니까' 32.3%로 우위
- '같은 민족이니까'의 경우 2019년 27.6%에서 2020년 무려 17.4%p 높아짐, 조사 이래 가장 높음
-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의 경우, 2019년 46.6%에서 2020년 21.8%p 빠짐. 조사 이래 가장 낮음
-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2020년 11.0%로 전년 대비 6.7%p 상승



4. 통일 시기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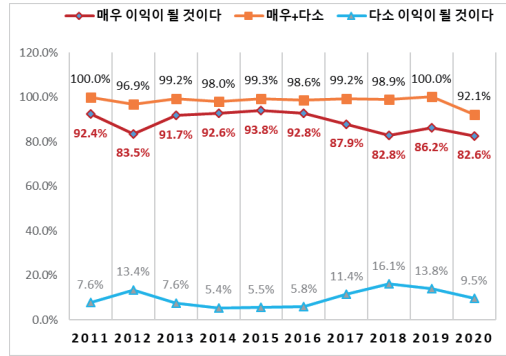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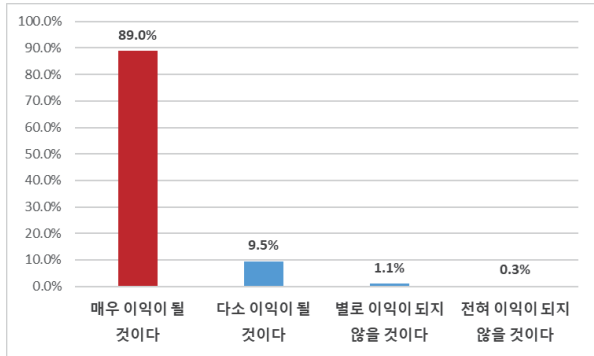


- 평균, 47.9%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우세를 보임
- '불가능하다'는 2020년 55.0%로 전년 대비 12.2%p 하락
- 다만, '10년 이내'가 2019년 8.6%에서 2020년 15.6%로 7%p 상승,
- '불가능'과의 격차를 2019년 58.6%p에서 39.4%p로 줄었다는 점에서 희망적, 2011년 3.8%p 차이에 비하면 부정적



5-1. 통일 집단 이익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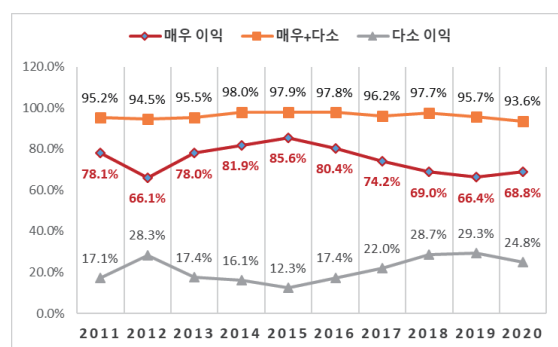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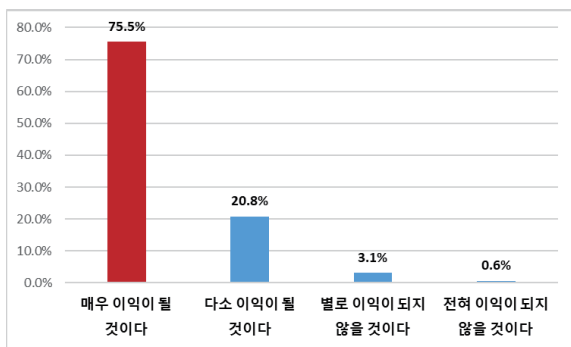


- 평균, 89.0%가 집단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로 우위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인식은 2020년 9.5%로 전년 대비 4.3%p 소폭 하락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사기간(2011-2020) 평균 92.6%로 우위



5-2. 통일 개인 이익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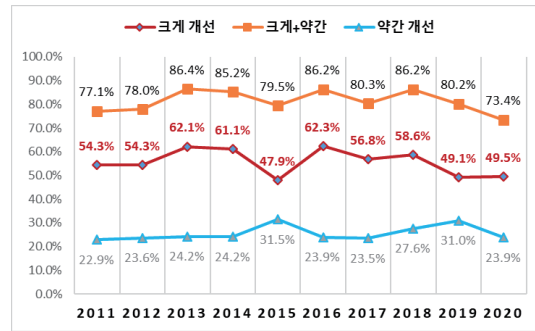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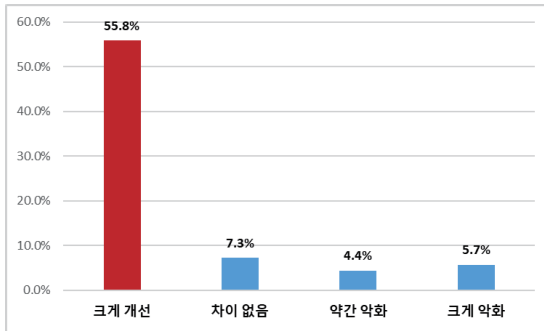


- 평균, 75.5%가 개인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로 우위
- 반면,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인식은 2020년 24.8%로 전년 대비 4.5%p 하락
- 개인의 이익은 집단 이익보다는 크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6-1. 빈부 격차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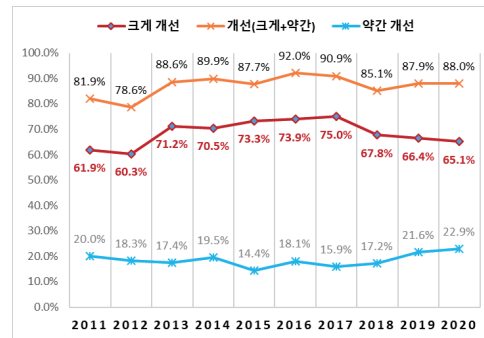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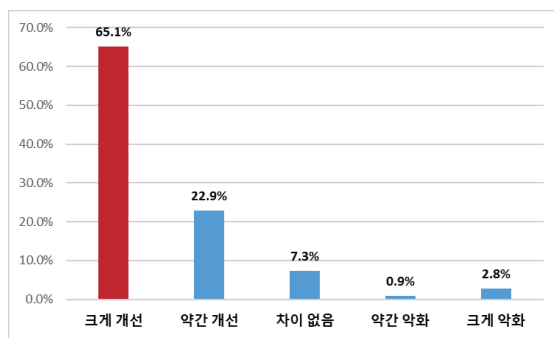


- 평균, 55.8%는 빈부 격차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함
- 다만,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인식은 2020년 23.9%로 전년 대비 7.1%p 하락
- '약간 개선'될 것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사기간(2011-2020) 평균 81.2%로 우수



6-2. 실업 문제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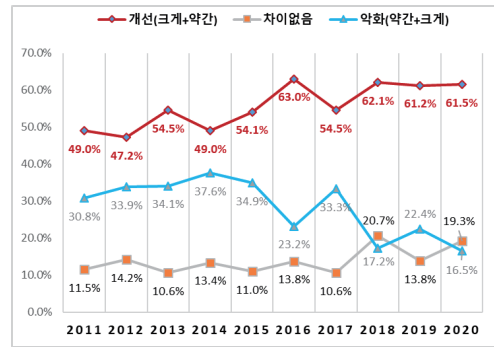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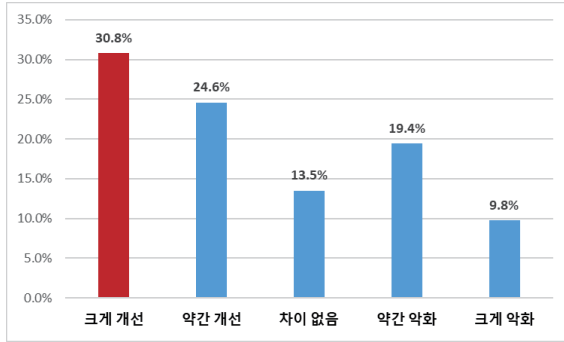


- 평균, 65.1%는 실업문제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크게 개선'은 '약간 개선'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할 경우, 88.0%로 전반적으로 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인식이 높음



6-3. 지역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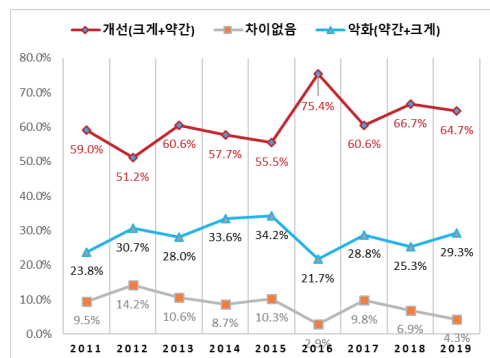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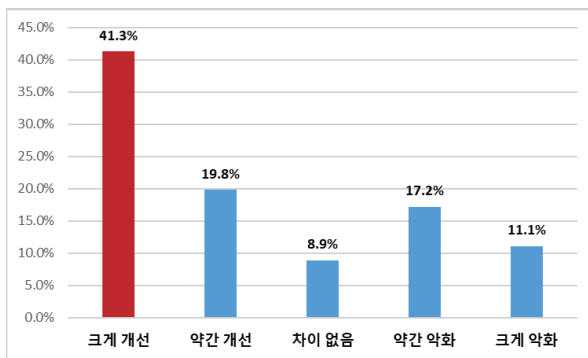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 30.8%로 지역 갈등은 '크게 개선' 된다는 인식이 우세임
- '크게 개선'은 '약간 개선'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할 경우, 61.5%로 지역 갈등 개선을 보는 인식이 높음
- 지역 갈등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인식은 2020년 16.5%로 전년 대비 5.9%p 하락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에 힘이 실리는 추세임

6-4. 이념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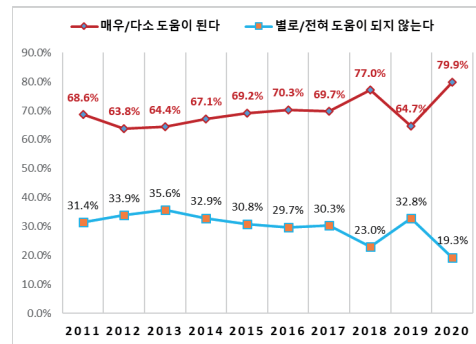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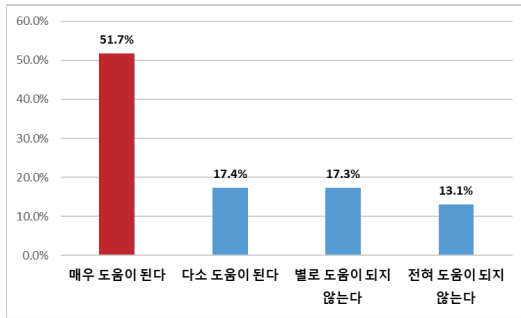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북한의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 이념 갈등은 '크게 개선' 된다는 인식이 41.3%으로 우세
- 다만, 개선된다는 인식은 2020년 64.7%로 전년 대비 2.0%p 소폭 하락
- 악화된다는 인식은 2020년 29.3%로 4%p 상승

7-1.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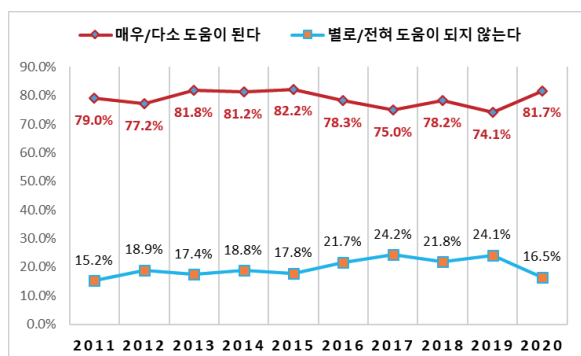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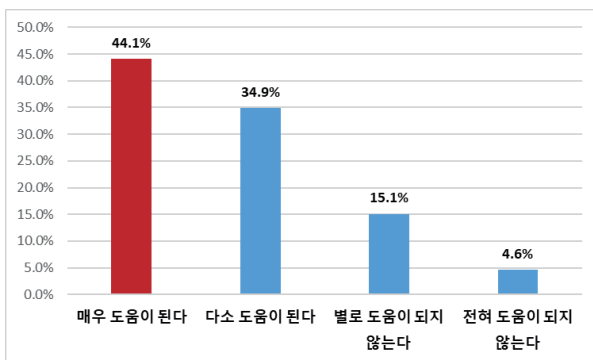


- 평균, 인도적 대북지원은 '매우 도움이 된다'가 51.7%로 우세
-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격차는 전년 31.9%p에서 60.6%p로 28.7%p 벌어짐



7-2.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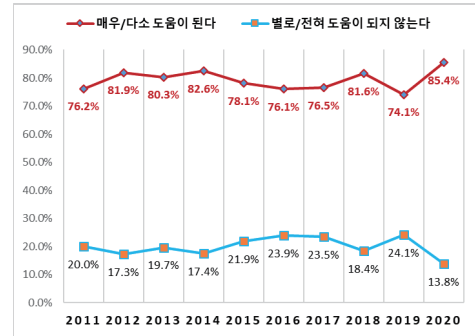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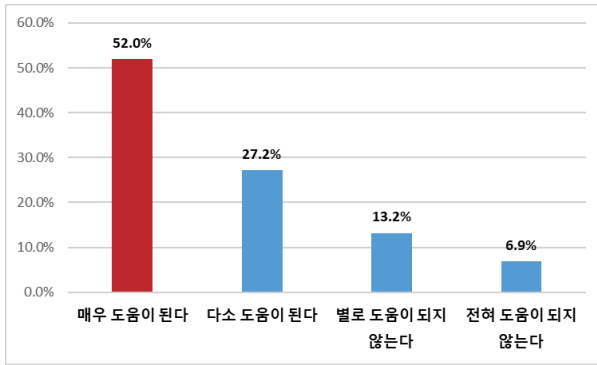


- 평균, 사회문화교류는 '매우 도움이 된다'가 44.1%로 우세
-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격차는 전년 50%p에서 65.2%p로 15.2%p 벌어짐



7-3. 금강산 개성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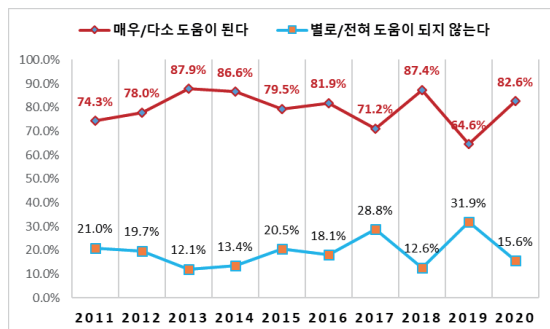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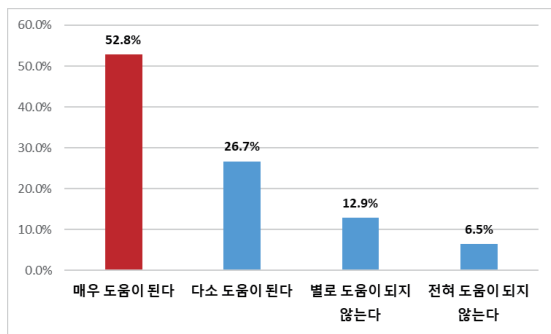


- 평균,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도움이 된다'가 52.0%으로 우세
-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격차는 전년 50%p에서 71.6%p로 21.6%p 벌어짐



7-4.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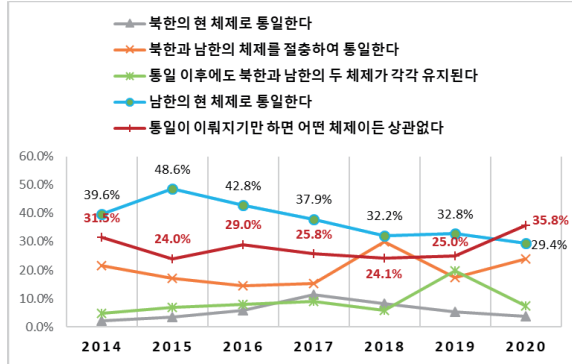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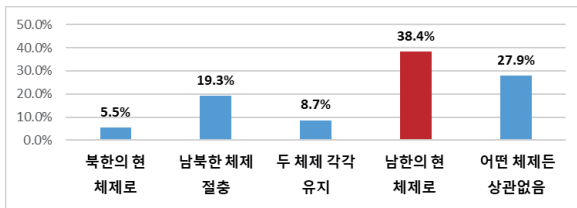


- 평균, 남북 간 회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도움이 된다'가 52.8%으로 우세
-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격차는 전년 32.7%p에서 67%p로 34.3%p 벌어짐



8. 통일 방식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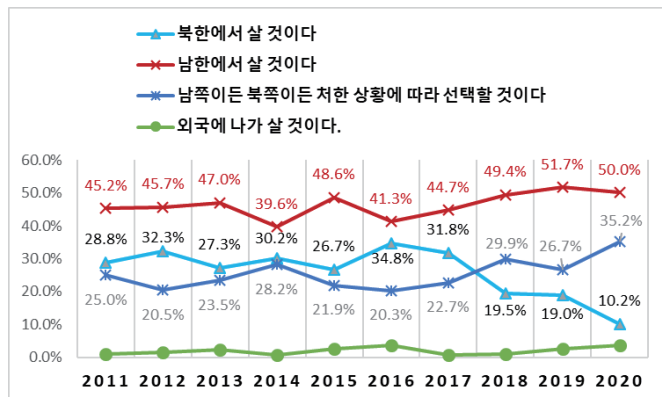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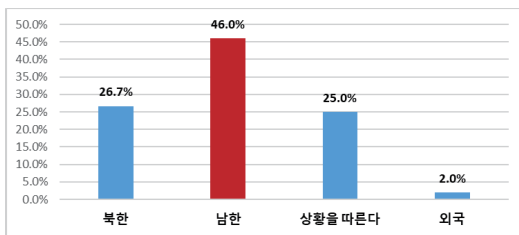


-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도 상관없다'의 경우 2019년 25.0%에서 2020년 35.8%로 10.8%p 높음
- '남한의 현체제로 통일한다'의 경우는 2019년 32.8%에서 2020년 29.4%로 3.4%p 낮음
 - 평균, 38.4%로 '남한의 현체제로 통일한다'가 여전히 우세
-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2020년 23.9%로 전년 대비 66.7%p 상승



9. 통일 거주 지역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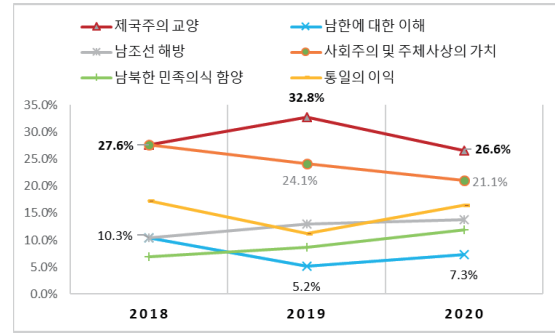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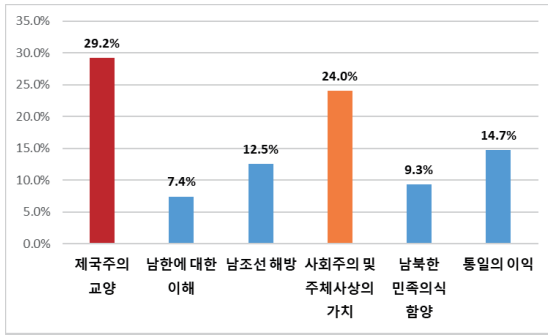


- 평균, 46%로 '남한에서 살 것이다'는 생각이 우세
- 다만, '남한에서 살 것이다'는 생각은 2020년 50%로 전년 대비 1.7%p 낮음
-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의 경우는 2020년 35.2%로 8.7%p 높음
- '북한에서 살 것이다'는 인식은 2020년 10.2%로 전년 대비 8.8%p 하락



10. 통일 내용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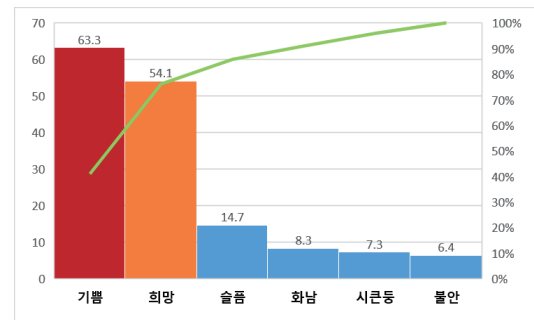
- 조사기간(2018-2020) 평균, 통일 내용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 교양'이 29.2%로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24.0%보다 우세
- '남한에 대한 이해' 항목이 다른 내용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음



11. 통일에 대한 감정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희망	불안	슬픔	시큰둥	희망	기쁨
매우 그렇다	8.3	6.4	14.7	7.3	54.1	63.3
그런 편이다	7.3	5.5	8.3	11	21.1	13.8
보통이다	17.4	19.3	20.2	21.1	11.9	1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7.3	7.3	7.3	12.8	4.6	1.8
전혀 그렇지 않다	57.8	59.6	47.7	45	7.3	6.4



- 이 항목에 관한 조사는 2020년 처음 시도 된 것임
- '기쁨', 과 '희망'에 대한 인식 각각 63.3%, 54.1%로 통일에 긍정적 감정이 우세함
- 부정적 감정은 '슬픔', '화남', '시큰둥', '불안'의 순서로 나타나며 이 모두를 합쳐도 36.7%임



소 결

- 1. 통일의 필요성_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
- 2. 통일 의지_강한 의지를 보여줌. 다만 해가 갈 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3. 통일 이유_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반영
- 4. 통일 시기_2020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음
- 5. 집단 이익, 개인 이익_집단 이익은 크나 개인 이익에는 불확실성 존재
- 6. 사회경제적 문제_빈부 격차와 이념 갈등에 불확실성, 실업 문제와 지역 갈등에는 긍정적
- 7. 통일정책_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희망하며 그것이 곧 북한 주민도 잘 사는 길로 인식
- 8. 통일 방식_통일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음
- 9. 통일 거주 지역_통일이 되어 함께 잘 살 수 있다면, 처한 상황에 따를 것임이 우세
- 10. 통일 내용_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11. 통일 감정_통일은 긍정적인 것임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요약)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1. 통일의 필요성

▶ 평균, 91.8%가 통일을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 2011년 94.3%보다 낮으며, 2020년 조사에서 80.7%로 전년 대비 6.4%p 하락
- '약간 필요하다'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사기간(2011-2020) 평균 95.5%로 우위
- 95.5%에 달하는 응답자가 통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2. 북한 주민의 통일 의지

▶ 평균, 89.1%가 통일을 '매우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매우 원한다'의 경우 2020년 78.9%로 전년 대비 5.6%p 낮아짐, 조사기간 가장 낮은 수치임
- '통일을 약간 원한다'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사기간(2011-2020) 평균 97.7%로 우위임
- 대부분 통일을 필요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여줌. 다만, '매우 원한다'의 경우 해가 갈수록 의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3. 통일 이유

▶ 평균,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38.9%, '같은 민족이니까' 32.3%로 우위

- 2020년 '같은 민족이니까'의 경우 2019년 27.6%에서 2020년 무려 17.4%p 높아짐, 조사 이래 가장 높음
-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의 경우, 2019년 46.6%에서 2020년 21.8%p 빠짐. 조사 이래 가장 낮음
-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2020년 11.0%로 전년 대비 6.7%p 상승
- 북한 주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의 기저에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같은 민족이니까의 인식에는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4. 통일 시기

▶ 평균, 47.9%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우세를 보임

- '불가능하다'는 2020년 55.0%로 전년 대비 12.2%p 하락
- 다만, '10년 이내'가 2019년 8.6%에서 2020년 15.6%로 7%p 상승,
- '불가능'과의 격차를 2019년 58.6%p에서 39.4%p로 줄었다는 점에서 희망적, 2011년 3.8%p 차이에 비하면 부정적
- 북한 정권이 안정된다고 보면,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릴 때, 통일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2019년 비관론이 우세했다면, 2020년은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씩 탄력을 받는 것임

5-1. 통일 집단 이익

▶ 평균, 89.0%가 집단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로 우위

- 통일이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인식은 2020년 9.5%로 전년 대비 4.3%p 소폭 하락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사기간(2011-2020) 평균 92.6%로 우위
- 통일은 같은 민족인 북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클 것으로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다만 2020년 인식의 하락에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이익과 개인적 차원의 이익이 혼재 된 것임.

5-2. 통일 개인 이익

▶ 집단 평균, 75.5%가 개인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로 우위

- 반면,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인식은 2020년 24.8%로 전년 대비 4.5%p 하
- 개인의 이익은 집단 이익보다는 크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통일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 개인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냄.

6-1. 빈부 격차

▶ 평균, 55.8%는 빈부 격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인식은 2020년 23.9%로 전년 대비 7.1%p 하락
- '약간 개선'될 것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조사기간(2011-2020) 평균 81.2%로 우위
- 빈부 격차에 대한 인식은 확실과 불확실의 반반 보다는 조금은 확실한 것으로 결정적 우위는 아님, 통일이 국가적 이익은 증대되나 개인적 이익의 불확실성과 비슷한 수준임. 통일이 되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6-2. 실업 문제

- 평균, 65.1%는 실업문제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실업 '크게 개선'은 '약간 개선'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할 경우, 88.0%로 전반적으로 실업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인식이 높음
- 북한 내 실업 보다는 남북한 전체로 확대된 인식으로 평가됨. 이에,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우선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6-3. 지역 갈등

▶ 평균, 30.8%로 지역 갈등은 ‘크게 개선’ 된다는 인식이 우세임

- 지역 ‘크게 개선’은 ‘약간 개선’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할 경우, 61.5%로 지역 갈등 개선을 보는 인식이 높음
- 지역 갈등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인식은 2020년 16.5%로 전년 대비 5.9%p 하락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에 힘이 실리는 추세임
- 지난해와 연장선상에서 경제적 개선에 대한 기대 심리가 꾸준히 반영되는 것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임.

6-4. 이념 갈등

▶ 개선 평균, 이념 갈등은 ‘크게 개선’ 된다는 인식이 41.3%으로 우세

- 다만, 개선된다는 인식은 2020년 64.7%로 전년 대비 2.0%p 소폭 하락
- 악화된다는 인식은 2020년 29.3%로 4%p 상승
- 기본적으로 이념 갈등은 개선된다고 보는게 맞음.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면 이념에 의한 대립 구조는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임, 다만, 과정으로써 현재를 주목한다면, 갈등의 표면화로 오히려 질 수 있음.

7-1.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 평균, 인도적 대북지원은 ‘매우 도움이 된다’가 51.7%로 우세

-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격차는 전년 31.9%p에서 60.6%p로 28.7%p 벌어짐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투영된 것으로 보임. 열악한 북한의 상황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올해의 상황에 더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됨.

7-2.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

▶ 사회문화교류는 ‘매우 도움이 된다’가 44.1%으로 우세

- 다만,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격차는 전년 50%p에서 65.2%p로 15.2%p 벌어짐
- 북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사회문화교류는 사회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7-3.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 매우 평균,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도움이 된다’가 52.0%으로 우세

- 매우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격차는 전년 50%p에서 71.6%p로 21.6%p 벌어짐
- 남북 간 경제협력의 차단이 장기화 된 것에 따름. 경제협력의 물꼬를 틔우므로써 관계개선을 통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읽힘.

7-4.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 평균, 남북 간 회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도움이 된다'가 52.8%으로 우세

- 매우 2020년 도움이 된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격차는 전년 32.7%p에서 67%p로 34.3%p 벌어짐
- 최근 3년간 2018년 관계 좋음과 2019년 관, 계 악화를 모두 겪은 것에서 비롯, 관계 개선이 결국 통일로 가는 길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8. 통일 방식

▶ 평균, 38.4%로 '남한의 현체제로 통일한다'가 여전히 우세

- '통일이 이뤄지지만 어떤 체제도 상관없다'의 경우 2019년 25.0%에서 2020년 35.8%로 10.8%p 높음
- '남한의 현체제로 통일한다'의 경우는 2019년 32.8%에서 2020년 29.4%로 3.4%p 낮음
-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2020년 23.9%로 전년 대비 66.7%p 상승
- 기본적으로 북한의 현체제로 통일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그렇다 해도 남한의 현체제로의 통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2020년은 어느 한 체제로 기울던 상관없이 통일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는 긴 분단으로 인한 피로감의 호소로 보임.

9. 통일 거주 지역

▶ 평균, 46%로 '남한에서 살것이다'는 생각이 우세

- 남한에서 다만, '남한에서 살 것이다'는 생각은 2020년 50%로 전년 대비 1.7%p 낮음
-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의 경우는 2020년 35.2%로 8.7%p 높음
- '북한에서 살것이다'는 인식은 2020년 10.2%로 전년 대비 8.8%p 하락
- 과반이 남한에서 살기를 원한 반면, 앞선 방식 조사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처한 상황을 따른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우세를 나타낸다. 통일이 되어 다 함께 잘 살기만 한다면 그만이라는 인식에 분단에 의한 피로감과 동시에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10. 통일 내용

▶ 조사기간(2018-2020) 평균, 통일 내용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 교양'이 29.2%로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 24.0%보다 우세

- '남한에 대한 이해' 항목이 다른 내용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음
- 이는 응답자 개인의 체제의 다름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소모와 개인주의 가치와 경제적 자본의 빈약함 등에 의한 불안 정서를 드러낸 것임.
-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시대 미국 대통령과의 담화와 연이은 친서 등의 교류가 적대국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이는 곧 체제나 이념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됨.

11. 통일에 대한 감정

▶ 이 항목에 관한 조사는 2020년 처음 시도 된 것임

- '기쁨', 과 '희망'에 대한 인식 각각 63.3%, 54.1%로 통일에 긍정적 감정이 우세함
- 부정적 감정은 '슬픔', '화남', '시큰둥', '불안'의 순서로 나타나며 이 모두를 합쳐도 36.7%임
-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긍정적인 것이며, 남북한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 주민의 몫임을 알 수 있음.

소결

1. 통일의 필요성_북한 주민에게 통일은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
2. 통일 의지_강한 의지를 보여줌. 다만 해가 갈 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3. 통일 이유_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반영
4. 통일 시기_2020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음
5. 집단 이익, 개인 이익_집단 이익은 크나 개인 이익에는 불확실성 존재
6. 사회경제적 문제_빈부 격차와 이념 갈등에 불확실성, 실업 문제와 지역 갈등에는 긍정적
7. 통일정책_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희망하며 그것이 곧 북한 주민도 잘 사는 길로 인식
8. 통일 방식_통일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음
9. 통일 거주 지역_통일이 되어 함께 잘 살 수 있다면, 처한 상황에 따를 것임이 우세
10. 통일 내용_사회주의 및 주체사상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11. 통일 감정_통일은 긍정적인 것임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2부 | 주민의식

발표 7

대남 인식

문인철

(서울연구원)

2020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문인철(서울연구원)

목 차

I. 대남인식

1. 대남인식
2. 대남인지도

II. 남한문화 인식

1. 남한문화 경험 정도
2. 남한문화 친숙도
3. 남한문화 유통경로
4.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5. 남북한 이질성에 대한 인식

III. 북핵 및 대남 위협 인식

1. 대남인식
2. 대남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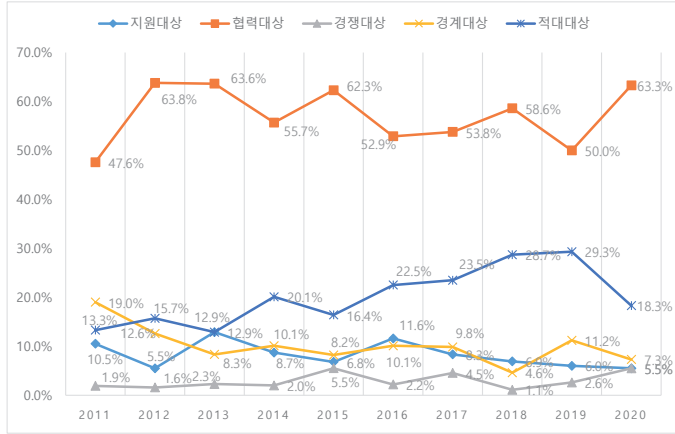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1. 남한문화 경험 정도
2. 남한문화 친숙도
3. 남한문화 유통경로
4.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5. 남북한 이질성에 대한 인식

I. 대남인식

1. 대남인식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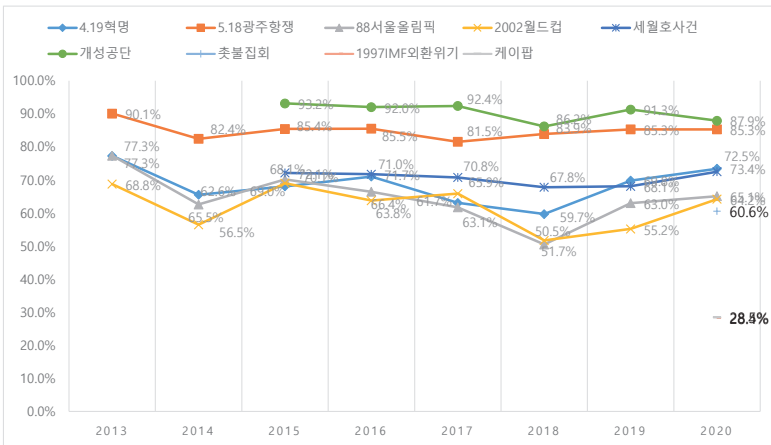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대상	N 11	7	17	13	10	16	11	6	7	6
협력대상	N 50	81	84	83	91	73	71	51	58	69
경쟁대상	N 2	2	3	3	8	3	6	1	3	6
경계대상	N 20	16	11	15	12	14	13	4	13	8
적대대상	N 14	20	17	30	24	31	31	25	34	20

- 북한주민의 긍정적 대남인식은 증가한 반면, 부정적 대남인식은 감소했음
- 2019년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50.0%에서 63.3%로 13.3%p 급증했음
- 반면, 적대대상에 관한 응답률은 29.3%에서 18.3%로 11%p 감소했음
-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11.2%에서 7.3%로 감소함
- 2019년과 2020년 남북한 경색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건 2018년의 상황이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기할 점은 소폭이긴 하지만 남한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2018년 1.1%에서 2019년 2.6%, 2020년 5.5%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임

I. 대남인식

2. 대남인지도

(북한에 있을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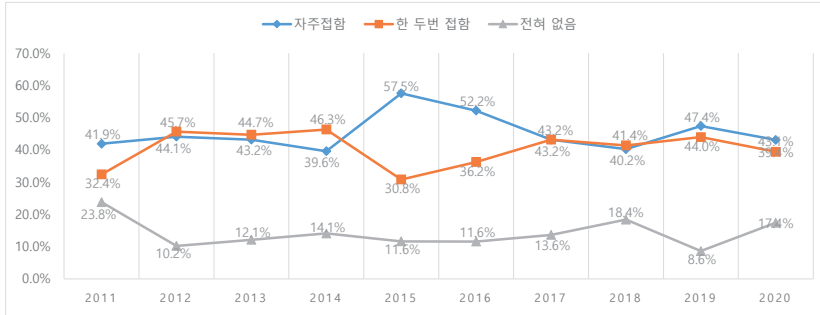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4.19혁명	52(59.7%)	81(69.8%)	80(73.4%)
5.18광주항쟁	73(83.9%)	99(85.3%)	93(85.3%)
88서울올림픽	44(50.5%)	73(63.0%)	71(65.1%)
2002월드컵	45(51.7%)	64(55.2%)	70(64.2%)
세월호 사건	59(67.8%)	79(68.1%)	79(72.5%)
개성공단	75(86.2%)	106(91.3%)	96(87.9%)
촛불집회	-	-	66(60.6%)
1997 IMF외환위기	-	-	31(28.4%)
케이팝	-	-	31(28.5%)

- 개성공단(91.3% → 87.9%)과 5.18광주항쟁(85.3% → 85.3%)을 제외하고 세월호사건(68.1% → 72.5%), 2002월드컵(55.2% → 64.2%), 88서울올림픽(63.0% → 65.1%), 4.19혁명(69.8% → 73.4%) 등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대부분 상승하였음
- 처음으로 '촛불집회(60.6%)', '1997 IMF외환위기(28.4%)', '케이팝(28.5%)'에 관한 항목을 추가했고, 높지 않은 응답률을 보임
- 특기할 점은 '남한문화(방송, 드라마, 음악)를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률(자주 접함+한두 번 접함)이 높은 것(2019년 91.4%, 2020년 82.5%)과 달리 '케이팝'에 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음(케이팝이라는 용어를 모르거나 장르에 관한 이질감 때문일 수도 있음)

II. 남한문화 인식

1. 남한문화 경험 정도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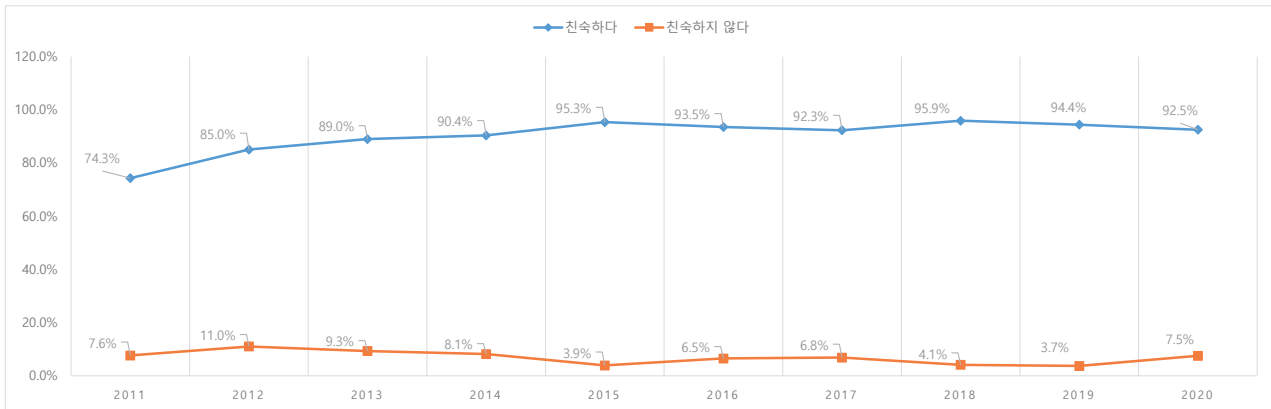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주 접함	35(40.2%)	55(47.4%)	47(43.1%)
한두 번 접함	36(41.4%)	51(44.0%)	43(39.4%)
전혀 없음	16(18.4%)	10(8.6%)	19(17.4%)

- 남한문화를 '자주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47.4%에서 2020년 43.1%로 감소했음
- '한두 번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44.0%에서 39.4%로 감소했음
- 남한문화를 경험한 비율(자주 접함+한두 번 접함)은 2019년 91.4%에서 2020년 82.5%로 8.9%p 감소했음
-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9년 8.6%에서 2020년 17.4%로 급증했음

II. 남한문화 인식

2. 남한문화 친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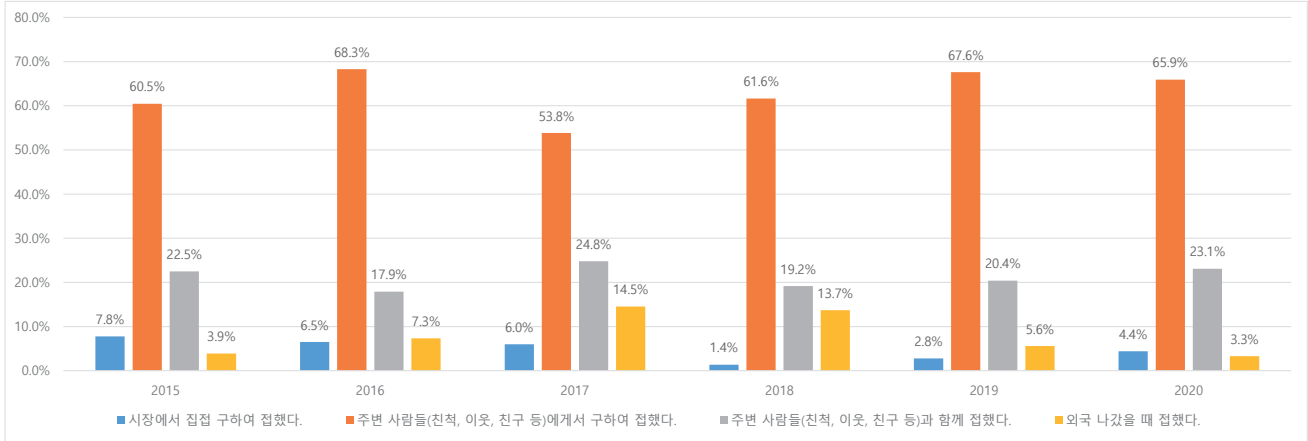
(남한문화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 남한문화가 친숙했다는 응답은 2019년 94.4%에서 2020년 92.5%로 소폭 감소했지만, 90%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친숙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2019년 3.7%에서 2020년 7.5%로 소폭 증가했지만, 10% 미만이라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II. 남한문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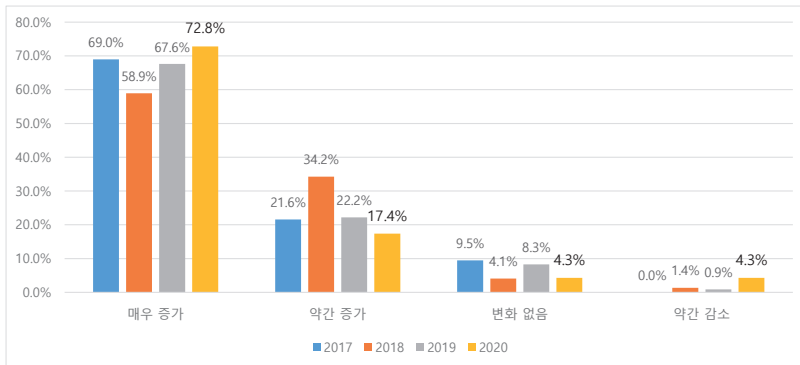
3. 남한문화 유통경로 (남한문화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접했는가?)



- 남한문화 유통경로 비중은 이전 조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여전히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65.9%),
-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이 두 번째(23.1%),
-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이 세 번째(4.4%),
-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이 네 번째(3.3%)임

II. 남한문화 인식

4.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남한문화를 접한 후 남한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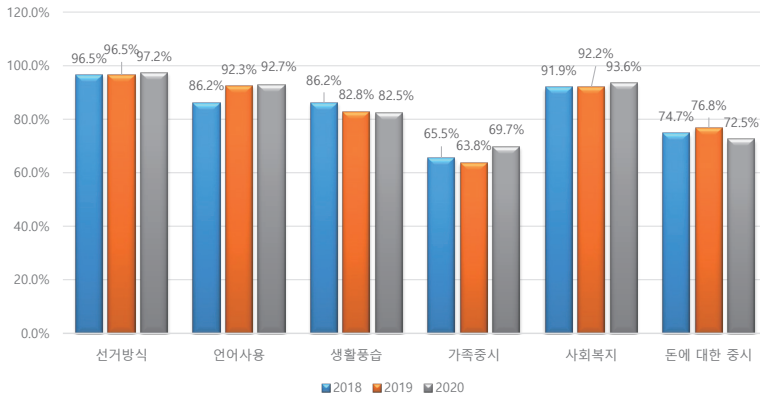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우 증가	43(58.9%)	73(67.6%)	67(72.8%)
약간 증가	25(34.2%)	24(22.2%)	16(17.4%)
약간 감소	1(1.4%)	1(0.9%)	4(4.3%)
변화 없음	3(4.1%)	9(8.3%)	4(4.3%)

- 남한문화 호감도는 2019년 89.8%에서 2020년 90.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매우 증가' 했다는 응답률 67.6%에서 72.5%로 4.9%p 상승했음
- '약간 증가' 했다는 응답률은 22.2%에서 17.4%로 4.8%p 감소했음
- '변화 없다'는 응답률은 8.3%에서 4.3%로 4%p 감소했음

II. 남한문화 인식

5.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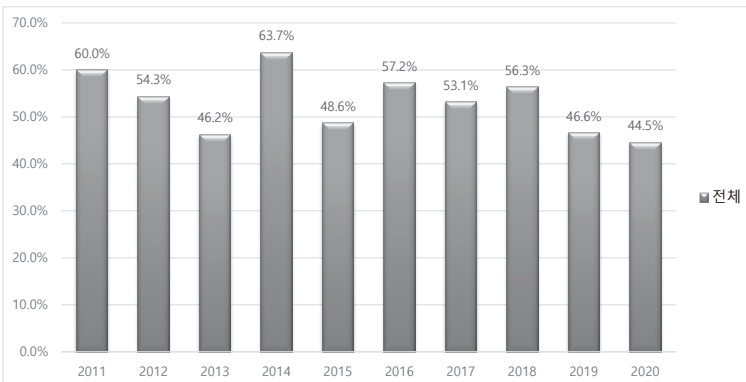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선거방식	84(96.5%)	112(96.5%)	106(97.2%)
언어사용	75(86.2%)	107(92.3%)	101(92.7%)
생활풍습	75(86.2%)	96(82.8%)	90(82.5%)
가족중시	57(65.5%)	74(63.8%)	76(69.7%)
사회복지	80(91.9%)	107(92.2%)	102(93.6%)
돈 중시	65(74.7%)	89(76.8%)	79(72.5%)

- 변화는 있으나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응답률도 2019년도와 비교해 주목할 만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6.5%→97.2%)'을 이질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했고,
- 두 번째로 '사회복지(92.2%→93.6%)', 세 번째로 '언어사용(92.3%→92.7%)', 네 번째로 '생활풍습(82.5% →82.5%)', 다섯 번째로 '돈 중시(76.8% →72.5%)', 여섯 번째로 '가족중시(63.8%→69.7%)'를 선택했음

III.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1.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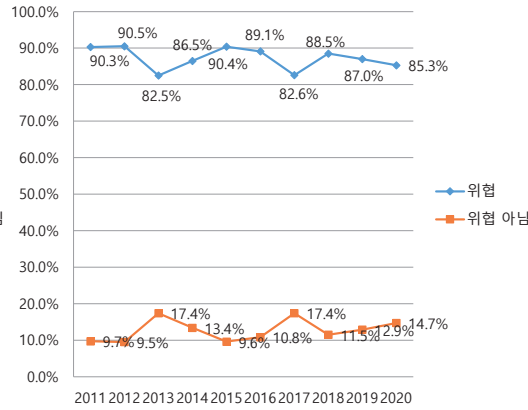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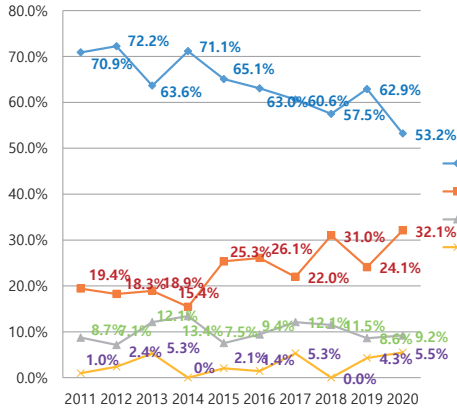
2015년	71(48.6%)
2016년	79(57.2%)
2017년	70(53.1%)
2018년	49(56.3%)
2019년	54(46.6%)
2020년	48(44.5%)

-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낮아진 것과 더불어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대남 위협인식이 46.6%에서 44.5%로 2.1%p 감소했음
- 2019년 조사에서는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과 달리 대남 위협인식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음
- 2015년 이후로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주민은 남한이 무력도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높은 수준이 아님

Ⅲ.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2. 대남 북핵위협 인식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으로 생각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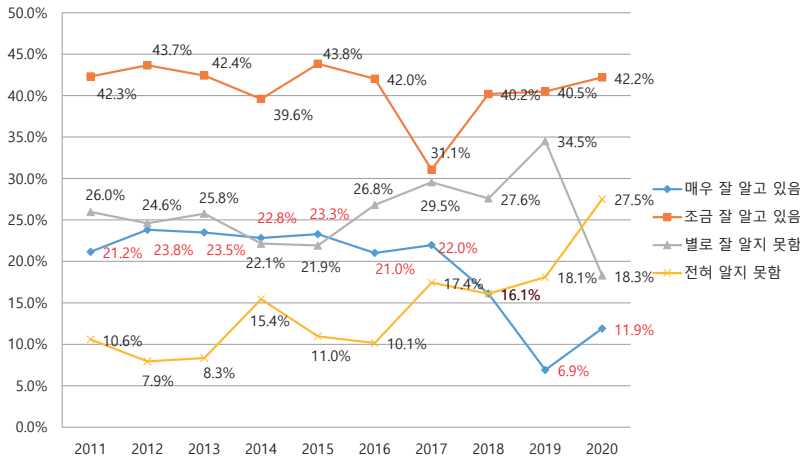
구분	위협	위협 아님
2016년	123(89.1%)	15(10.9%)
2017년	109(82.6%)	23(17.4%)
2018년	77(88.5%)	10(11.5%)
2019년	101(87.0%)	15(12.9%)
2020년	93(85.3%)	16(14.7%)

-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이라는 응답은 2019년 87.0%에서 2020년 85.3%로 감소했음
- 2018년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서도 '매우 위협'이라는 응답률은 57.5%에서 62.9%로 상승했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53.2%로 9.7%p 감소했음
- 반면, '다소 위협'이라는 응답률은 2018년 31.0%에서 24.1%로 감소했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24.1%에서 32.1%로 8.0%p 증가했음
- 변화는 있으나 조사 이래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90.3%-90.5%-82.5%-86.5%-90.4%-89.1%-82.6%-88.5%-87.0%-85.3%)

Ⅳ.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1. 대북지원 인지도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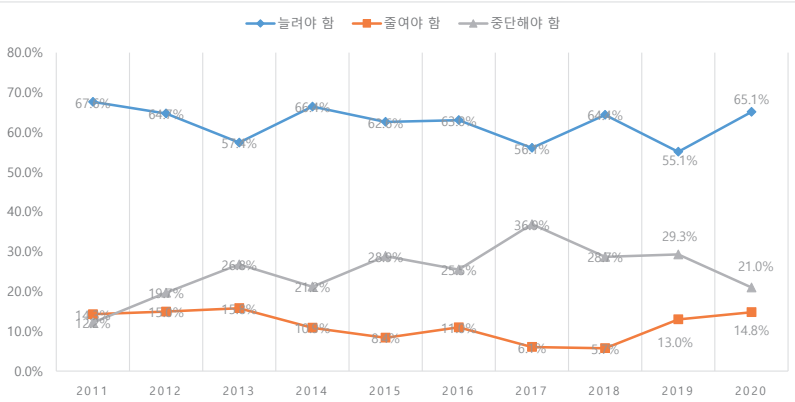
구분	알고 있음	알지 못함
2016년	87(63.0%)	51(37.0%)
2017년	70(53.0%)	62(47.0%)
2018년	49(56.3%)	38(43.7%)
2019년	55(47.4%)	61(52.6%)
2020년	59(54.1%)	50(45.8%)

-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2019년 47.4%에서 2020년 54.1%로 증가하였음
- 반면, '알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2019년 52.6%에서 2020년 45.8%로 감소했음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2. 대북지원 규모 평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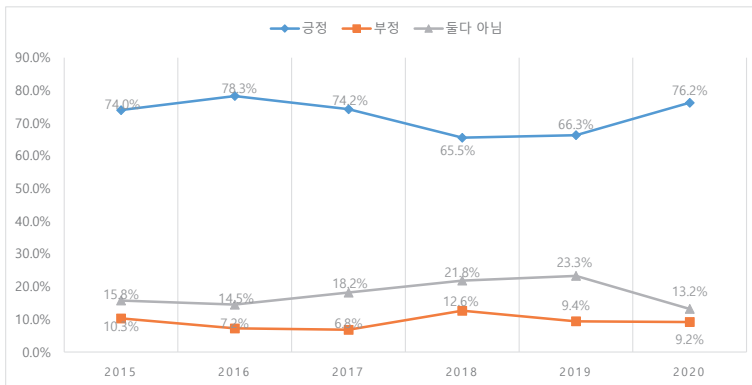
구분	늘려야 함	줄여야 함	중단
2016년	87(63.0%)	15(11.0%)	35(25.5%)
2017년	74(56.1%)	8(6.1%)	48(36.9%)
2018년	56(64.4%)	5(5.7%)	25(28.7%)
2019년	64(55.1%)	15(13.0%)	34(29.3%)
2020년	70(65.1%)	16(14.8%)	22(21.0%)

-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55.1%에서 2020년 65.1%로 10.0%p 증가했음
- 한편,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에서 21.0%로 감소했음
-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률 증가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률 감소는 '협력대상' 응답률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음
- 그러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13.0%에서 14.8%로 증가했음
- 이는 남북이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이지 '지원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거나,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
- '줄여야 한다'는 응답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3.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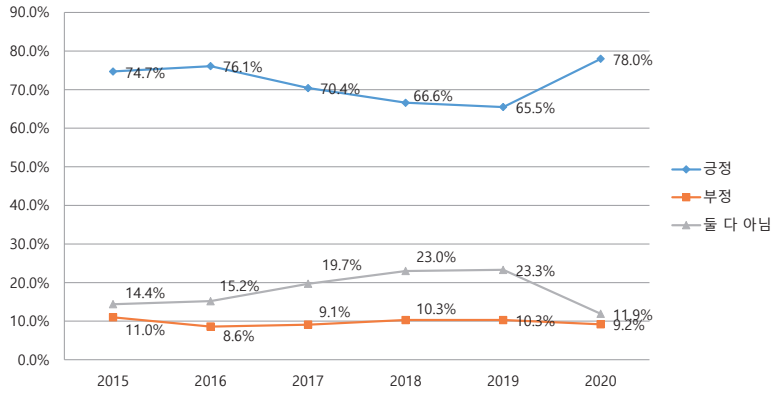
구분	긍정	부정	둘다 아님
2016년	108(78.3%)	10(7.2%)	20(14.5%)
2017년	98(74.2%)	9(6.8%)	24(18.2%)
2018년	57(65.5%)	11(12.6%)	19(21.8%)
2019년	77(66.3%)	11(9.4%)	27(23.3%)
2020년	83(76.2%)	10(9.2%)	15(13.2%)

- 긍정적 평가는 2019년 66.3%에서 2020년 76.2%로 증가했음
- 부정적 평가는 2019년 9.4%에서 2020년 9.2%로 큰 변화는 없었음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4. 대북경제 투자 평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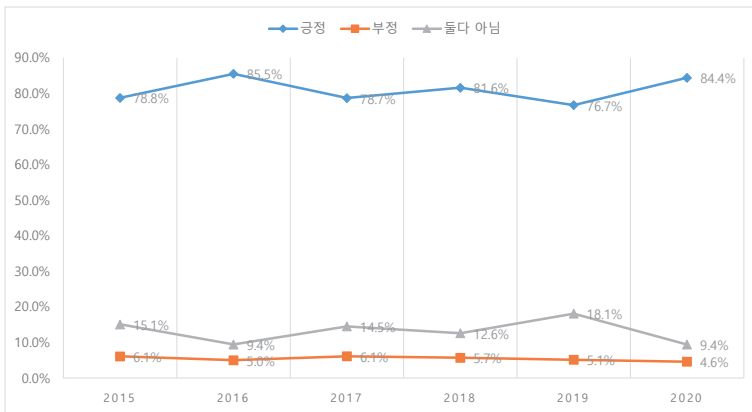
구분	긍정	부정	둘다 아님
2016년	105(76.1%)	12(8.6%)	21(15.2%)
2017년	93(70.4%)	12(9.1%)	26(19.7%)
2018년	58(66.6%)	9(10.3%)	20(23.0%)
2019년	76(65.5%)	12(10.3%)	27(23.3%)
2020년	85(78.0%)	10(9.2%)	13(11.9%)

- 북한주민은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긍정평가는 2020년에 78.0%로 전년대비 12.5%p 증가했고, 20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부정적 평가가 2019년 10.3%에서 2020년 9.2%로 비슷하지만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경제난과 시장화 추세로 인해 남한의 경제 투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IV.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5.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북한주민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긍정	부정	둘다 아님
2016년	118(85.5%)	7(5.0%)	13(9.4%)
2017년	104(78.7%)	8(6.1%)	19(14.5%)
2018년	71(81.6%)	5(5.7%)	11(12.6%)
2019년	89(76.7%)	6(5.1%)	21(18.1%)
2020년	92(84.4%)	5(4.6%)	11(9.4%)

- 개성공단 폐쇄에도 불구하고 긍정 평가는 2019년 76.7%에서 2020년 84.4%로 증가했음
- 둘다 아니라는 평가도 2019년 18.1%에서 9.4%로 감소했음

2020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요약)

문인철 (서울연구원)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가.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1) 북한주민의 긍정적 대남인식은 증가한 반면, 부정적 대남인식은 감소
 - 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50.5%에서 63.3%로 증가
 - 나)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률은 29.3%에서 18.3%로 감소
 - 다)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11.2%에서 7.3%로 감소
 - 라) 2018년의 상황이 이제야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 특기할 점은 남한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2018년 이후로 상승 추세

나.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 1)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개성공단과 5.18광주항쟁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 가) '개성공단'은 91.3%에서 87.9%로 감소
 - 나) '세월호사건'은 68.1%에서 72.5%로 상승
 - 다) '2002월드컵'은 55.2%에서 64.2%로 상승
 - 라) '88서울올림픽'은 63.0%에서 65.1%로 상승
 - 마) '5.18광주항쟁'은 전년도와 같은 85.3%
 - 바) '4.19혁명'은 69.8%에서 73.4%로 상승
 - 사)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추가한 '촛불집회'는 60.6%, '1997 IMF외환위기'는 28.4%, '케이팝'은 28.5%

2.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인식

가.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경험 정도

- 1) 남한문화를 접했다고 응답한 북한주민의 응답률은 전년도보다 하락(91.4%→82.5%)
 - 가) '자주 접함'에 대한 응답률은 2019년 47.4%에서 2020년 43.1로 감소
 - 나) '한두 번 접함'에 대한 응답률도 44.0%에서 39.4%로 감소
 - 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9년 8.6%에서 2020년 17.4%로 증가

나.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친숙도

- 1)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한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친숙도는 매우 높은 수준
 - 가) 남한문화를 접했을 때 친숙했다는 응답률은 94.4%에서 92.5%로 소폭 감소
 - 나) 반면, 친숙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2019년 3.7%에서 2020년 7.5%로 증가
 - 라) 친숙하다는 응답률은 2011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여 90%대를 유지

다.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유통경로

- 1) 남한문화 유통경로 비중은 이전 조사들과 같은 모습
 - 가) ‘주변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함’ >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함’ > ‘외국 나갔을 때 접함’ >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함’
 - 나)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에게서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67.6%에서 65.9%로 감소
 - 다) ‘주변 사람들(친척, 이웃, 친구 등)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은 20.4%에서 23.1%로 증가
 - 라) ‘외국 나갔을 때 접했다’는 응답은 5.6%에서 4.4%로 감소
 - 마) ‘시장에서 직접 구하여 접했다’는 응답은 2.8%에서 3.3%로 증가

라. 북한주민의 남한문화 호감도 변화

- 1) 남한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했다(매우+약간 증가)는 응답은 2019년 89.8%에서 2020년 90.2% 소폭 증가
 - 가)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67.6%에서 72.5%로 상승
 - 나)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22.2%에서 17.4%로 감소
 - 다) ‘변화 없다’는 응답률은 8.3%에서 4.3%로 감소

마.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 1) 북한주민은 남북한 간에 이질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그 수준은 높음
 - 가) 2019년도와 비교해 주목할 만큼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나) ‘선거방식(96.5% → 97.2%)’을 이질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
 - 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92.2% → 93.6%)’
 - 라) 세 번째는 ‘언어사용(92.3% → 92.7%)’
 - 마) 네 번째는 ‘생활풍습(82.5% → 82.5%)’
 - 바) 다섯 번째는 ‘돈에 대한 중시(76.8% → 72.5%)’
 - 사) 여섯 번째는 ‘가족중시(63.8% → 69.7%)’

3. 북한주민의 북핵 및 대남위협 인식

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1)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대남 위협인식은 46.6%에서 44.5%로 2.1%p 감소
 - 가) 2019년 조사에서는 남한을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과 달리 대남 위협인식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음
 - 나)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낮아진 것과 더불어 북한주민의 대남 위협인식도 낮아졌음
 - 다) 2015년 이후로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주민은 남한이 무력도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높은 수준은 아님

나. 대남 북핵위협 인식

- 1) 북한주민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이다'라는 응답은 2019년 87.0%에서 2020년 85.3%로 감소했음
 - 나) 2018년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서도 '매우 위협'이라는 응답률은 57.5%에서 62.9%로 상승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53.2%로 9.7%p 감소했음
 - 다) '다소 위협'이라는 응답률은 2018년 31.0%에서 24.1%로 감소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24.1%에서 32.1%로 8.0%p 증가했음
 - 라) 변화는 있으나 조사 이래로 90%에 육박하는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는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님

4.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

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도

- 1) 2019년 조사와 달리 다시 '알고 있다'는 응답과 '알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역전되었음
 - 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19년 47.4%에서 54.2%로 상승했음
 - 나) '알지 못함'이라는 응답은 52.6%에서 45.8%로 하락했음

나. 대북지원 규모 평가

- 1)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이후로 최고치임
 - 가)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5.1%에서 65.1%로 증가
 - 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13.0%에서 14.8%로 증가
 - 다)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에서 21.0%로 감소
 - 라)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음
 - 마) 북한 주민은 남북이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이지 지원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 1)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는 긍정적임
 - 가)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긍정 평가는 2019년 66.3%에서 2020년 76.2%로 증가
 - 나) 부정적 평가는 2019년 9.4%에서 2020년 9.2%로 소폭 감소

라. 대북경제 투자 평가

- 1) 북한주민의 남한의 대북경제 투자에 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가) 긍정 평가는 2020년에 78.0%로 전년대비 12.5%p 증가했고, 201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
 - 나) 부정 평가는 2019년 10.3%에서 2020년 9.2%로 비슷하지만 감소
 - 다) 경제적 어려움과 시장화 확대로 외부로부터의 경제 투자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마.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

1) 개성공단에 관한 북한주민의 평가는 긍정적

가) 개성공단 폐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긍정적 평가는 2019년 76.7%에서 2020년 84.4%로 증가

나)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평가는 2019년 18.1%에서 2020년 9.4%로 감소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2부 | 주민의식

발표 8

북한실태 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실태 인식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목 차

1. 정치의식

- 주체사상 자부심
- 김정은 지지도
- 김정은 직무 평가
- 정부비판행위
- 핵무기 보유
- 정권유지 예상 기간

2. 경제의식

- 기대 소득수준
- 직장 내 생산규율 평가

- 경제 악화 원인
- 경제체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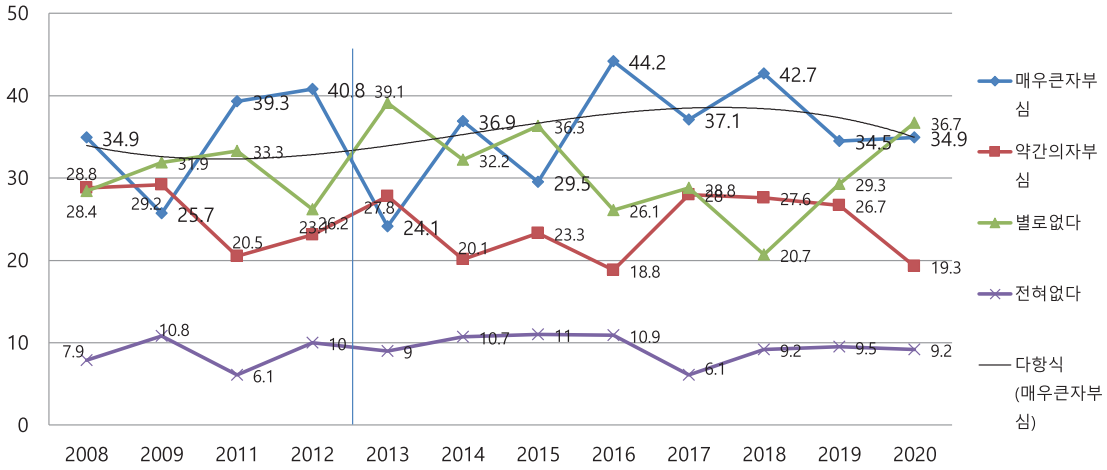
3. 사회통제의식

- 사회통제 유지
- 생활총화 출석률
- 지리적 이동
- 외부소식 접촉 경로
- 언론에 대한 신뢰도
- 집단과 개인 우선 순위

1. 정치의식

1-1. 주체사상 자부심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0년 '있다'와 '없다'의 비율 54:46, 지난2년 동안 70.3%→61.2%→54.2%로 **16.4%p** 감소
- 김정은 집권 이후 9년 동안 주체사상 자부심 **평균 60.0%, 매우 큰 자부심 평균 36.1%**
- 2018년 이후 **지난 2년 연속** 북한의 대외 위상 강화 및 정치선전 불구에도 **사상자부심 하락**, 경제침체로 인한 정치의식 약화 가능성

• 주체사상 자부심은 연령, 직업과 상관관계(2011-2020)

주체사상 자부심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자부심	빈도	254	173	160	104	35	732
있다	%	61.9%	60.5%	58.8%	56.2%	53.0%	59.4%
자부심	빈도	156	113	112	81	31	498
없다	%	38.1%	39.5%	41.2%	43.8%	47.0%	40.4%
합계	빈도	410	286	272	185	66	1,21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25 연령이 적을수록 자부심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자부심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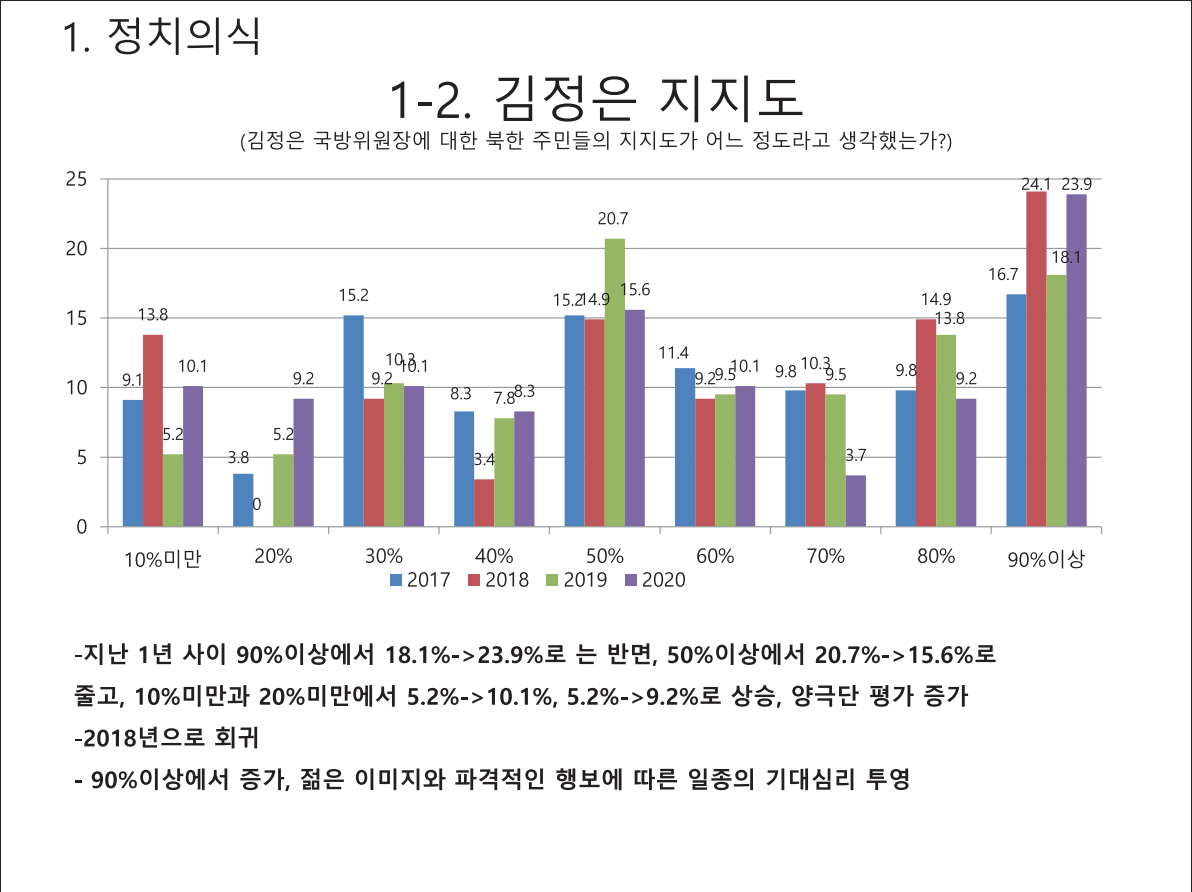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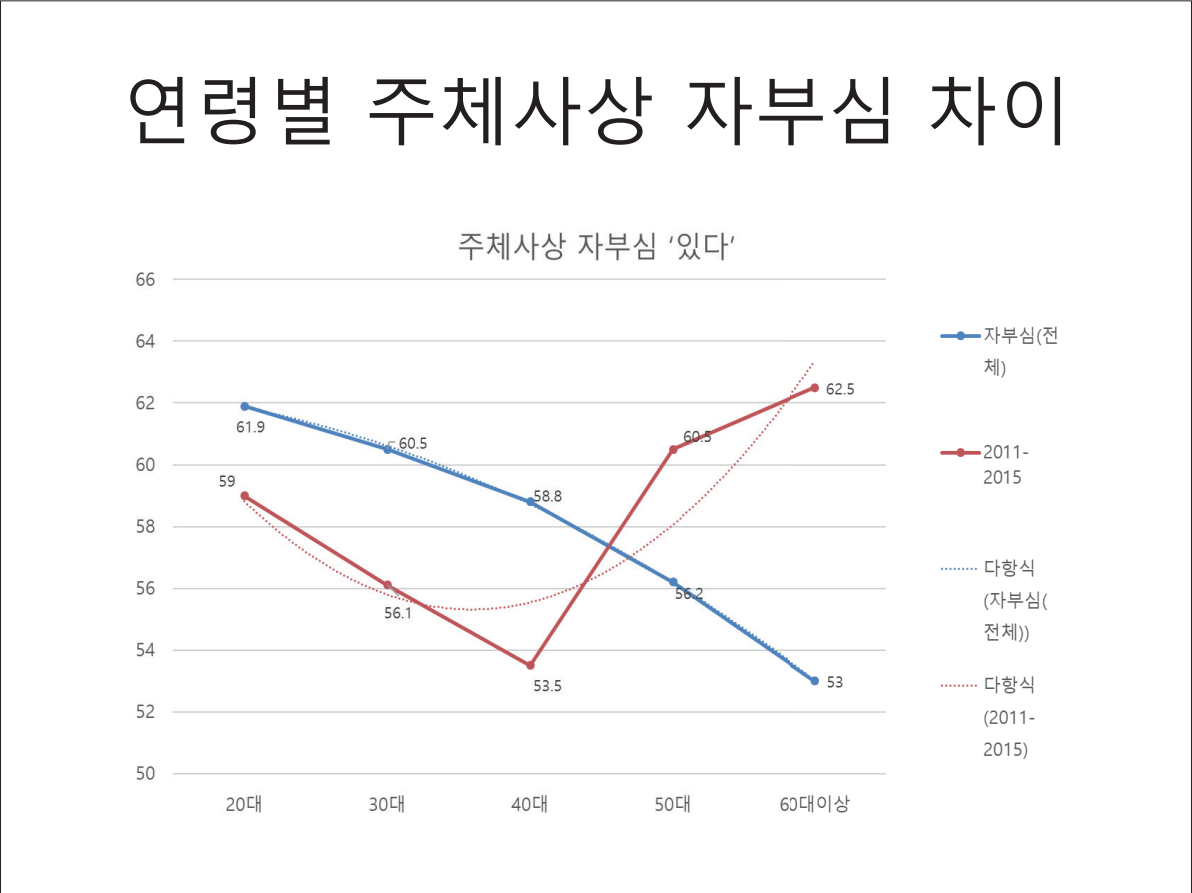
집권초기(2011-2015)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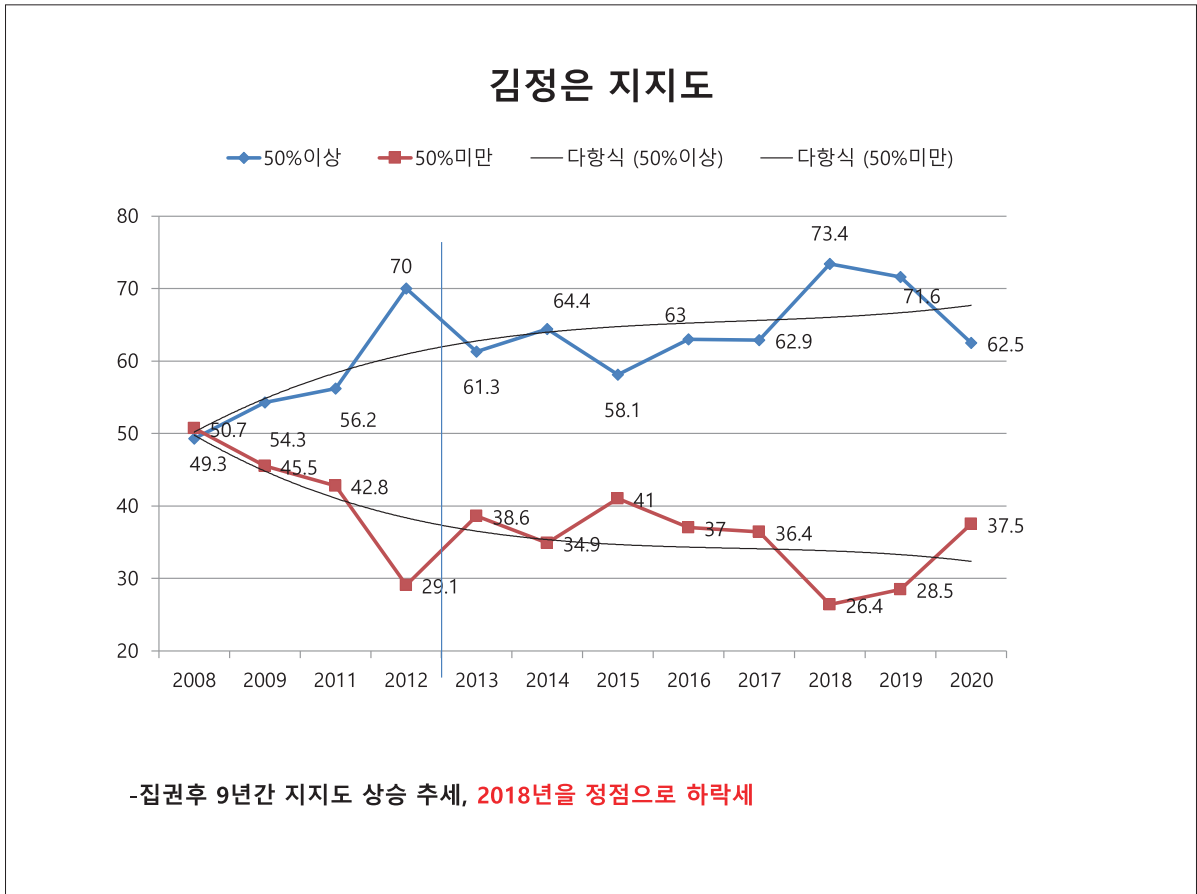
	20s	30s	40s	50s	60s
Yes	59.0	56.1	53.5	60.5	62.5
No	41.0	43.9	46.5	39.7	37.5

p=0.017

- 김정은 집권 후반기 60대 이상 연령층 주체사상 의식 약화

*주체사상자부심*비공식 직업, p=0.014; 주체사상자부심*공식직업, p= 0.035





김정은지지도, 연령 및 직업과 상관관계

김정은 지지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0%이상	71.1%	68.9%	55.6%	57.2%	50.7%

p=0.006

집권초기(2011-2015)와의 비교

	20s	30s	40s	50s	60s
Support Rate	71.2	66.2	55.3	59.8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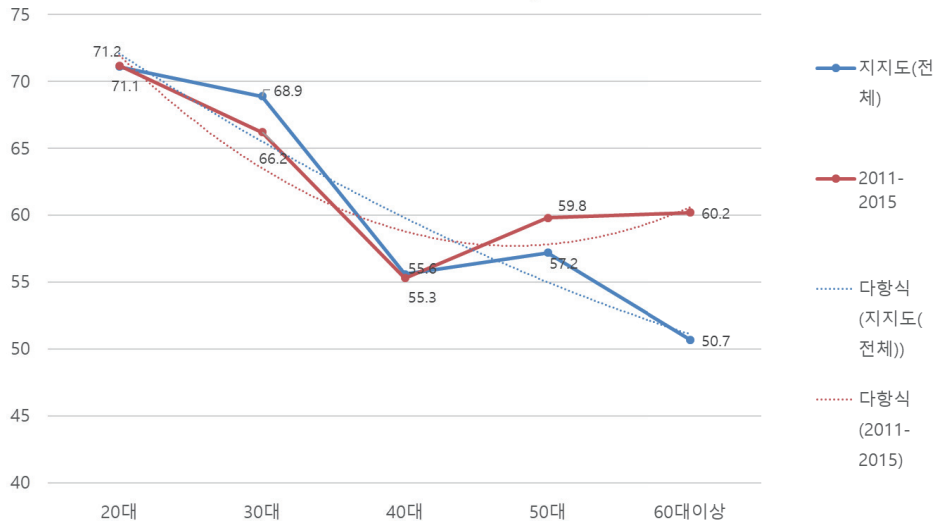
p=0.021

김정은 지지도	직업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학생	군인	외화벌이 일군	장사	가정부인
50%이상	68.7%	66.3%	58.7%	56.8%	62.6%	73.8%	48.1%	61.0%	64.7%

군인은 90%이상 지지 응답 32.8%로 가장 높음

연령별 김정은 지지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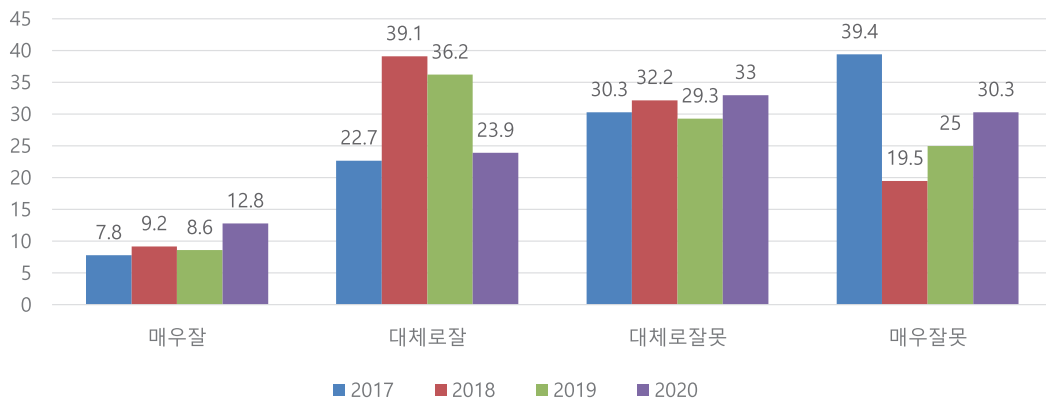
세대별 김정은 지지도 차이(50%이상 응답자)



1. 정치의식

1-3. 김정은 직무 평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써 직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2020년 잘하고 있다는 평가(매우 잘+대체로 잘)는 36.7%(12.8%+23.9%)로, 못하고 있다(대체로 잘못+매우 잘못) 63.3%(33.0%+30.3%)보다 26.6%p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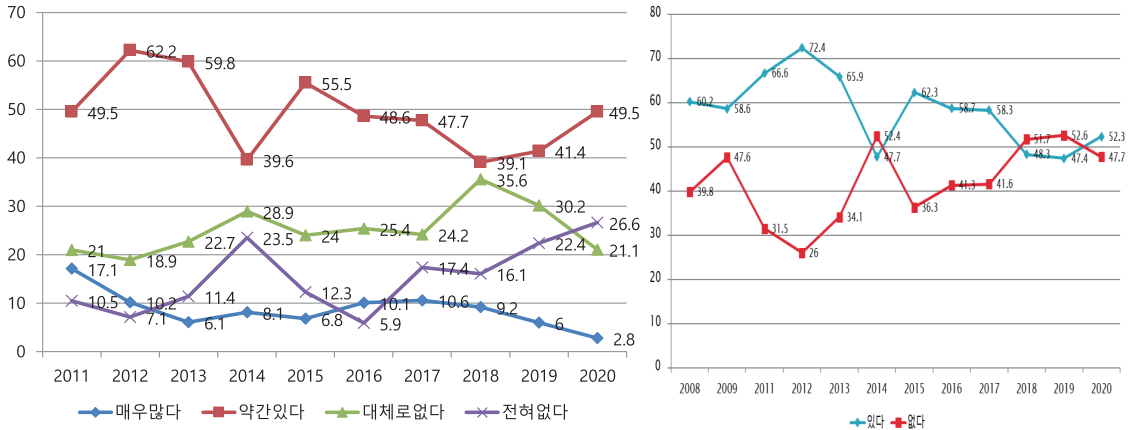
-최근 2년 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8.3%→44.8%→36.7%로 하락, 2018년 16.4%p 급상승 후 하락세

-장사유경험자 매우 잘못하고있다, 무경험자 매우 잘하고 있다 평가 우세(p=0.000)

-김정은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2018년 정점으로 하락세**

1. 정치의식 1-4.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 정도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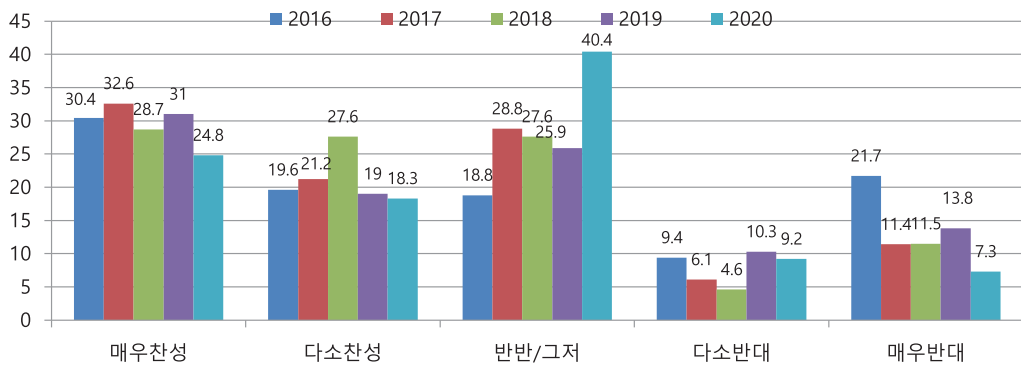


- 비판행위가 '있다'(52.3%)는 인식이 '없다'(47.7%)보다 4.6%p 높다
- 비판행위가 '없다' 2015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 금년 하락, 정치사회 안정 추세에서 최근 1년 비판 소폭 증가
- "약간 있다" 응답 41.4%→49.5%로 증가, 소극적 비판에 머물고 있고, '매우 많다' 2.8%로 매우 적고 "전혀 없다" 22.4%→26.6%로 증가하여 정치적 안정 분위기
- 지역(p=0.000), 평안>함경>양강>강원>자강; 장사경험(p=0.005): 장사유경험>무경험
- 직업(p=0.000), 외화벌이>사무원>장사>학생>노동자>군인>농민

1. 정치의식

1-5. 핵무기 보유 평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했는가?)



- 찬성(43.1%)이 반대(16.5%)보다 2배 많아 핵보유 긍정평가 유지, 그러나 '반반/그저그렇다' 40.4%로 증가
- 지난 2년 동안 '찬성' 56.3%→50.0%→43.1%로 13.2%p 감소,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
- 2018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등으로 핵보유 정당성 논리 다소 약화 가능성, 그러나 협상 실패, 자력갱생 추구 재선언 등으로 향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 존재
- 남성>여성(p=0.004), 당원>비당원>후보당원(p=0.025),

핵무기 보유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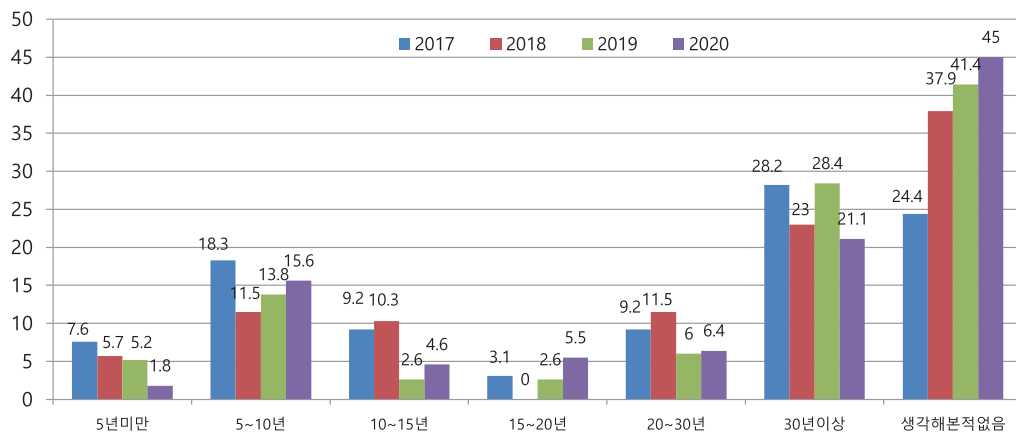
핵무기 보유 견해		연령대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매우 찬성했다	빈도	94	64	62	32	8	260
	%	32.0%	31.2%	33.2%	23.4%	21.6%	30.0%
다소 찬성했다	빈도	69	35	39	26	4	175
	%	23.5%	17.1%	20.9%	19.0%	10.8%	20.0%
반반/그저 그랬다	빈도	83	59	37	43	9	235
	%	28.2%	28.8%	19.8%	31.4%	24.3%	27.1%
다소 반대했다	빈도	19	18	17	14	5	75
	%	6.5%	8.8%	9.1%	10.2%	13.5%	8.6%
매우 반대했다	빈도	29	29	32	22	11	123
	%	9.9%	14.1%	17.1%	16.1%	29.7%	14.2%
빈도		294	205	187	137	37	86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6

1. 정치의식

1-6. 북한 정권 유지 기간 예상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 '생각해본적 없다' 45.0%로 가장 많고, '30년이상'이 21.1%로 66%가 북한정권 지속 가능성 장기예측

- '5년미만' 5.2% -> 1.8%로 감소한 반면, '생각해본적 없다'는 장기전망 지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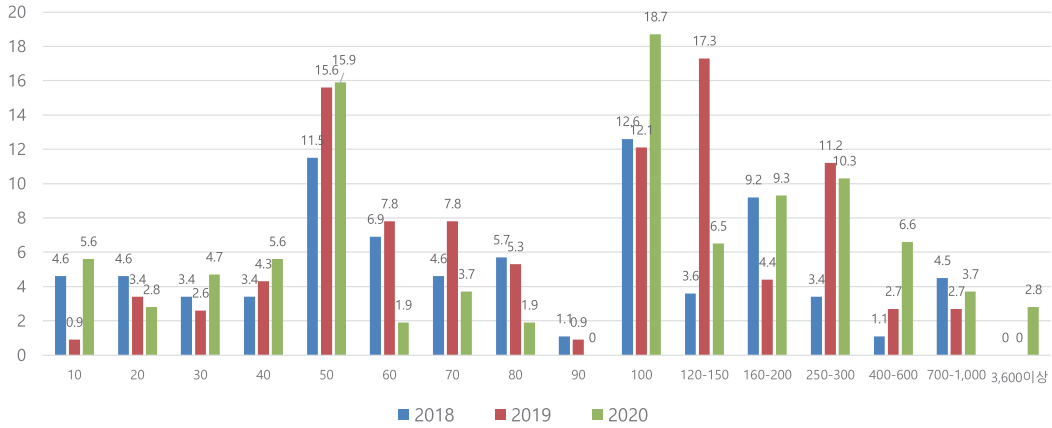
- 김정은 및 정치적 비판의식 2018년 정점으로 증가세, 그러나 김정은 집권초기 불안정감 해소 및 시장화 진전으로 북한 정권 장기 존속 가능성

2. 경제의식

2-1. 필요 월 소득 수준

(가족이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기대소득, 단위(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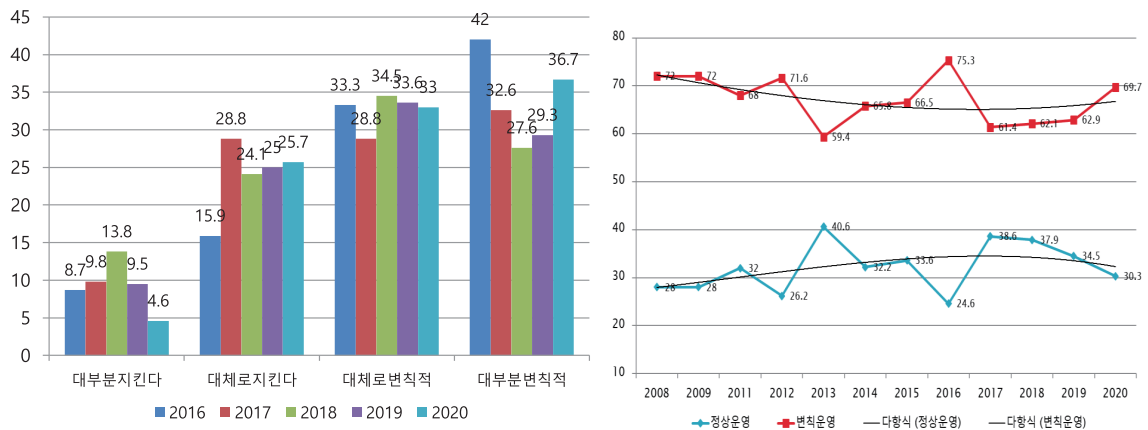


- 월 소득 500,000원은 비슷, 100만원 기대응답자 12.1%→18.7%로 상승
- 필요 월소득 50만원 이하에서 증가, 200만원 이상에서도 증가, 기대소득의 양극화

2. 경제의식

2-2. 직장 내 생산규율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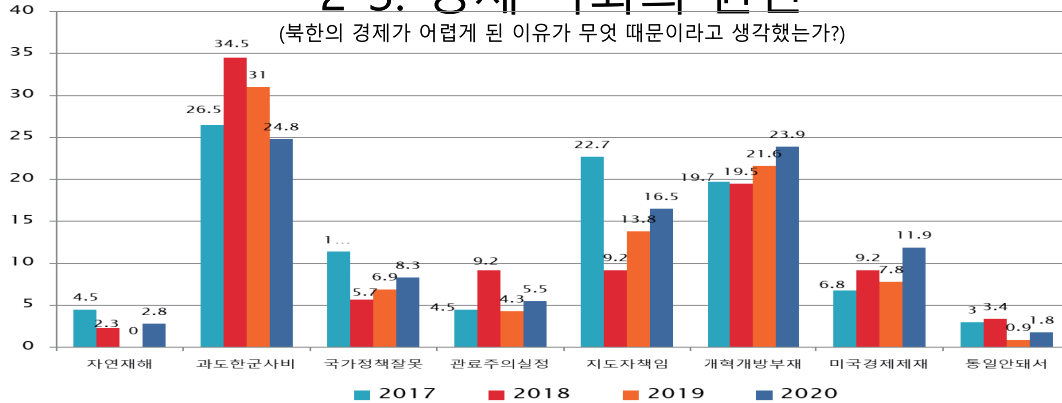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가?)



- '정상운영'은 30.3%, '변칙운영' 69.7%로 변칙운영이 2배, 1년사이 62.9%→69.7%로 상승,
- 소득증대를 위해 직장 바깥 시장 활동에 필요한 노동의 유연성 증대에 따른 결과
- 2017년 정상운영 상승 후 하락추세, 7차 당대회(2016년) 대비 생산규율 강화 후 이완
- 교육(p=0.001), 장사경험(p=0.000), 남한친척유무(p=0.000), 직업(p=0.000), 연령(p=0.013)

2. 경제의식

2-3. 경제 악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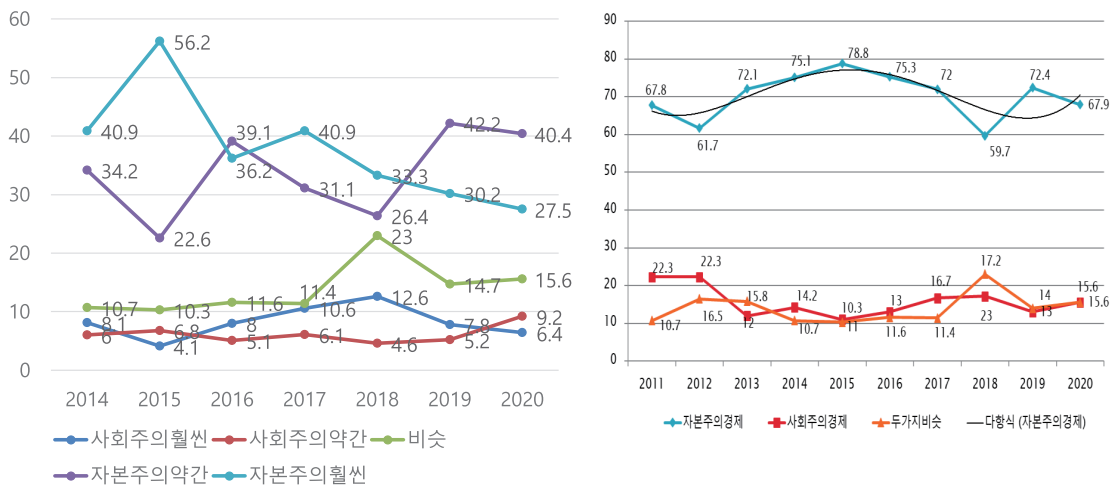


- 군사비 지출이 24.8%로 가장 많고, 개혁개방 부재 23.9%, 지도자 책임 16.5% 등의 순서.
- 최근 2년간 군사비지출 34.5%→31.0%→24.8%로 줄고, 지도자 책임은 9.2%→13.8%→16.5%로 증가
- 2018년을 기점으로 변화, 군사비 지출 이유 감소, 지도자 책임, 개혁개방 부재 상승
- 북한의식구조에 북한경제 침체원인을 체제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요인으로 인식, 미국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의식 낮으나 7.8%→11.9%로 소폭 증가
- 직업(p=0.000) 개혁개방부재 때문: 사무원, 장사 높고, 과도한군사비 때문: 군인,학생,사무원,전문가 높음; 간부관료주의: 농민 높고, 미국경제제재: 군인,외화벌이일꾼 높음.
- 교육(p=0.000) 군사비지출: 인민>전문대>고등중>대학; 지도자 때문: 대학>고등중>전문대>인민; 개혁개방부재: 대학>전문대>고등중>인민

2. 경제의식

2-4. 경제체제 선호도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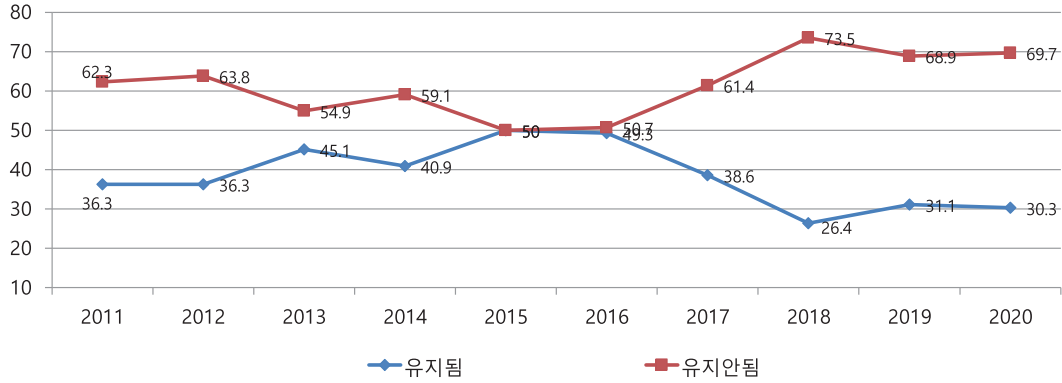


- 2020년 자본주의의 경제를 지지한다는 67.9%로 사회주의의 경제를 지지한다 15.6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 시장화의 진전으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
- 작년과 비교하여 사회주의의 경제 지지 응답 13.0%→15.6%로 소폭 증가
- 자본주의의 경제체제 지지 추세 2015년 정점으로 하락 후 반등

3. 사회통제의식

3-1. 사회통제 유지 정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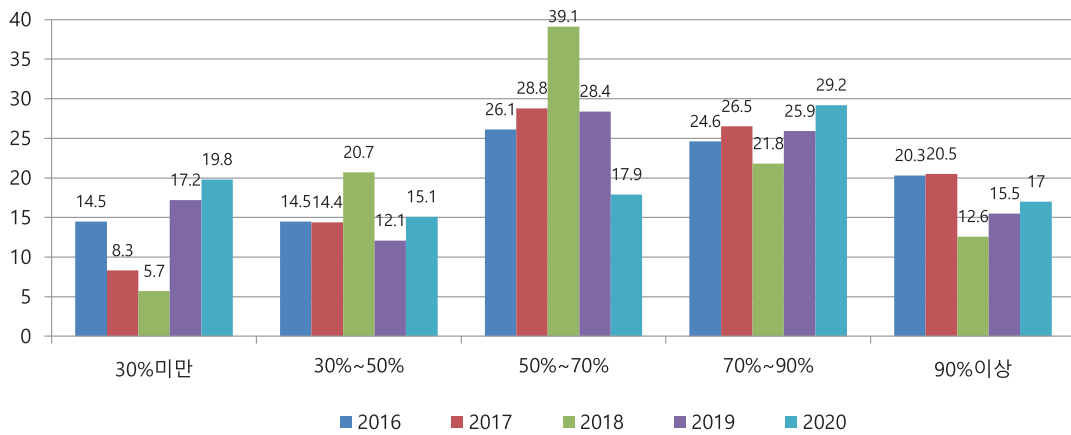


- 사회통제가 유지되고 있다 30.3%, 유지되지 않고 있다 69.7%로 '유지안됨'이 2배 이상 많음
-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2015-2016년에 사회통제 강화되었다가 이완되는 흐름
- 7차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동원 강화되었다가 당대회 이후 이완 분위기
- 2021.1 8차당대회 준비 위해 '80일전투' 수행으로 통제 강화 가능성 예상

3. 사회통제의식

3-2. 생활총화 출석률

(북한 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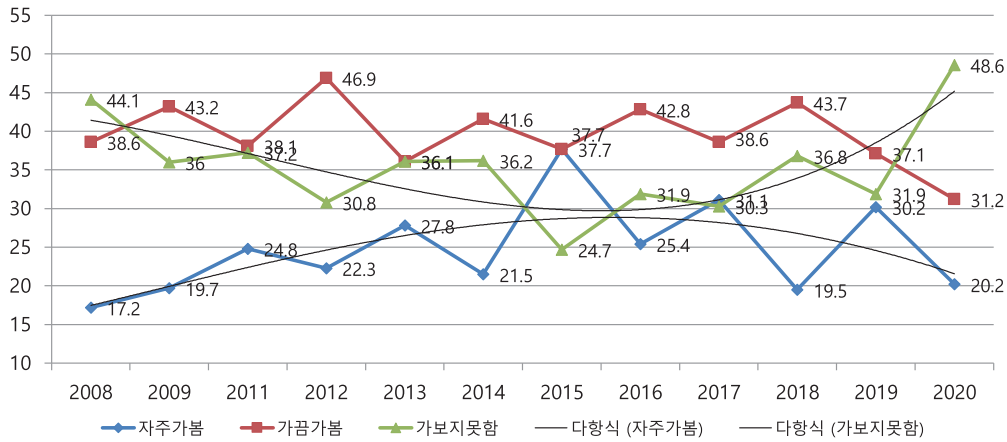


- 출석률은 70%이상 응답이 44.9%, 50%이상 응답은 64.2%
- 지난 1년 간 50~70%는 39.1%→28.4%→19.3%로 19.8%p 감소, 반면 70~90% 21.8%→25.9%→28.4%, 90%이상 12.6%→15.5%→16.5%로 증가
- 30%미만도 5.7%→17.2%→20.2%로 급상승, 생활총화 동원의 이원화 현상
- 당원>비당원>후보당원(p=0.007)

3. 사회통제의식

3-3. 다른 지역 방문 정도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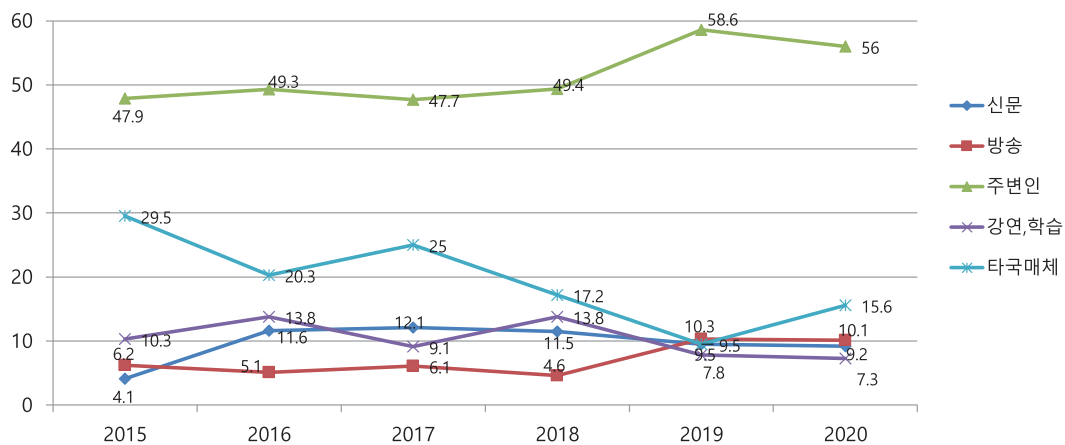


- '거의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31.9%→48.1%로 급상승, 유동성 67.3%→51.6%로 하락
- '자주 가보았다'와 '가끔 가보았다'는 응답은 30.2%→20.8%, 37.1%→31.1%로 각각 하락
- 2015년 이후 '거의 가보지 못했다'는 응답 상승세, 주민 지역 간 이동 감소
- 교육(p=0.000): '자주가봄' 대학(41.9%)>전문대(26.7%)>고등중(23.9%)>인민학교(21.7%)
- 당원(p=0.000): '자주가봄' 후보당원(50.0%)>당원(41.2%)>비당원(23.7%)
- 그 외에도 장사경험, 친척유무, 연령과 상관관계

3. 사회통제의식

3-4. 외부소식 접촉 경로

(외부 소식을 주로 어디서 들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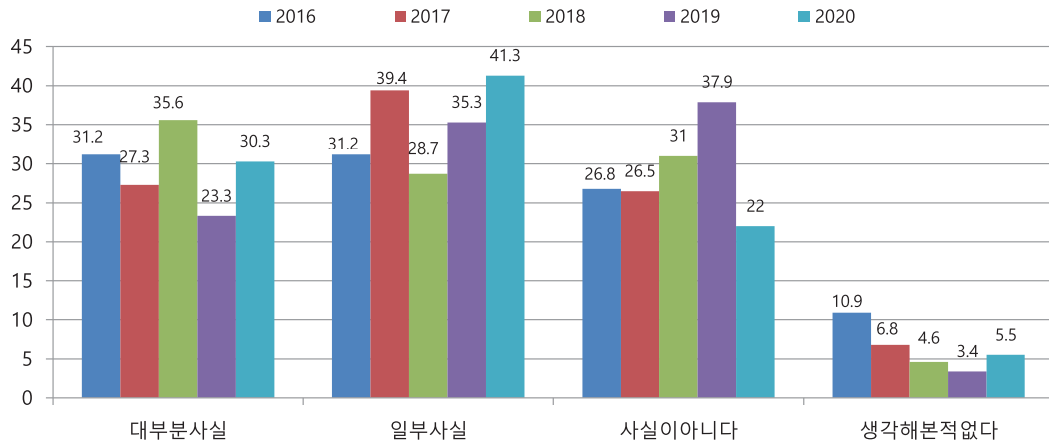


- 주변인을 통한 외부소식 접촉 56.0%도 압도적, 지난 1년간 58.6%→56.0% 2.6%p 감소
- 친척, 이웃, 친구 등을 통해 바깥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임.
- 신문, 방송을 통한 접촉 제한적
- 타국 매체(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방송, 통신, 삐라 등)를 통한 접근은 지난 1년 소폭 증가했으나, 2015년 이래 지속 감소 추세
- 직업, 장사경험, 연령과 상관관계

3. 사회통제의식

3-5. 언론에 대한 신뢰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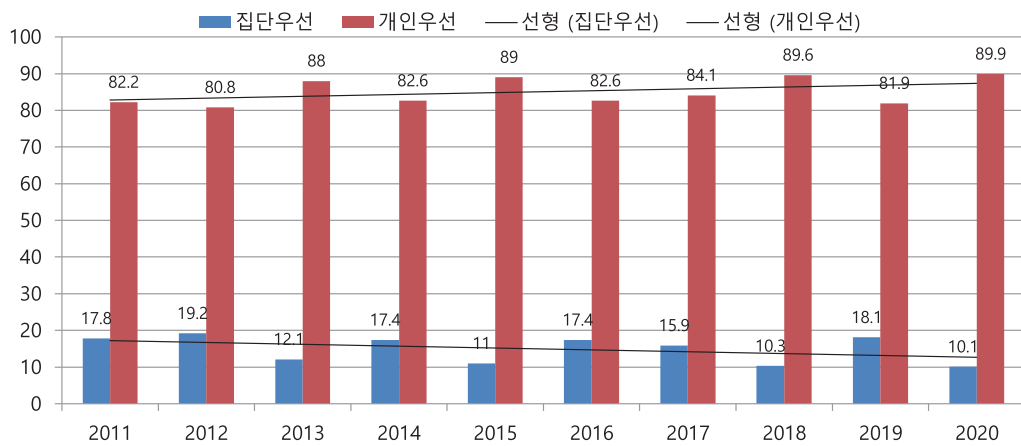


-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71.6%)이 아니라고 믿는 경향(22.0%)보다 우세.
- 지난 1년 동안 '대부분 사실', '일부 사실' 증가 등 '사실' 증가로 신문, 방송 보도내용 신뢰 강화
- 2017~2019년 신문, 방송 보도내용 불신 경향 증가하다 2020년 신뢰 증가,
- 당원여부와 상관관계: 신뢰, 당원 > 비당원

3. 사회통제의식

3-6. 집단과 개인의 우선 순위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는가?)



- 개인우선이 훨씬 높은 순위 차지, 89.9%, 집단우선은 10.1% (개인우선:집단우선 9:1)
- 지난 1년 동안 개인우선 81.9% -> 89.9%로 증가, 집단우선 18.1% -> 10.1%로 감소
- 사회의 통제를 받고 생활총화 등 조직행사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을 중시하는 태도 지속
- 장사경험, 직업, 친척유무, 성별과 상관관계

소결론

- 2020년 북한주민 의식 지형은 2018년 형성된 전환적 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활성화로 개혁개방의식 커지고 있으나, 사회통제의 실질적 강화로 정치사회적 안정 유지
- 첫째, 정치의식은 안정되어 가던 추세가 2018년을 기점으로 꺾이거나 주춤하는 현상 지속
 - 주체사상 자부심, 김정은 지지도, 김정은 직무, 핵무기 보유 평가 낮아지고 정부비판행위 늘어남
 - 그러나 소극적 비판에 머물고 정권장기존속 예상 증가 등 안정분위기, 집권9년차의 정치적 피로감
- 둘째, 경제의식은 시장활성화에 따라 생산규율약화와 개혁개방 기대 심리 고조 및 기대소득 양극화 진행
 - 경제침체 미국제재 때문 의식 낮으나 7.8%→11.9%로 소폭 증가, 북한 당국 선전 효과 가능성
- 셋째, 사회통제 강화로 주민유동성 감소, 총화출석증가, 대내보도 신뢰 증가
 - 김정은 집권 이후 2015-16년까지 사회통제 강화, 이후 완화되는 흐름에서 최근 2년 사이 통제 강화

- 2011-2020년 북한주민의식 지형분석에서 **세대**와 **직업**은 주체사상, 김정은지지도 등 여러 항목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
 - 젊은층일수록 정권지지 높고, 60대이상 노년층 정치비판의식 진행
 - 당원여부, 장사유무, 남한친척유무, 교육, 성별 등은 부분적으로 주민의식과 상관관계
- 향후 김정은 집권 10년차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올해 추세 지속 예상되나,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 마련 가능성

북한실태인식 2020 (요약)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I. 정치의식

- 정치의식은 김정은 집권이후 안정되어 가던 추세가 2018년을 기점으로 꺾이는 현상 지속
 - 주체사상 자부심 63.0%(2016)→65.1%(2017)→70.3%(2018)→61.2%(2019)→54.2%(2020)
 - 김정은 지지도 63.0%(2016)→62.9%(2017)→73.4%(2018)→71.6%(2019)→62.5%(2020)
 - 김정은 직무평가 하락 48.3%(2018)→44.8%(2019)→36.7%(2020)
 - 정부비판행위 상승 48.3%(2018)→47.4%(2019)→52.3%(2020)
 - 핵무기 보유 평가 하락 56.3%(2018)→50.0%(2019)→43.1%(2020)
- 북한의 대외 위상 강화와 정치선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로 인한 정치의식 약화 가능성과 집권 9년차에서 오는 정치적 피로감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소극적 비판에 머물고 정권장기존속 예상 증가 등 안정분위기
- 2011~2020년 자료분석에서 정치의식은 연령 및 직업에 따른 차이 존재
 - 젊은층일수록 강한 정치사상의식
 - 주체사상자부심: 20대(61.9%)>30대(60.5%)>40대(58.8%)>50대(56.2%)>60대이상(53.0%)
 - 김정은지지도: 20대(71.1%)>30대(68.9%)>50대(57.2%)>40대(55.6%)>60대이상(50.7%)
 - 집권 초기(2011~2015)와 비교하면 60대이상 노년층의 사상의식 약화 진행
 - 직업별로는 군인·노동자·농민 높고, 상인·학생 중간, 사무원·전문가·외화벌이일군 낮음
 - 지역, 교육, 당원여부, 장사여부, 남한내 친인척유무, 성별 등의 변수와 부분적 상관관계

II. 경제의식

- 경제의식은 시장활성화에 따라 생산규율약화와 개혁개방 기대심리 고조 및 기대소득 양극화 진행
- 필요 월 생활비 수준, 100만원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만원 순이며, 50만원 이하와 200만원 이상에서 동시에 증가, 기대소득의 양극화
 - 100만원 응답자 12.1%→18.7%로 상승
- 소득증대를 위해 직장 바깥 시장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참여 및 노동유연성 증대로 직장 내 생산규율 약화, 기업생산 가동률 50%에서 30%까지 하락했을 가능성
 - 변칙운영(69.7%)이 정상운영(30.3%)보다 2배 높음
 - 지난 1년 사이 변칙운영 62.9%→69.7%로 상승

-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으로 '과도한 군사비' 이유 줄고 '개혁개방부재', '지도자책임' 이유 증가는 북한당국의 경제침체 정당화 논리 약화 및 개혁개방 기대심리 고조
 - 그러나 '미국제재 때문' 7.8%→11.9%로 소폭 증가, 북한당국 선전 효과 가능성 존재

III. 사회통제의식

- 사회통제가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유동성 감소, 총화출석증가, 대내보도 신뢰 증가
 - 사회통제 31.1%→30.3%로 유지
 - 주민유동성 67.3%→51.9%로 감소
 - 생활총화 출석률 소폭 상승, 70-90%에서 25.9%→29.2%, 90%이상에서 15.5%→17.0%
 - 언론신뢰 58.6%→71.6%로 상승
- 김정은 집권 이후 2015~2016년까지 사회통제 강화되던 추세에서 이후 완화되는 흐름 속에 주민유동성 감소, 생활총화 강화, 언론신뢰 상승 등으로 보아, 직접적인 사회통제 보다는 건설 프로젝트나 지역 내 경제활동 동원 등으로 실질적인 사회통제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 간 이동 '거의 가보지 못했다' 31.9%→48.1%로 급상승

IV. 소결론

- 2020년 북한주민 의식 지형은 2018년 형성된 전환적 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시장활성화로 개혁개방의식 커지고 있으나, 사회통제의 실질적 강화로 정치사회적 안정 유지
- 2011~2020년 북한주민의식 지형분석에서 세대와 직업은 주체사상, 김정은지지도 등 여러 항목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
 - 젊은층일수록 정권지지 높고, 60대이상 노년층 정치비판의식 진행
 - 당원여부, 장사유무, 남한친척유무, 교육, 성별 등은 부분적으로 주민의식과 상관관계
- 향후 김정은 집권 10년차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올해 추세 지속 예상되나,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반전의 계기 마련할 가능성 존재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2부 | 주민의식

발표 9

남한 적응 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주민의식과 사회변동 조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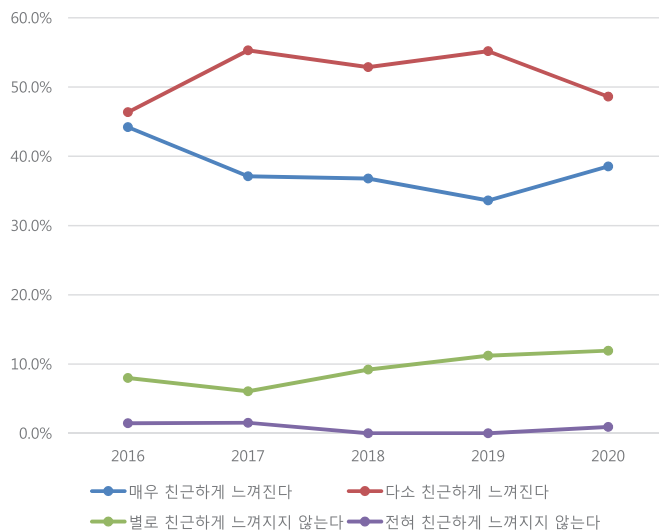
2020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남한주민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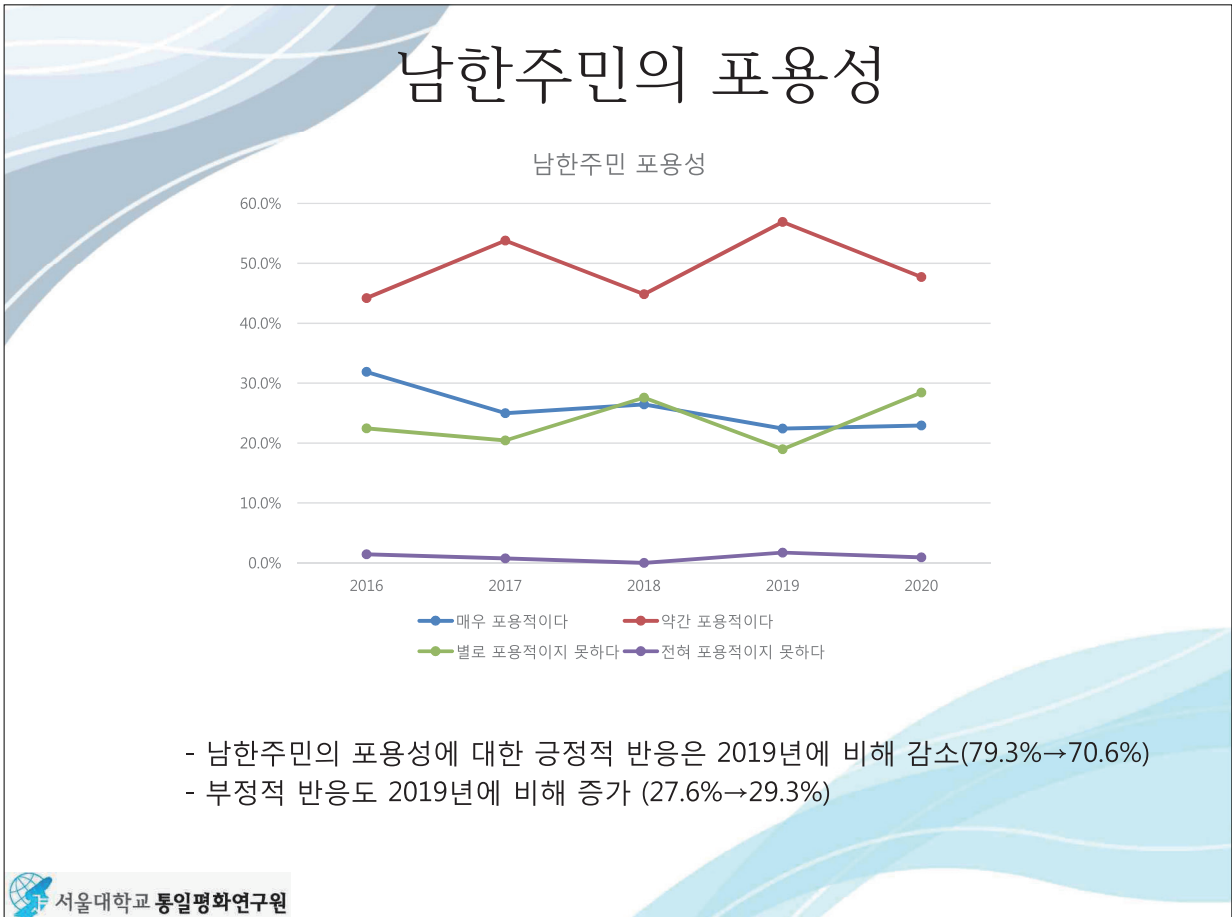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최근 5년간 조사 중 최저 (87.1%)로 나타남. 전년도보다 1.7% 감소치.

-부정적 반응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 (12.8%) 전년도 보다 1.6% 증가.

-2017년을 기점으로 계속하여 긍정반응은 감소, 부정반응은 증가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 (2019)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48.7	46.2	2.6	2.6	100
다소 친근	9.4	68.8	21.9	0	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7.7	30.8	53.8	7.7	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	0	0	0	0
응답수(빈도)	26	66	22	2	11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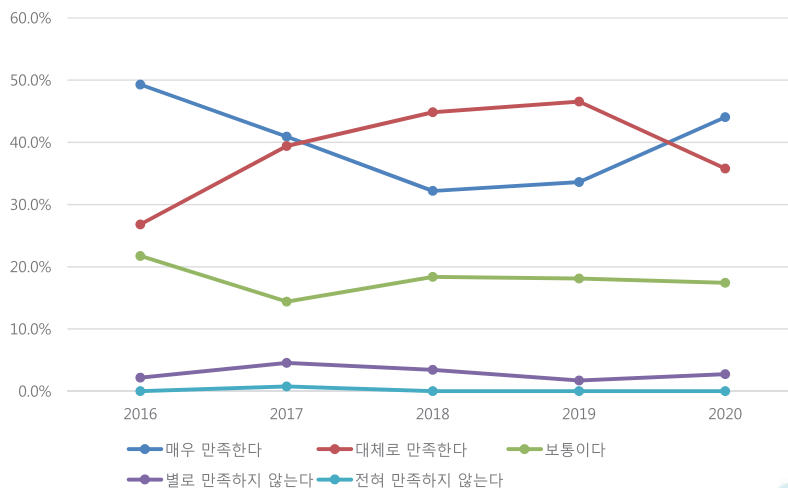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 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 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47.6	35.7	14.3	2.4	100
다소 친근	7.5	58.5	34.0	0	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7.7	38.5	53.8	0	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	100	0	0	100
응답수(빈도)	25	52	31	1	10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생활 만족도

남한생활 만족도



- 남한 생활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 (80.2% → 79.8%), 불만족은 1.7% → 2.8%로 다소 감소

- 전반적인 만족도는 최근 3년간 80%선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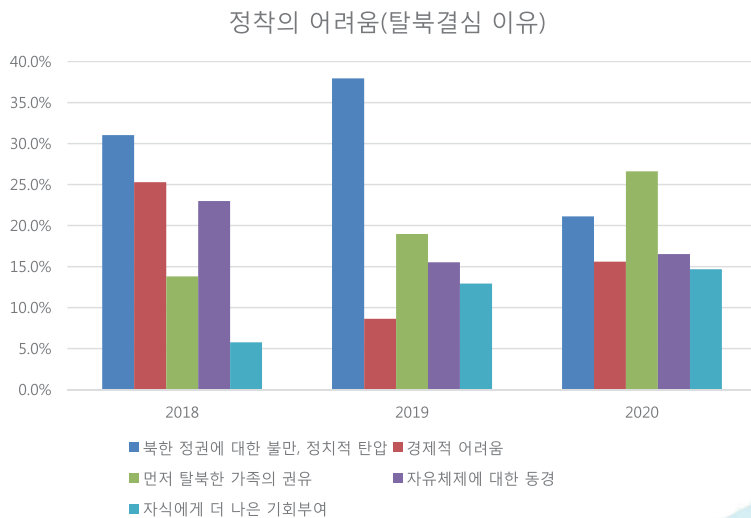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 후회 정도

	매우 후회	약간 후회	별로 후회 안함	전혀 후회 안함	계
매우 만족	0	2.1	10.4	87.5	100%
대체로 만족	2.6	15.4	35.9	43.6	100%
보통	0	47.4	42.1	10.5	100%
별로 만족안함	0	33.3	33.3	33.3	100%
계	1	17	28	62	109

-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자 18명 중 5명이 남한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응답을 함.
-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반드시 “남한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음. 후회의 요인을 분석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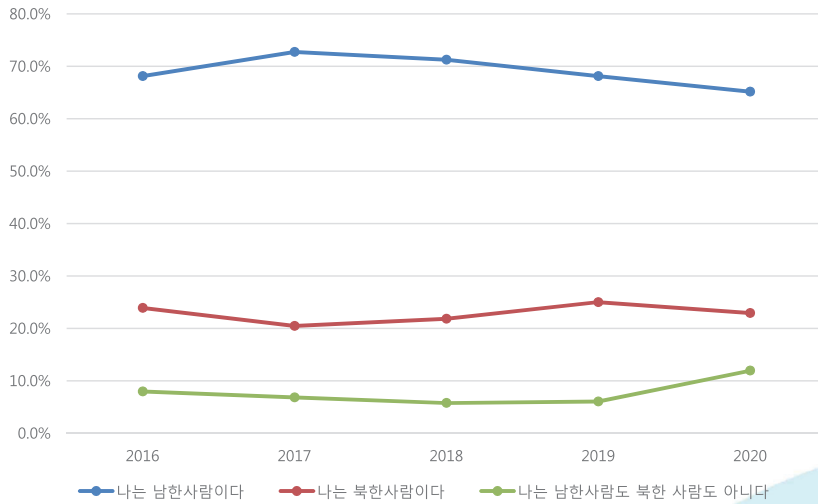
탈북결심 이유 (2018-)



- 기탈북 가족권유>정권에 대한 불만>자유체제 동경>자식의 미래>경제적 어려움>자식에게 더 나은 기회 부여 순으로 나타남
- 2019년과 비교해볼 때 기탈북 가족의 권유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한 특징

국민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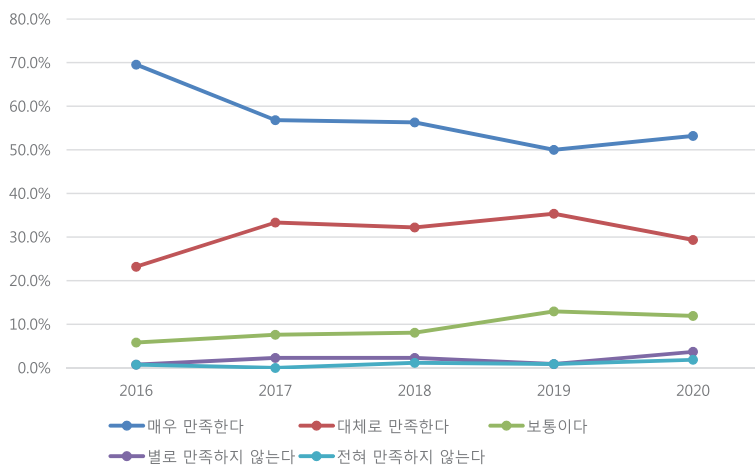
국민의식



- 2017년 이래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71.3%→68.1%→65.1%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
-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은 11.9%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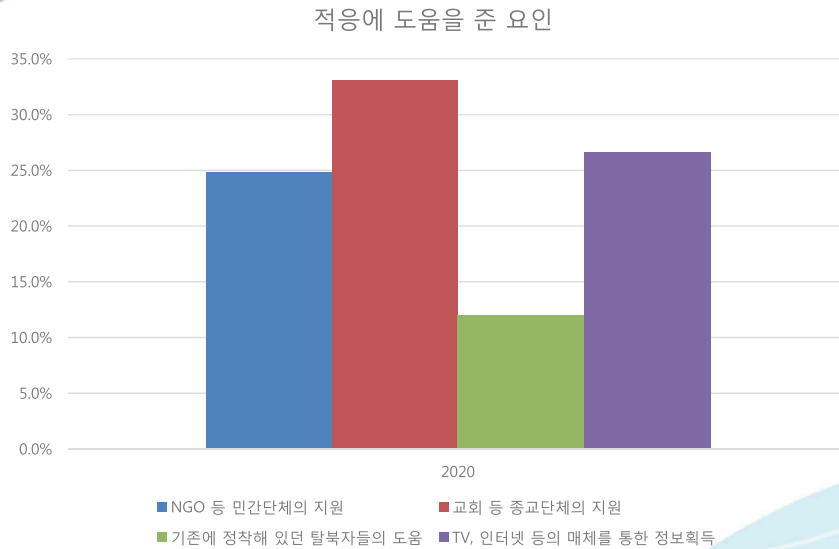
지원정책 만족도

지원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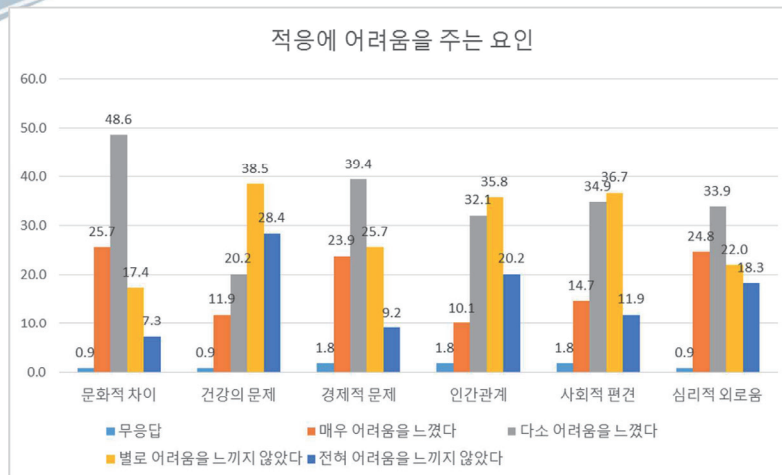
-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 (92.8% > 90.1% > 88.5% > 85.3% > 82.6%)
- 불만족도 역시 5.5%로 최고치

적응에 도움을 준 요인



- 3년간 조사된 문항으로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지원이 33.3%로 1순위
-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단체 참여의 49.7%가 종교단체 (하나재단)
- 북한이탈주민 운영단체 가입율은 12.6% (하나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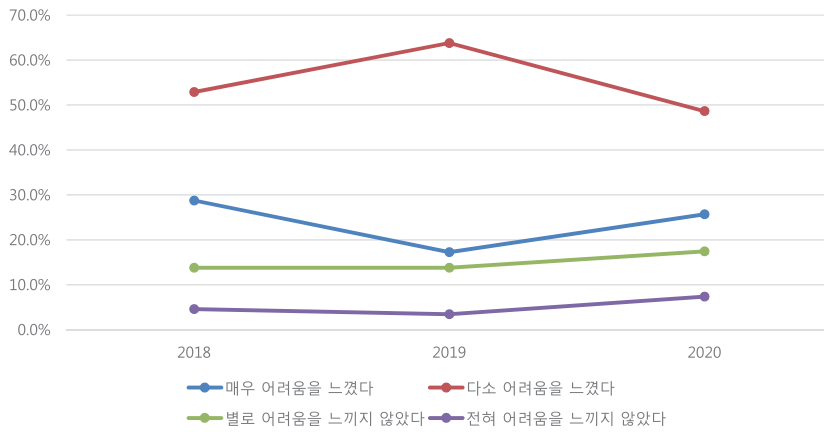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2020)



- 작년과 유사하게 문화적 차이 > 경제적 어려움 > 심리적 어려움 순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다소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소폭 증가
- 문화적 차이를 현실적으로 넘어서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정착과정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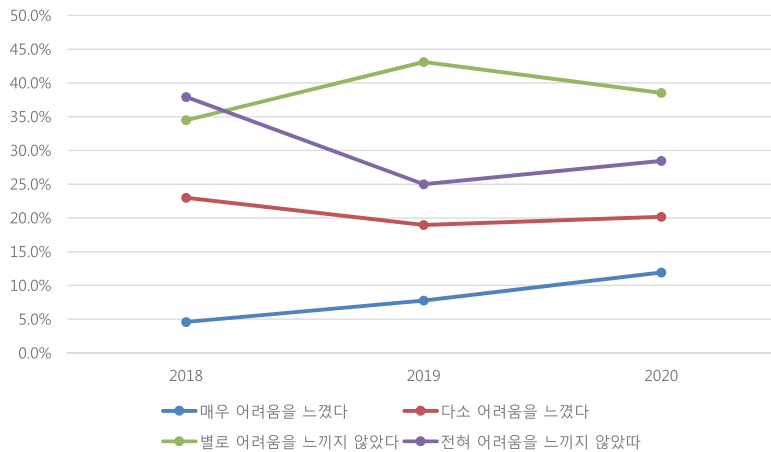
정착의 어려움(문화의 차이)



- 문화적 차이는 해당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지속적 1순위로 나타남
- 2019년 81%에서 2020년 74.3%로 다소 감소

정착과정의 어려움: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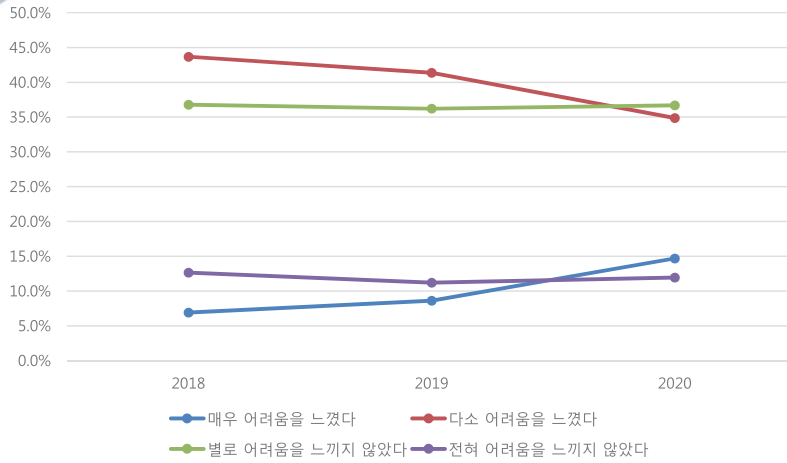
정착의 어려움(건강)



- 건강문제를 정착과정의 어려움으로 지목한 경우는 2019년 26.8%에서 32.1%로 소폭 증가

정착과정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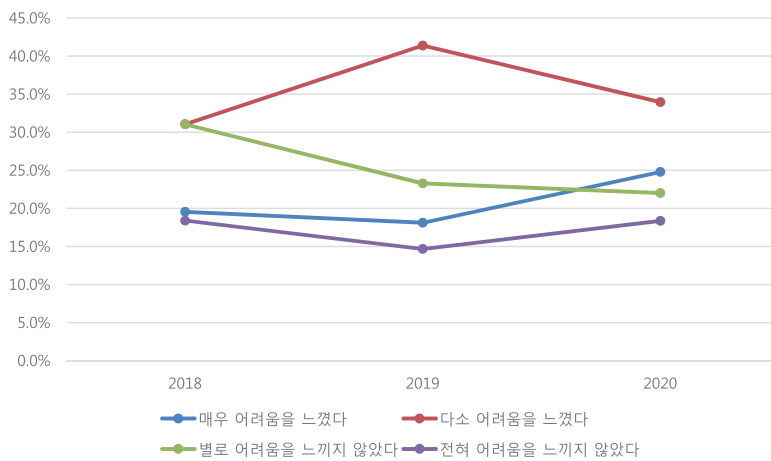
정착의 어려움(사회적 편견)



-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응답은 2019년 50%, 2020년 49.6%로 유지

정착과정의 어려움: 심리적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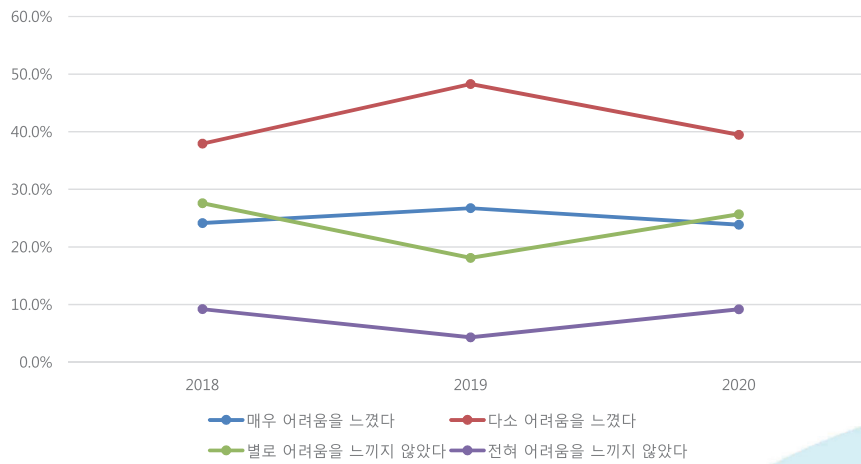
정착의 어려움(심리적 외로움)



- 심리적 외로움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2019년 59.5%에서 2020년 58.7%로 같은 수준 유지

정책과정의 어려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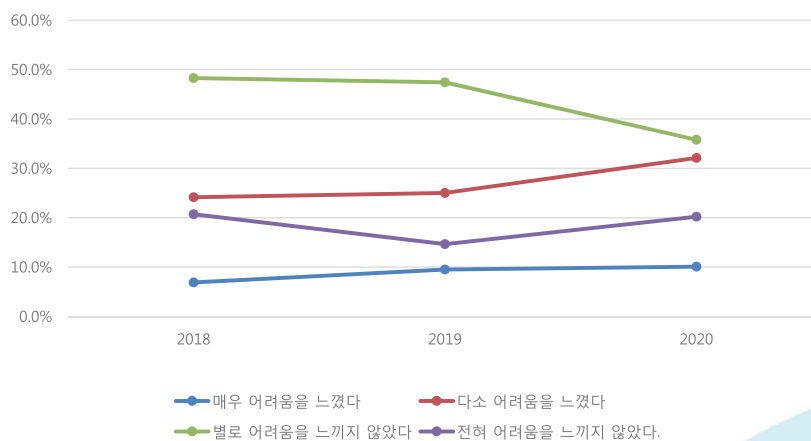
정책의 어려움(경제)



- 정책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경우는 2019년 75%에서 2020년 63.3%로 다소 감소

정책과정의 어려움: 인간관계

정책의 어려움(인간관계)



- 정책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2019년 34.5%에서 2020년 42.2%로 다소 증가

소결

-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매우, 다소/약간)과 부정(전혀, 별로)의 비율은 최근 3년간 다음과 같이 나타남. 친근감은 소폭으로 감소추세이고 포용성 역시 작년 대비 소폭 감소
 - 친근감: 2018년 긍정 89.7%→2019년 긍정 88.8%→2020년 87.1%
 - 포용성: 2018년 긍정 71.2%→2019년 긍정 79.3%→2020년 70.6%
- 남한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과 포용성의 불일치 비율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친근하게 생각하지만 포용적이지는 않음: 2018년 27.1% → 2020년 50.7%
- 국민의식의 경우 지난 3년간 남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은 감소세(71.3%→68.1%→65.1%), 북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은 전년에 비해 감소세(21.8%→25%→22.9%)
 -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은 11.9%로, 2011년 이 문항이 포함된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리 비율을 보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소결 (2)

- 남한생활의 만족도는 80% 선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됨. 남한으로 온 것에 대한 후회와 큰 상관없이 남한생활에의 만족도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지원정책 만족도는 82.6%로 높은 편이나 전년에 이어 최저치 갱신
- 적응에 도움을 준 요인으로는 종교단체가 1순위로 나타남.
- 남한적응에서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 (매우+다소 어려움).
 - 문화적 차이(74.3%)>경제적 문제(63.3%)> 심리적 외로움(58.7%)> 사회적 편견(49.6%)>인간관계(42.2%)>건강문제(32.1%)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소 편차는 있으나 3년간 응답순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남한적응 실태 요약문

천경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남한적응실태

-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매우, 다소/약간)과 부정(전혀, 별로)의 비율은 최근 3년간 다음과 같이 나타남. 친근감은 소폭으로 감소추세이고 포용성 역시 작년 대비 소폭 감소.
 - 친근감: 2018년 긍정 89.7%→2019년 긍정 88.8%→2020년 87.1%
 - 포용성: 2018년 긍정 71.2%→2019년 긍정 79.3%→2020년 70.6%

-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교차분석
 - 친근감은 추상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두 가지 지표를 교차분석하여 친근감에서는 긍정을 보이거나 포용성에서는 부정을 보이는 응답(매우/다소 친근함-전혀/별로 포용적이지 않다)에 주목.
 - 감정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서 친근하게 여겼으나 실제 생활을 통해 경험한 포용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조합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의 지표로 이해.
 - 해당 수치는 2017년 26.7%에서 2018년 44.2%로 증가하였음. 2019년은 50.7%로 다시 증가.
 - 올해 조사결과를 볼 때, 친근감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은 동반 감소 추세. 정서적인 거리는 줄어들고 있고, 친근감을 느낀 경우에도 실제 상호작용에서 배척당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남한생활의 만족도는 79.8%(매우 만족 44%, 대체로 만족 25.8%), 보통 17.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8%로 나타남. 전년에 비해 (80%)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불만족도는 미세하게 증가 (1.7%→2.8%)
 - 강한긍정과 약한 긍정을 합한 만족도가 2016-2019년간 80%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나 수치상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임. 아주 소폭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추세라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음. (참고: 2019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한생활 만족도는 만족 74.2%, 보통 23.5%, 불만족 2.2%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인 경우가 많음. 올해 조사의 응답자 중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가 83%, 후회한다가 16%로 해당문항이 포함된 3년 동안 후회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최고치.
 - 남한생활 만족도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전체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18명 중 13명은 남한 생활에 보통 혹은 만족(매우/다소)한다는 응답.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것과 남한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높지 않음을 작년에 이어 확인할 수 있음.

- 탈북결심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이 37.9%→21.1%로 크게 감소한 점이 올해 결과에서 눈에 띈. 먼저 탈북한 가족의 권유로 전년대비 19%에서 26.6%의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올해 1순위로 지목됨. 경제적 어려움은 지난해 8.6%→15.6%로 증가하여 작년과 큰 차이를 보임. 자유체제에의 동경은 15.5%→16.5%로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됨. 자식의 미래에 대한 고려는 12.9%에서 14.7%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의 이유는 1) 식량이 부족해서 23.5% 2) 북한 체제의 감시, 통제가 싫어서 21.5%, 3)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1.1%의 순이며 2018년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경제적 이유가 정치적 이유를 앞질렀음. 하나재단과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양측에서 모두 작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높아진 것을 볼 때 제재국면으로 인한 식량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주민들의 생활과 나아가 탈북결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자식세대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민의식의 경우 남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2019년 68.1%에서 2020년 65.1%로 감소하였고, 북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 역시 25%에서 22.9%로 감소함. 반면, “나는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11.9%로, 2011년 이 문항이 포함된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리 비율을 보임.
 - 남성응답자의 16%, 여성응답자의 12.5%에 해당하는 인원. 탈북 1년 미만인 응답자 집단의 특성을 생각할 때, 남한사람이라는 자기규정이 높게 나타나던 것에 비해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은 앞으로 그 추세를 흥미롭게 봐야할 부분.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는 82.6%로 2016년 이래 지속적인 만족도의 감소세가 보이는 중 올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만족도는 5.5%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지원정책의 어느 부분에서 불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야 만족도의 감소추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19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를 참조해보면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취업과 창업지원 27.8%, 의료지원 17.4%, 교육지원 13.7%로 나타남. 취업과 창업지원에 대한 응답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지원이라는 수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정부이외에 남한사회 정착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으로 종교단체의 지원이 33.3%,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26.6%, NGO등 민간단체의 지원이 24.8% 순으로 나타남. 기존에 정착해 있던 탈북자들의 도움은 2018년 20.7%→2019년 19.8%, 2020년→11.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2019년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종교단체 49.7%와 시민사회단체 34.9% 순임. (사회단체 참여경험 있음은 25.3%) 이는 일반국민 대비 종교단체는 21%, 시민사회단체는 22.3% 높은 수치임.
 - 같은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단체에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87.4%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 가입되어 있음은 12.6%. 참여한 경우 적극참여도는 46.7%, 소극참여 41.8%, 전혀 활동하지 않음 11.5% 순임.

- 남한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은 2017년에 추가되어 4년째 조사에 포함됨. 4년 동안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와 2순위로 일관되게 지목됨. 전년도에 비해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적응에서 어려운 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이 높아짐. 사회적 편견이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남.
 -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차별, 무시당한 경험이 없음은 82.8%, 있음은 17.2%로 나타나 전년보다 차별, 무시당한 경험이 없음이 증가.

-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문화적 차이를 적응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바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여기서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은,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와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개인적 특성을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는지, 사회계층적 특징을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간의 인식과 가치부여 정도를 살펴 볼 필요.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전략을 수행하는지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함.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2부 | 주민의식

발표 10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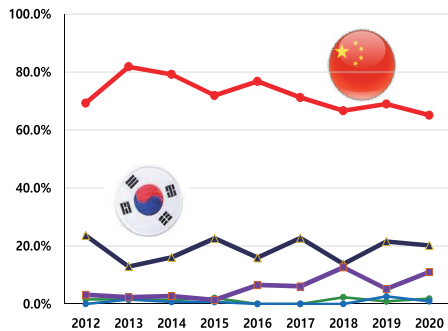
조동준

(서울대)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조동준

주변국 친밀감



중국과 가장 높은 친밀도(65.1%) ↓

한국과의 친밀도(20.2%)는 2순위 ↓

미국-일본과의 친밀도는 보합

2019년 제재 → 인식 악화

*對한국/對중국 동시 인식 악화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2.1%	0.0%	0.0%	2.3%	0.9%	1.8%
일본	0.7%	0.7%	0.0%	4.6%	0.9%	0.9%
한국	22.9%	15.9%	22.7%	13.8%	21.6%	20.2%
중국	72.9%	76.8%	71.2%	66.7%	69.0%	65.1%
러시아	1.4%	6.5%	6.1%	12.6%	5.2%	11.0%

주변국 친밀감 순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1	1	1	1	1	1	1
한국	2	2	2	2	2	2	2
러시아	3	3	3	3	3	3	3
미국	4	4	4	공동	5	공동	4
일본	5	5	5	4위	4	4위	5

중국>한국>러시아 순서는 유지됨.

- 중국: 10년 동안 친밀감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 지속적 하락세
- 한국: 10년 동안 친밀감 2순위. 남북관계/주변국 관계에 따라 등락이 있음
- 러시아: 친러 인식의 급증(5.2% → 11.2%)

주변국 친밀감-성별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8	1.6%	6	0.8%
일본	7	1.4%	2	0.3%
한국	87	17.5%	128	17.2%
중국	323	65.1%	505	67.8%
러시아	28	5.6%	31	4.2%
결측	43		73	
소계	496		745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음 (일본과 러시아 사례만 통계적 유의미성)

북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러시아와 일본에 대하여 더 호감을 가짐(통계적 유의미성; 이유는 모르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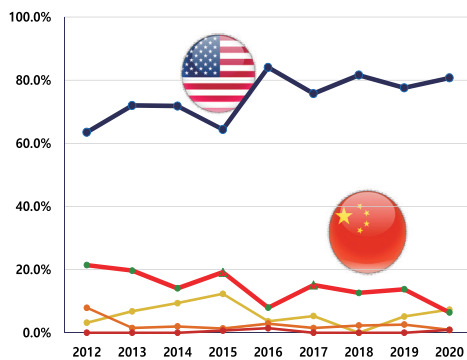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20-30대		40대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국	542	67.5%	278	64.8%
한국	121	15.1%	94	21.9%
러시아	49	6.1%	9	2.1%
미국	9	1.1%	5	1.2%
일본	5	0.6%	4	0.9%
결측	77		39	
소계	803		429	

북한 주민에게는 친밀한 국가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결론!

(민족 의식 →) 40대 이상 연령대가 한국에 더 우호감을 가짐.

평화위협국



미국이 가장 위협적이라 인식(80.7%) ↑

중국 위협이 3순위(6.4%)↓; 일본 위협이 2순위↑

러시아-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음

남북관계가 북한 주민의 한국발 위협인식X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64.4%	84.1%	75.8%	81.6%	77.6%	80.7%
일본	12.3%	3.6%	5.3%	0.0%	5.2%	7.3%
한국	1.4%	2.9%	1.5%	2.3%	2.6%	0.9%
중국	19.2%	8.0%	15.2%	12.6%	13.8%	6.4%
러시아	0.7%	1.4%	0.0%	0.0%	0.0%	0.9%

평화 위협국-성별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321	64.7%	520	69.8%
일본	30	6.0%	41	5.5%
한국	9	1.8%	20	2.7%
중국	89	17.9%	78	10.5%
러시아	2	0.4%	2	0.3%
결측	45		84	
소계	496		745	

북한 남성들이 중국발 위협을 여성보다 높게 평가함 (통계적 유의미).

북한 여성들이 미국발 위협을 남성보다 높게 평가함 (통계적 유의미+성적 위협?)

평화 위협국-연령대

	20-30대		40대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551	68.6%	286	66.7%
일본	45	5.6%	25	5.8%
한국	16	2.1%	11	2.6%
중국	103	12.8%	61	14.2%
러시아	4	0.5%	0	0.0%
결측	83		46	
소계	803		429	

북한 주민의 위협 인식은 연령대별 차이가 없음.

통일을 위한 협조 필요국?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국	빈도	60	52	35	39	41
	백분율	43.8%	39.4%	40.2%	33.6%	37.6%
미국	빈도	17	19	18	30	23
	백분율	12.4%	14.4%	20.7%	25.9%	21.1%
러시아	빈도	16	11	6	6	7
	백분율	11.7%	8.3%	7.0%	5.2%	6.4%
우리힘	빈도	44	50	27	36	35
	백분율	32.1%	37.9%	31.0%	31.0%	32.1%
소계		137	132	87	116	109

북한의 자신감이 소폭 하락 vs. 미국의 능력 인지?

발전을 위한 협조 필요국?

		2016	2017	2018	2019	2020
미국	빈도	8	4	16	16	15
	백분율	6.1%	4.3%	13.8%	13.8%	13.8%
일본	빈도	2	0	1	1	0
	백분율	1.5%	0.0%	0.9%	0.9%	0.0%
한국	빈도	74	44	50	50	54
	백분율	56.1%	50.6%	43.1%	43.1%	49.5%
중국	빈도	45	38	45	45	35
	백분율	34.1%	43.7%	38.8%	38.8%	32.1%
러시아	빈도	3	1	3	3	3
	백분율	2.3%	1.1%	2.6%	2.6%	2.8%
소계		132	87	116	116	109

미국의 필요성 급증 vs. 한국/중국의 필요성 감소

소결

- 중국과의 친밀감이 약간 낮아지나, 여전히 강함. 2019년에도 중국과 한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기에 중국과 한국을 향한 친밀감이 약화됨. 러시아에 대한 친밀감이 대폭 상승(중국에 대한 친밀감 하락에 대한 반응). 일본, 미국에 대한 거리감이 매우 강함.
-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 유발자로 인식함. 한국발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 평가. 일본에 대한 위협감이 상승함(북한내 반일감정 고양 때문이라고 추정).
- 통일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유지됨.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조 유지. 미국이 통일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됨.
-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함. 북한 주민의 마음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요약)

조동준 (서울대)

1. 주변국 친밀감

- 2020년 조사결과 북한 주민은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함. 큰 추세에서는 중국과의 친밀감이 하락하는 추세지고, 2019년 조사에 비하여 감소함(72.9% → 76.8% → 71.2% → 66.7% → 69.0% → 65.1%). 2019년 한반도 교착국면 중 대북제재에 중국이 참여한 현상이 對中 친밀감 저하로 이어졌다고 추정됨.
- 한국과의 친밀감이 2순위임. 전년에 비하여 감소함 (22.9 → 15.9 → 22.7% → 13.8% → 21.6% → 20.2%). 2019년 한반도 교착국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감이 증가할 수 있는 호재가 없었음.
- 북한 주민의 對中 친밀감과 對러시아 친밀감 사이에 있는 부의 상관관계가 다시금 확인됨. 2019년 對中 친밀감 증가 vs. 對러시아 친밀감 감소; 2020년 對中 친밀감 감소 vs. 對러시아 친밀감 증가.
-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음. 북한 남성이 여성보다 對러시아 친밀감을 더 가지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세인지 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음.
- 주변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친밀감에서 연령대 차이가 거의 없음. 40대 이상 북한 주민이 한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더 가짐 → 북한에서도 민족 친밀성이 점차 떨어진다고 추정됨.

2. 평화 위협

-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유발자로 인식함. 전년에 비하여 위협인식이 악화됨(64.4% → 84.1 → 75.8% → 81.6% → 77.6% → 80.7%). 2019년 한반도 교착국면에서 북미갈등이 미국발 위협 인식을 악화시켰다고 추정됨.
- 중국발 위협이 3순위로 떨어짐(19.2% → 8.0% → 15.2% → 12.6% → 13.8% → 6.4%). 북한 주민의 안보불안감에서 미국발 위협감과 중국발 위협감이 상호 교차하는 현상이 약하지만 다시 확인됨.
- 일본발 위협인식이 증가하여 2순위가 됨. 2018년부터 미국 대신 일본을 욕망어로 활용하는 북한의 공식 담론의 영향으로 추정함.
- 한국발 위협을 매우 낮게 평가함. 2019년에 비하여 한국발 위협인식이 하락함. 한국 위협감의 감소가 일본 위협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추정됨.
-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에서 성별 차이가 약하게 존재함. 북한 남성이 중국발 위협을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함. 북한 여성이 미국발 위협을 남성보다 더 높게 평가함.
-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에서 연령대 차이가 없음.

3. 북한의 자신감

- 통일과정에서 주체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됨. 북한 정권의 자신감이 주민들에게 투영된 듯. 핵무장의 영향이라고 추정됨.
- 2019년 한반도 교착국면으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미국으로부터 협조 필요성이 감소함(25.9% → 21.1%). 반면, 중국으로부터 협조 필요성이 소폭 상승함 (33.6% → 37.6%). 미중간 교차현상이 이 영역에서도 확인됨.
-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중국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감소함. 북한 주민이 미국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고착됨. 즉,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함.

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포스트 하노이 북한사회 변화

제2부 | 주민의식

토론

토론문

김진환 (통일교육원)

정성철 (명지대)

박순성 (동국대)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 토론문

정성철 (명지대)

* 문인철 박사님 토론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의 '특성'(성별, 나이, 출신지, 계급 및 성분, 탈북 동기, ..)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북한 국내의 '상황'의 변화 때문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2. 2017년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2017년과 2018년과 비교하여 현재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점이 인상적임.
3. 남한 문화 유통 경로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해 구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접했다는 응답이 일관되게 높다는 것은 상호 감시라는 북한 사회의 특징이 약화 혹은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4. 일반적으로 탈북민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한국과 미국 정부 등에 요청한다는 인식과 상반되게, 남한의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는 인상적임.
5. 탈북민의 특성에 따른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봄.
6. 김정은 시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작업과 더불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공고화되면서 관찰되는 특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봄.

* 조동준 교수님 토론

1. 왜 40대 이상이 20-30대보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은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다양한 한국 문화와 방송에 대한 접촉과 그 영향을 생각할 때 북한의 새로운 세대(장마당 세대)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그 반대를 지지함.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40대 이상이 20-30대보다 낮게 나타남.
2. 평화위협국 관련하여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 뿐 아니라 '출신지' 혹은 '외국 경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3. 통일과 발전을 위해 협조국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2017년 이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앞서 평화위협국에서 같은 시기 증가 추세와 일치하는 듯함. 만약 그렇다면, 미국과의 갈등 혹은 위기를 경험한 후 미국의 국력에 대한 인식이 통일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의식을 낳은 것인지 궁금함.
4. 앞서 말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중국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 2017년 이후 중국을 평화위협국으로 바라보는 응답률은 낮아졌는데 동시에 중국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조 필요국으로 긍정하는 응답률도 낮아짐. 역설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5. 북한 주민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인 변수(성별, 나이, 출신지, 계급 및 성분, ...)와 더불어 환경 변수(남북 관계, 미국 위협, 중국 지원, ...)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추후에 요구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